신심과 정성으로 聖寶 文化 창조
불상·탱화·범종 전시관
전화문의 : (02)735-1045 / 735-2344

현대불교

55 세부터의 월급, 국민은행에서 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 개인 연금 신탁
가입문의 : 080-023-4000

명예회장 :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 김광삼 / 논설고문 : 고은 / 편집국장 : 최정희 / 인쇄인 : 김규식 / 등록번호 :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 737-8881 / 편집국 : 722-4162 FAX : 737-0698 / 광고국 : 737-0692 / 구독신청 : 737-0693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38년(서기 1994년) 11월 16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금주의 법구

연기를 보는 자는 진리를 보고 진리를 보는 자는 연기를 본다. 〈중아함경〉

법회 안내

불광사 (02)413-6060
20회 수계법회 11.20. 10시30분
호법방원법회 매월 첫주 수
구도정진법회 매월 셋째 토
유아법회 매주 일 오전10시30분
청년부 법회 매주 토 오후7시
어린이·중고등법회 매주 일

구룡사 (02)575-7766
불교대학 매주 화·수 오후1시
가족법회 매주 일 오전 10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중고등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청년법회 매주 일 오후 2시
21일 정진기도 11.3~11.23

무진법장사 (02)932-2333
일요합동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 10시
중고생법회 매주일 오전9시30분
청년회법회 매주 일 오후 2시
거사회법회 매주 일 오전 11시
초하루법회 오전10시30분

관음사 (02)582-8609
합창단법회 매주 목 오전10시
초하루법회 매월 초하루(음)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30분
중고등법회 매주 일 오후1시30분

동국대 정각원 (02)260-3016

도문스님초청법회 11. 15. 오후 4 시(주제 : 참선수행)

강동포교원 (02)482-7244
동안거 백일기도 11. 27~2. 17
초하루법회 매월 초(음)
직장인법회 매주 수 오후7시
중고등법회 매주 토 오후3시

능인선원 (02)554-8411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중고등법회 매주 토 오후 3시
대학부법회 매주 토 오후5시
청년법회 매주 토 오후6시
일반법회 매주 일 오전10시30분

진해 정암사 (0553)43-6255
초하루법회 매월 초하루(음)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중고등법회 매주 일 오후1시

※ 이난은 각 사찰의 법회 소식을 알리는 난입니다.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포교당은 전화(722-4162) 팩스(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개혁 바톤 잇기' 분주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21일···후보등록 마쳐

중앙종회의원 81명 선출, 80%가 초선

11대 종회 16일 개원

조계종 개혁회의는 개혁 바톤을 차기 집행부에 넘겨주기 위한 개혁 막바지 초 읽기 작업에 들어갔다.

지난 7일 제11대 중앙종회의원 48명을 각 교구별로 선출하고 직능별·비구니 종회의원선출을 완료한 개혁회의는 11일 총무원장 후보자 등록이 마감됨에 따라 △종회 원구성 총무원장 선거인단 선출(14일) △개원종회(16일) △총무원장 선출(21일) △임원회의 인준(23일) 등의 일정만을 남겨두었다.

개혁 막바지 일정의 최대 이슈는 총무원장 선거.

예측된 대로 사형사제 간인 월주스님(59, 금산사 회주)과 월탄스님(57, 전 법주사 주지)의 숙명적 대 결전이 벌어지게 됐다.

월주스님은 지난 9일 오전 9시 조계종 선거관리위원회에 1번으로 등록, 오전 10시 프레스센터 19층 국회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혁완성, 대사면조치 등 향후 종책을 밝혔다.

월탄스님도 바로 뒤이어 선관위에 등록했다. 월탄스님은 등록이 끝난 직후 조계사 대웅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행가풍확립 종단운영 민주화 등의 종책을 발표했다.

월주스님은 지난 54년 법주사에서 금오스님을 은사로 출가(은사 금산사 주지, 중앙종회 의장 등을 역임하고 지난 80년 4월 총무원장에 선출됐으나 10.27법난으로 물러났다. 현재 경실련 불교인권위 관불협 등 10여개 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다. 월탄스님은 지난 55년 화엄사에서 금오스님을 은사로 출가, 조계사 법주사 주지, 중앙종회 의장을 역임했다. 현재 동국대승가총동문회장과 한국불교발전연구원 이사장으로 있다.

지난 7일 조계종 최초로 재적승에 의한 직접 비밀투표로 실시된 제11대 중앙종회의원 선거는 총 유권자 2천8백8명의 비구스님중 1천1백15명이 투표 39.7%의 투표율을 기록하며 48명의 새 종회의원을 탄생시켰다 (해인사 제외). 또한 8일 열린 직능 종회의원 선출위원회에서 율원 선원 강원 교육 포교 사회 복지 문화 법제 행정 비구니 등 11개 부문 간선의원을 확정했다. 〈명단 15면〉

이번에 선출된 종회의원들은 80% 이상이 초선이고 연령별로 30·40대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 하는 것으로 밝혀져 새로운 개혁적 인물이 대거 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직능 선출의원중에는 개혁 대상이던 인물이 일부 끼어있는 것으로 드러나 개혁회의 마무리 작업에서의 험집으로 지적되고 있다.

16일 오전 10시 총무원 불교회관에서 개원종회인 제 114회 중앙종회가 열린다. 이날 새 종회의장·부의장도 선출된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 총무원장 선거가 끝나면 개혁회의는 자체 해산 법회를 갖고 오는 28일 새 종단집행부에 바톤을 넘기게 된다.

개혁회의 본 회의로는 마지막 열린 제12차 개혁회의에서 △종단교무금 납부에 관한 법 △예산회계법 △선원법이 새로 제정되고 △총무원법 △포교법 △종립학교 관리법 △계단법 △호계원법 △신도법 △중앙종회의원 선거법 개정의 건이 만장일치로 심의 통과됐다.

비구니 종회의원 '직선'

조계종 선거법 일부개정···차기 선거부터

비구니스님들의 참종권요구가 받아들여져 조계종 중앙종회의원선거법 일부가 개정, 비구니스님들의 직선으로 중앙종회의원을 선출하게 됐다.

조계종 제12차 개혁회의는 지난 9일 열린 본회의에서 중앙종회의원 선거법 제18절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선출방법을 규정한 제 31조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10인은 비구니계의 추천을 받아 직능대표 선출위원회에서 선출한다를 △①비구니 중앙종회 선거구는 전국을 단위로 한다 ②비구니 중앙종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등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선거는 교구별로 비구니 스님들의 직접선거로 실시토록 개정, 신설 조항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비구니 스님들의 분리 간선 선거권이 분리 직선 선거로 바뀌어 비구니 스님들에 대한 차별이 다소나마 해소됐다.

목어

개혁의 뚜렷한 흔적으로 조계종의 교구본사 주지 진산식이 줄을 잇고 있다.

〈최수백장청규〉에 의하면 '당시대에는 진산식을 행할 때 신임주지는 바탕을 지고 산문에 이르러 분향한 후 법어를 한다' 고 되어있다. 신임주지스님이 사원에 처음 들어와 업무를 계승하는 진산(晉山)은 본래 개당(開堂)에서 변형됐으며, 주로 선종에서 행해졌다고 전한다.

개당은 신임주지가 법당을 열고 공식적인 설법을 시작하는 것인데 남송시대 이후 부임행사의 일부로 행해졌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때 왕명에 의해 개당의식을 펼쳤다는 기록이 있다. 조선조에 와서는 신임주지스님 취임때 진산식을 갖고 산문 인근의 주민을 초청하여 정성껏 차린 음식을 나눠 먹으며 법석을 펼쳤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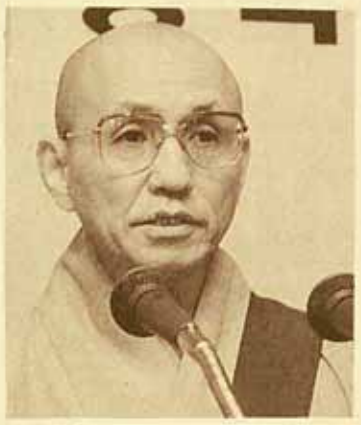
요즘 진산식에는 큰스님들과 각계인사 그리고 신도들이 두루 참석하여 축하와 경의를 표한다. 대형 화환과 꽃바구니가 즐비하고 음식이 풍성하다. 더없이 좋은 잔치날이다. 이런날 이름있는 하객들이 멀리서 방문하는 것은 보기좋은 풍경이다. 그러나 주지스님이 새로 오시는 날 빠져서는 안될 하객이 있다. 지역 주민들이다.

큰 절 진산식

사람들은 세칭 큰절 주지스님을 '지역 사령관'이라고 한다. 지역의 리더로서 이웃의 희노애락을 함께하며 '몽네방네' 일을 다 잘 아는 정신적 지주 또는 '해결사' 가 되어야 한다는 뜻인 것이다. 그렇다면 진산식 마당에 초대받아야 할 손님이 누구인가는 자명해진다. 절 주변의 주민들과 노인들 그리고 소년소녀 가장들을 위한 상차림과 행사가 마련된다면 더없이 보기 흐뭇한 진산식이 될 것 같다.

거기다 알기쉬운 불서나 절을 알리는 안내책을 법공양한다면 새 주지스님 오신 날을 기리는 진산식의 노래가 더욱 선명하게 울려퍼질 것이다.

총무원장 후보 기자회견 1문1답



월 주 스님

"개혁완성·종단화합 불교관계악법 개정"

– 출마동기는

"많은 종도들에게서 종단의 화합과 개혁 성취 및 개혁의 완성을 위해 나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 종책의 기본 방향은

"첫째 종단 발전의 백년대계를 위해 대화합의 중도 온건 개혁종책을 과감으며, 둘째 개혁회의에서 제정한 새 제도를 시행·정착시키는 일에 매진하겠다. 또한 교단의 자주성을 확립하고 불교관계 악법들을 개정하도록 하며 불교의 시대적 역할을 확대, 사회 구제와 계도에 역점을 두겠다."

– 종책 내용중 대사면조치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개혁과정에서 징계를 받은 이들도 개전의 정이 보이는 사람은 화합차원에서 대사면조치를 취해 종단 발전에 참여토록 하겠다."

– 개혁회의 7개월을 평가한다면

"전임자의 3임 자지, 종회의원 결직금지 등은 획기적인 조치였다고 평가한다. 또한 개혁의지를 관철시켜 전국민적 공감대를 얻어내고 역사적 전기를 마련한 점 역시 높이 사고 싶다. 그러나 경험 미숙에서 오는 구조적 모순도 간혹 눈에 띈다."

– '경불련' 등 10여개 사회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는데 불교의 대 정부관계 개선 방안은

"80년 4월 총무원장이 된 후 첫 일성이 종단을 자주적으로 지키겠다는 것이었고 자주화에 대한 시안까지 만들어 정부에 보냈으나 끝을 보지 못했다. 국가와 민족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조속에 관계를 개선해 나가고 자율화를 지켜가겠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불자들이 깨어나 스스로 자주화를 확립해 가야 하는 것이다." 〈경〉



월 탄 스님

"정교분리·포교혁신 승가복지제도 확립"

– 27대에 이어 두번째 출마한 뜻은

"개혁불사의 마무리를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 이 시대의 불교는 전통과 현대가 잘 조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본인의 경험을 필요로 한다고 판단했다. 27대 때 부족했던 경험과 지혜를 보완했다."

– 개혁불사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모든 종도들의 뜻인 총무원장 1인의 전횡과 독단을 막았다. 또한 불교가 이제까지 어용이란 말을 들었으나 불교의 주체성 자주성을 이루는 전기가 됐다. 그러나 짧은 기간 서둘다보니 종헌종법에 약간 무리한 부분도 있었다."

– 새 종헌종법의 미진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든다면

"기구가 너무 많이 비대해졌다. 민주화 입장으로는 긍정적이지만 종단을 일사분란하게 운영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한국불교에서는 힘이 하나로 뭉치는 계기가 있어야 하는데 힘이 분산되어 아쉽게 생각한다."

– 결치고자 하는 중요 종책은

"승가의 수행가풍 진작을 위해 종립선원 제도화, 종단운영의 자주화를 위해 정교분리·교구본사 활성화, 대중불교를 통한 포교의 전문화를 위해 불교 텔리비전·불교방송망 확충, 불교복지를 위해 전 승려의 승무비 지급과 의료보험을 실시하겠다."

– 승무비와 의료보험 실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불교의 복지제도는 전반적으로 미약하다. 특히 승가의 복지제도가 열악하여 노후나 생계 의료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안정적인 수행과 포교에 전력할 수 있도록 승무비 지급과 의료보험을 제도화 하겠다." 〈숙〉

수요인터뷰 미당 서정주 시인 ···7면

함께 오늘의 우리를 생각합니다.
2. 도산 안창호를 찾아서



島山 安昌浩 1878~1938
평안남도 강서군 도롱섬에서 자라나 일제치하에서 신민회, 흥사단 등을 창립해 민족운동을 일으키고 참다하고 동명학원 등을 설립해 인재교육에 힘쓴분.
임시정부 내무총장을 지내면서 독립운동을 주도한 그는 우리나라 근 현대의 여러 인물들 가운데서 가장 성실한 지세와 정직한 마음씨를 가졌던 인격적인 지도자로 널리 알려져 있음.

묻노니
오늘 대한의 주인되는 이가
몇이나 됩니까

강한 책임감을 가진 자가 진정한 주인이요
무책임하게 방관하는 자는 손님이외다.

"대한사람은 모두가 대한의 주인인데
주인이 얼마나 되느냐고 묻는다면
이상할 것이외다.
그러나 오늘 대한사회에 주인다운 주인이
얼마나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잘되고 못되는 것이 모두 나에게 달렸다는
강한 책임감을 가진 자가 진정한 주인이요
무책임하게 방관하는 자는 손님이외다.
주변을 둘러보아 진정한 주인이 적다 싶으면
빨리 나부터 참주인이 되도록 합시다."

올바른 나라사랑의 길을 우리에게 일깨워 온 민족의 선각자 도산 안창호(島山 安昌浩). 그는 이렇듯 우리 모두가 진정한 주인으로 살아가기를 열망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인이 아닌 손님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장엄한 역사가 새롭게 펼쳐지고 있는 지금, 다시한번 도산의 말씀을 되새겨 봅니다.
우리는 과연 이땅의 진정한 주인입니까?

선경은 서로 돕고 함께 나누는 활기찬 사회를 생각하며 우리에게 큰 깨우침을 남기신 선인들의 소중한 말씀에 겸허하게 귀를 기울입니다.

SUNKYONG
鮮京그룹

열린마당

東大사건 이후, 처방은…

인 성 교 육

화합정신으로 마음의 다리도 복구하자

사 설

제자가 스승을 때리는 세상이다.

10월 31일 오후 6시 반경 동국대학교 본관 불상 앞에서 이 학교 국문과 학생 7명이 불교대학 선학과 최현각 교수를 집단폭행했다.

이 대학생들은 술에 취해 불상을 발로 차고, 최교수가 신분을 밝히고 나무라자, 주먹질 등으로 집단구타했다는 것이다.

이 사태에 「잘못 가르친 책임」을 느껴 총장을 제외한 전 보직교수가 사표를 내고, 문제학생 가운데 2명은 제적, 5명은 무기정학처분을 받았으며, 징계학생들은 동국대 정각원에서 3천배 참회 정진법회를 가졌다 한다.

우리 전통적 도덕상 제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아서는 안되는 데, 학문을 전수하는 대학 교정에서 3배를 해야할 인천의 스승(天人師)인 부처님 상징에 발길질을 하고 이를 나무라는 스님교수에게 대학생들이 집단구타했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이밖에도 최근에 대학교수가 학생들에게 불잡혀 감제삭발당하는가 하면, 교내에서 주차문제로 대학생들이 교수를 집단폭행하는 등 사제간의 윤리가 말이 아니다.

지금 우리사회는 도덕적 무질서 즉 아노미(Anomie:沒價値)의 상태가 되어 사회가 붕괴되는 총체적 위기상태이다.

최근 잇따른 「지존파 살인사건」「인천 북구청 세도사건」「성수대교 붕괴사건」 등은 사회전체적 불신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는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여 근본대책을 세우지 않고, 쉽게 잊어버리는 공업(共業)을 쌓아 또 하나의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된 중요 이유는 우리가 주인정신을 잃고, 전통적 가치체계는 붕괴됐으며 새 가치체계는 확립되지 않은 채, 서풍이 동풍을 제압하는 풍토 속에서 사대주의와 천민주의가 판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기에 도덕적 무질서로 땅에 떨어진 사제간의 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나라가 잘 되려면, 교육이 잘돼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먼저 사회 전체가 인덕정치와 인성교육에 중점을 둔 가치체계확립이 나서는 심기일전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라야 한다.

불성인 인격을 최고 가치로 하여 '나는 누구나' 하는 깨달음에 이르고 보살도를 실천해야 한다. 보살도에는 못 이르더라도 어린시절부터 가정과 학교 및 사회가 적어도 '남에게 피해는 주지 않는' 최소한의 공동체 윤리만은 꼭 지키게 습관들여야 한다.

마음엔 부처님의 진리인 화합중(和合衆 : Samgha)이 되어야 한다. 4부대중이 화합하여 지난날의 잘못을 모두 참회하고, 은혜에 보답하며, 서로 살리는 6화상생(六和相生)으로 나아가야 한다.

한편 교수등 가르치는 사람은 인격적 모범을 보이며 인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제자를 사랑하고 아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은 스승이 나랏님이나 부모님과 같은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라는 것을 깨달아, 스승을 존경하는 것을 제 1의 덕목으로 해야 한다.

끝으로 학교교육제도에서 잘하는 학생에겐 상을 주고, 잘못하는 학생에겐 벌을 주는 신상필벌(信賞必罰)의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사제간의 윤리확립과 함께 나라의 민주화와 민족 대통일을 앞두고, 지금은 새 가치체계 확립을 위한 범국민적 운동이 일어나야 할 때이다.

주입식 수업을 불교적 도덕교육으로

전문가의견

올해 들어 청소년들의 도덕성이 그 어느때보다도 크게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동안의 교육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부부중심의 핵가족화에 따라 자녀는 하나 또는 둘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지나친 사랑으로 '오냐오냐'의 행태가 자기 중심적이게 하고 있다. 게다가 못해보고 못이룬 꿈을 자녀를 통해 성취하려는 '한풀이'의 교육관도 적지 않다. 여기에 입신출세의욕이 가세하여 학교성적 높이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다. 기본적인 가치기준이나 예의범절은 실제에 있어 제2차적인 관심사항이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개개인의 이기심에 기초하여 생산성향상과 사회발전을 기하려고 하는 시장경제 체제에서 살고 있다. 건전한 도덕성과 공평한 법치가 확고하지 않으면 도덕적으로는 가장 취약점이 많은 사회이다. 그 가운데에서도 감각적 향락과 소비를 자극하는 광고는 많은 경우 도덕교육을 악화 내지 방해하고 있다.

학교교육은 주로 지식중심의 교육이다. 그것도 초·중등을 막론하고 전반적으로 많은 양에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게다가 한 반에 50명까지 수용하고 있어 이점에서 교육후진국이다. 결국 지식중심의 획일화된 주입식이 교실수업을 지배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도덕교육 또한 여기에서 예외가 아니다.

한국사회에서는 학벌이 사회생활에서 중요한 가치임은 널리 알려진 바와 같다. 여기에 이미 지적한 가정의 교육관이나 행태가 끈질긴 가족주의와 복합되어 누구나 일류대학에만 보내려 한다. 학교교육은 이러한 빗나간 교육관이나 행태에 불모잡힌 꼴이 되어 있다. 뿐만이 아니다. 맞지 않으면 틀리는 것이라는 흑백논리의 사고방식을 내면화시키는 O X 식이나, 하나만 옳고 다른 것은 모두 잘못이라고 생각하게하여 독선적이게 하는 사지선다형 등 그 통안의 평가방법은 사고의 유연성과는 정반대의 방향이었다. 고등학교 교육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대학입시에서의 내신성적 등급제는 같은 학교에서 다른 학우의 성적이 나빠야 내가 유리해지는 반교육적 제도이다.

불교에서는 탐욕과 성냄 및 어리석음이 모든 악과 불행의 근원이라고 본다.

교육은 내용과 방법 모두 상대방에 따라 알맞아야 한다고 한다. 이점에서 볼 때 학교제도는 일찍부터 규모와 종류에 있어 다양화하고 소질과 취향에 따라 취학과 이동이 자유롭게 해야한다. 아울러 법조인이나 의사에서 보듯이 각 분야의 학력이나 기능이 적절한 절차에 의해 취득되는 자격증제도를 개발·정착시켜 어느 대학의 졸업장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각자 어느 분야에서 최선을 이루었느냐가 중요시되어야 한다. 이는 탐욕이 아니라 건전한 발원으로 끌두하면서 보람을 느끼게 하기 위한 처방이다.

한국의 교육은 가정이나 사회 그리고 학교까지도 이미 살핀 바와 같이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나 이기적 탐욕을 부추기는 문화로 가득하다.

이는 바로 자기중심적 성냄과 어리석음을 야기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석존은 인간과 사물의 존재방식을 철저히 분석하여 탐욕과 성냄 및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나 바른 견해에 눈뜨게 했다. 또한 정신적 집중의 명상을 통해 자신을 정화하고 바른 견해가 내면화하도록 했다. 다시 말해 존재본적 성찰과 명상은 불교적 도덕교육의 핵심이다. 학교교육에 있어 신교(信敎)의 차이를 떠나 이러한 방법을 도입해 봄직하다 하겠다.

박선영 〈동대교수 교육학과〉

입시지옥 탈피… 근본적 변혁 절실

편집국에서

우리나라의 현대식 교육이 시작된 것은 1897년 개항 이후의 일이다. 전래의 실학정신을 계승하여 국민을 계몽하고 국가를 부강하게 하자는 것이 그 목적이다. 한편으로 선교사들에 의한 사학(私學)운동이 근대화 과정에서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미션계통의 사학이 기독교의 전파에 그 목적을 두고 있었음에도 국민계몽에 끼친 영향을 과소 평가할 수 없다.

일제강점기의 교육은 식민지 지배체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관제교육과 민족의식을 고취하여 자주 독립을 쟁취하고자 하는 사학교육으로 대별할 수 있다.

일본이 한국을 우민화하기 위하여 대학설립을 방해하거나 실업계 교육에 치중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반면에 식민통치의 압제 속에서도 자주 독립을 위해 사학운동을 전개한 것은 이 민족교육사상에 있어 혁신적인 움직임으로 평가되고 있다.

해방 이후의 교육은 정치·사회의 불안 속에서도 한국민족교육의 터전을 닦기 위해 노력하는 시기였다. 일제 강점기 시대의 잔재를 말끔히 청소하고, 민족의 항구적 발전을 위해 민주주의 정신의 함양, 실용적 교육, 과학교육이란 측면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물론 민족교육이란 측면에서 홍익인간을 교육의 지표로 제정한 것도 이 무렵이다.

현재와 같은 교육제도가 확립된 것은 제3공화국 이후이다. 1961년 9월 '교육에 관한 임시 특례법'과 1963년 6월 '사립학교법'을 제정 공포하면서부터다. 이 무렵의 교육 슬로건은 '조국 근대화'에 필요한 인재의 양성이었다. 1968년에는 교육정책상에 일대 개혁이 연이어 발표되었다. 즉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와 국민교육헌장의 선포, 대학입시 예비고사제와 통신교육제가 그것이다. 1970년대에는 '장기종합교육계획'이 발표되고, 이어 1972년 부터는 '국적있는 교육' 찾기 운동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1971년 7월 '장기종합계획심의회'는 '교육정책심의회'의 규정이 새로 공포되므로써 발전적으로 해체되었다. 이 계획은 기본교육목적을 인간주의 방향, 국가주의적 방향, 발전주의적 방향에 두고 있었다.

1981년에는 교육계에 일대 혁신이 일어나게 되었다. 대학입시의 본고사 제도를 폐지하고 고등학교의 내신성적과 대학학력고사 성적을 반영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내신성적 제도가 지닌 양성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학교 및 지역간의 편차로 인하여 일률적인 내신성적 반영은 타당하지 못하다는 여론이 대두하게 되었다. 이러한 영향과 복고주의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제기한 교육의 질적 저하라는 주장에 따라 대학입시의 본고사 제도가 조심스럽게 대두하고 있다.

한국의 교육제도는 한국의 산업화와 경제적 발전, 민주주의 제도의 도입에 혁혁한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개혁이 추진되어 오고 있다.

개혁의 방향은 첫째 민주·정의 사회 건설을 위한 국민정신교육의 강화, 둘째 고도산업사회에 부응하는 과학·기술교육의 진흥, 셋째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평생교육의 확충, 넷째 창조·개혁·발전을 위한 전인 교육의 충실 등이다.

이러한 교육개혁 방향은 한국의 교육제도가 지닌, 진학하기 위한 입시지옥을 야기했다. 특히 경제발전이 급성장하자 70년대 이후는 진학이 출세를 보장하는 것으로 등식화 되었다. 이러한 제도는 학교교육을 진학의 발판에 불과한 것으로 전락시켰다. 따라서 인간의 품성교육이나 '더불어 삶의 미덕'을 가르칠 필요성이 없어졌다. 국·영·수의 실력배양이 진학의 필수요건이 되어 기타 교양과목은 구색맞추기에 급급한 것이었다.

이제 한국교육의 장래를 걱정하는 전문가들은 대학입시의 근본적 변혁을 희망하고 있다. 따라서 일부 사학을 중심으로 효행이 뛰어난 학생을 특별전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인간의 품성을 함양시킬 전인교육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면 한국의 미래는 불투명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동국대학교 교정에 있는 불상과 참회하고 있는 학생들.

현대만평

박구원



내일을 생각하며

불교성지순례

인도를 다녀오신 모든 이는 부처님의 미소를 닮아 있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룸비니)에서 성불(브다가야), 그리고 설법(사르나트)과 열반(쿠시나가르)까지 모든 수행과 성도의 현장을 직접 순례하시고 성불하십시요.
오랫 동안 부처님의 큰 뜻을 연구해 오신 오국근 교수님(인도 네루대학 교환교수, 한국·인도협회 부회장, 한국 불교 청년회장 역임, 현 동국대 교수)께서 전 일정을 동행하시면서 부처님의 큰 뜻을 전해 드릴 것입니다.

순례일정표

제 1일	12시 45분 대한항공 631편으로 방콕 향발
제 2일	방콕—카트만두(수와이 앰브넛, 라마불교 사원 참배)
제 3일	히말라야산(원숭이 사원, 쿠미르 사원등 순례)
제 4일	카트 만두—**룸비니** 순례—소노울리
제 5일	소노울리-발람푸르(가원 정사 순례)
제 6일	발람푸르—**쿠시나가르**(부처님 최후의 설법지, 열반지, 화장터등 순례)
제 7일	쿠시나가르—바이살리(아난다 탑, 부처님 사리탑등 순례)
제 8일	파트나—라자기르(죽림 정사 순례)—브다가야
제 9일	**브다가야**(마하보디 대탑)—**사르나트**(녹야원 참배)—바라나시
제 10일	바라나시(갠지스강 유람)—아그라
제 11일	아그라(타지마할, 아그라성등 순례)—보사월
제 12일	보사월—아잔타 석굴—오랑가바드
제 13일	오랑가바드—엘로라—봄베이(비치 야경 관광)
제 14일	봄베이에서 06:00시 대한항공 806편으로 서울 향발

卍 출발안내
- **제1차 순례**:12월 4일~12월 17일(신청마감일:11월 19일)
- **제2차 순례**:1월 1일~1월 14일(신청마감일:12월 17일)
- **제3차 순례**:2월 5일~2월 18일(신청마감일:1월 21일)

卍 동참금
₩ 2,190,000(신청금 포함, 여권인지대 별도)

卍 신청금
₩ 200,000

卍 수속 준비서류(인도·네팔 비자 포함)
— **여권미소지자**:주민등록등본 3통, 여권용 사진 8장, 주민등록증 인지대 ₩ 45,000
— **여권소지자**:여권, 주민등록등본 1통, 여권용사진 4장 주민등록증 사본

※참가인원이 단체여행기준에 미달시 출발일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미소의 나라, 불교의 나라로……
태 국 5日
동참금:655,000
출발일:11/23, 30 12/7,14,21,28
·**일정**:서울—방콕—파타야—아유타야—방콕—서울

생활 속의 불교를 보며……
미얀마·태국 8日
동참금:1,400,000
출발일:11/18, 25 12/2, 9
·**일정**:서울—방콕—양곤—파간—만달레이—양곤—방콕—서울

부처님의 자사리를 친견하며……
스리랑카 6日
동참금:1,070,000
출발일:11/25, 12/2,9,16,23,30
·**일정**:서울—콜롬보—아누라다푸라—폴론나루와—시기리아—담불라석굴—캔디—콜롬보—서울

중국 불교의 또다른 발자취
대 만 5日
동참금:645,000
출발일:11/24, 12/1,8,15,22,29
·**일정**:서울—타이페이—고웅(불광사)—화련—타이페이—서울

※해외 여행 상담 및 여권, 비자 수속을 정성껏 대행하여 드립니다.

불교 성지순례 전문 (주) 아 태 관 광 저희는 이익금의 일부를 불우 이웃돕기 성금에 사용합니다. ☎ 732-3200(代)

신행수첩

이름간 업장씻는 기도 보리암 · 실상사등서

쌀쌀해지는 날씨속에서도 신심을 높이기 위한 신행활동이 계속되고 있다.

조계사 신도회(회장 홍성관영)는 18일, 19일 양일간 방생기도 및 성지순례를 떠난다.

신도회는 18일 오전 6시 30분 조계사를 출발, 실상사와 천운사를 둘러보고, 남해 보리암에 도착 철야기도를 갖고 불법삼매에 들어간다.

다음날은 선운사 참배와 도솔암에서의 기도로 불심을 한껏 드높일 예정이어서 뜻있는 불자들은 한번 쯤 참여해 보는 것도 좋을듯 하다. (02-739-1951)

천년고찰 은해사 17일 명부전 낙성

불교성지 팔공산 남쪽줄기에 자리한 조계종 10교구본사 은해사(주지 혜암)가 17일 오전 10시 명부전 낙성식과 대웅전 좌우보살 점안식을 봉행한다. 수행납자들의 등안거 결제와 때를 맞추어 봉행되는 이번 불사회향은 곧바로 백일기도로 이어진다.

은해사는 신라 헌덕왕 원년(809년) 혜철국사가 창건한 천년고찰이다. 거듭된 화재로 문화재가 없는 것이 아쉽지만 산내에 운부,거조,기기,백흥암등 문화재급 암자가 있어 역사를 보여준다.

특히 지난 여름 율사 일타스님이 주지로 부임,계율도량으로서 새롭게 면모를 일신하고 있다.(0563-35-3318)

포교의 활성화 논의 조계종 전국 5개지역

포교는 낯선 이에게 무엇인가를 알리는 것이며 포교사는 그 역할을 긍지로써 수행하는 사람이다.

조계종 총무원 포교부(부장 지홍)는 11월20일 부터 12월 11일까지 94년도 3회 포교사 재교육을 개최한다.

서울·부산·대구·광주·전주등 5개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열리게 될 이번 포교사 재교육은 포교활동의 활성화방안과 그에 따른 전망이 토론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불국토 건설에 앞장설 많은 포교사들의 참여가 기대된다.(02-737-9681)

동심의 세계로 가자 혜명 보육원 방문

바쁜 대학생활속에서도 불법을 전함은 물론 자원봉사활동에도 적극적인 신세대들이 늘고 있다.



◇고창 선운사 대웅전 앞에 있는 6층 석탑

조계사 대학생회(회장 김정균)는 19일 오후 1시 구로구 소재 혜명보육원을 방문, 아이들과 함께 법회를 갖고 아이들의 놀이친구가 되어준다.

대학생회가 처음으로 실시하는 보육원 자원봉사활동은 앞으로도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어서 불자가 아니더라도 봉사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학생의 참여를 권해본다.

(02-720-5334)

어린이는 내일의 꿈 지도교사 거듭나기

불교의 미래를 이어 나갈 어린이를 지도하는 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조계종 한마음선원 어린이지도교사회는 11월 26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1시까지 충북 음성 한마음선원 금왕지원에서 제 2차 전국어린이 불교학교 지도자 연수교육을 개최한다.

연수교육은 지도교사 실천현장체험 성공사례 발표와 화엄놀이 등이 참가자들의 열기를 높여 줄 것이며 스스로의 성찰을 통해 진솔한 지도자로 거듭 태어나는 계기를 마련해줄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법회에 관심이 있거나, 현재 소임을 보는 스님, 일반지도교사등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이번 연수교육에 어린이들 아끼고 불교를 사랑하는 신심있는 불자들의 많은 참여가 기대된다. 신청마감 11월 24일 (0446-877-0462, 0343-72-3100)

낙태참회 · 수자영가 천도 17일 보성 대원사

종교계의 경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낙태가 날로 늘고있다. 낙태는 곧 살생이며 어린 영가의 천도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처럼 부모와 인연은 맺어졌지만 이 세상의 햇빛을 보지 못하고 죽어간 불쌍한 어린영혼들을 일러 수자령이라 한다.

전남 보성군에 소재한 대원사(주지 현장)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수자지장보살을 봉안하고 수자영가의 천도를 기원해 주고있다. 오는 17일에는 수자영가의 천도 및 만일미타기도를 발원하고 1백일 미타기도을 입재한다.

기도의 회향은 95년 2월 24일 이다.(0694-52-1755)

룸비니 합창단 음성공양 16일 도신스님도 출연

부처님을 예경하는 공양물 가운데 향,차,꽃,쌀,과일을 일러 오공양이라 한다. 국화향기 그윽한 가을날,부처님전에 올릴 공양물은 무엇이 좋을까. 어쩌면 오공양물보다도 부처님을 노래로 찬탄하는 음성공양이 더욱 환희심을 높일것이다.

서산시·군사암연합회가 오는 16일 오후 7시 서산 문화회관에서 음성공양을 올린다. 박명신씨가 지휘하는 룸비니합창단 정기연주회다. 이번 연주회는 가릉빈,우담바라등의 합창단과 서광 유치원 어린이들의 사물놀이가 찬조출연,장내의 흥을 돋울 예정이다. 이어 노래하는 도신스님이 음성공양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 (0455-666-1510)

부처님 앞에서 백년가약 봉은사서 무료결혼식

세상의 눈은 두 남녀의 사랑만을 지켜보아 주지 않았다. 세상은 통과의례를 존재시키고 가끔은 이런 사람에 상처를 주기도 했다.

결혼은 했으나 생활이 어려워 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들의 이런 아픔을 씻어주고자 불교가 나섰다.



◇봉은사 무료결혼식

봉은사(주지 무상)는 오는 27일 오전 11시 봉은사내 전통혼례관에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들을 위해 무료결혼식을 거행한다.

불교 전통혼례로 치뤄질 무료결혼식은 청아한 사찰주변 풍경과 목어소리가 참가 부부들의 설움을 말끔히 씻어주고 새로운 다짐을 새겨줄 것으로 기대된다. '왕후의 밥, 결인의 찬'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부부들은 26일까지 봉은사로 연락하면 된다. (02-517-1331)

부산에서 자선음악회 맑고 향기롭게 살기

지존파,온보현사건에 이어 성수대교가 무너지는등 유난히 사회가 혼란스럽다. 사바세계도 맑고 향기로운 세상이 될 수는 없을까. 1년전 법정스님은 우리들 마음마다에 청정한 연꽃을 활짝 피워내고자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을 제안했다. 청주,춘천에 이어 부산에도 뜻을 같이하는 모임이 결성됐다.

부산·경남본부(본부장 박수관)가 28일 오후 3시 부산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소년소녀가장을 돕기위한 자선음악회를 개최한다. 어려운 이웃과 나눔의 기쁨을 이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음악회는 법정스님이 '나눔의 기쁨'에 대한 법을 설한다.

이어 노영심 김광석 김영동 김아향등 대중의 인기를 모으는 가수가 출연해 공연을 한다.

부산불교연합회 합창단의 찬불가도 울림것이다.

행사장에는 부산시가 추천한 소년소녀가장 25명이 특별 참석한다. 이날 모금된 성금은 이들 청소년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051-867-8606)

"화목한 가정 만들기" 일일찻집

「佛」자 가훈 제공···노래패 공연도 27일 자비의 전화 녹수청산서

날로 다원화되어가는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정신이 황폐해져가고 있는만큼 가정의 화목과 단결은 필수적 요소로 손꼽힌다.

이런 시대적 요청에 발맞춰 이웃의 고통을 상담해 온 자비의 전화(회장 정덕)는 '한가정 불자(佛字)한점 모시기 및 가훈 써주기를 위한 하루 찻집'을 열고 소홀해져가는 가정윤리의식에 새바람을 불어넣는다.

27일 녹수청산(현대불교신문사내)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가정에 부처님을 모시기 어렵다는 불자들의 그릇된 인식을 바로 잡고 올바른 가치관과 윤리관 확보를 위한 가정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게 된다.

전 수효사주지 고성훈스님의 유작 불자(佛字) 1백여점이 불자가정에 제공된다. 또한 스님과 재가서예가들이 직접 현장에서 멋진 가훈을 써주며 참가자들이 즐길 잇게 할 전망이다.

이 자리에서는 자비의 전화 회원들이 전화상담의 실제를 표현한 역할극을 마련 상담전화의 중요성과 상담의 예로점도 깨닫게 해 준다.

한편 그동안 스님들이 소장하고 있던 반야심경 한산습득 등 10여점이 제공되고 젊은 불자들의 노래패 공연은 한껏 흥취를 돋을 예정이어서 뜻있는 불자들의 참여가 기대된다. (02-737-7338, 8803)

나의 수행일기



한 석 훈

<변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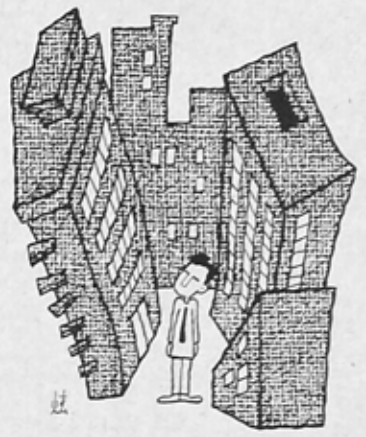
화계사 큰나무 아래서 행로 결정

부처님의 출가는 생노병사의 인생무상을 느낀데에서 비롯한 것처럼, 우리도 삶의 풍요와 기쁨속에 있을 때보다는 인생의 가난과 좌절과 마음의 공허앞에 마주 섰을때 새삼 종교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 같다.

내가 처음으로 나혼자 조용한 산사를 찾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때도 마치 전정하듯 사법고시준비에 몰두할 때였다.

이때에는 내가 꼭 이래야만 되나 하는 회의도 많았으나 불현듯 훌훌털고 나혼자 서울근교에 있는 화계사나 삼정사를 찾곤 하였다.

화계사의 불교청년회가 마련하는 법회에서 육조 혜능선사의 육조단경에 관한 법문을 들으며 호수처럼 맑고 깨끗해 지는 마음을 느끼기도 하였고, 삼정사 노스님의 용맹정진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위안과 용기를 얻기도 하였지만, 무엇보다도 화계사 넓은 경내의 큰나무아래에 앉거나 드넓은 숲속에서 서서 나혼자 상념에 잠겨 내가 걸어갈 길을 하나하나 되돌아 보고 앞으로 내가 걸어가는 길의 정당성을 정리하며 나자신의 자아를 들여다 보는 것을 더 즐겼던 것 같다.



그럴 때마다 산사를 내려오는 나의 발걸음은 올라갈 때와는 달리 한층 가벼웠고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에 충만하곤 하였다

그러나 불완전한 것이 인간인지라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마음이 산란해지곤 하였고, 그때마다 산사를 찾으며 전처럼 힘과 용기를 얻곤 하였다.

인간은 삶이 두려워 사회를 만들었고 죽음이 두려워 종교를 만들었다는 말이 있지만, 인간은 삶이 두려워 종교를 생각하는 것이고, 종교는 삶의 올바른 기준과 가치관을 인간이 이해하기 쉽게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이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신라시대의 귀족불교를 민중불교로 끌어내린 원효대사는 경문을 읽지도 못하는 보민일지라도 나무아미타불만 염하면 극락왕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 시대 그 상황에서는 백성들이 염불만 하면서도 불심을 가질 수 있었고 차츰 종교의 심오한 정신세계에 친숙해 지면서 마음의 평정을 찾곤 하였을 것이다. 참으로 큰 지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 시대는 다르다. 오늘날과 같이 생활이 다양해지고 사람들의 지적 능력이 향상되고 국제화, 전문화되어 가는 사회에서는, 단순한 염불만으로는 아무런 노력없이 행복이 열리기를 바라는 기복신앙에 빠지기 쉬울 뿐이다.

내가 변호사로서 가끔 법정에서 소년들에 대한 국선변호를 맡게 되는 경우, 그 소년들의 대부분 공통점은 결손가정에서 아무런 삶의 기준이나 가치관도 없이 자랐고 살고 있다는 점이다.

일없이 살면서 본드를 흡입하고 여자친구와 혼숙하고 동료들과 함께 전자오락실에 가거나 술마시며 노는 것만 생각하는 우리의 미래들을 보면서, 가슴아플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다.

그럴 때마다 그들에게 제시해 줄 쉽고 신선한 정신세계는 없을까 하는 아쉬움을 느끼곤 하였다.

유감스럽게도 오늘의 우리 사회는 약육강식과 힘의 논리가 앞서는 사회지, 참된 종교정신이 앞서는 사회는 아님을 느낀다. 오히려 종교라는 이름으로 권현된 마음을 부추기기도 한다.

우리가 찾는 삶의 기준이나 가치관은 결코 새로운 것일 수 없다. 그저 낡은 진리에 새 빛을 비추되 행동으로 생생하게 비춰주는 것일 뿐이다.

나는 깊은 산중에 세워진 고찰을 보면서, 땡추가 들끓던 그 시절 용감하게 산간오지에 도량을 세워 지나가는 길손에게는 안식처를 제공하고, 새소리, 바람소리밖에 들리지 않는 정적속에서 인간구원을 위해 용맹정진했던 고승들의 또렷한 눈빛들을 생각한다.

생활속의 불교④

"아무리 넓다 해도 우주는 동네집"

마음엔 모양도 없고, 색채도 없고, 몸뚱이도 없어서 마음으로 못 미치는 곳이 없고, 못 가는 데가 없다. 아무리 깊은 곳, 높은 곳, 먼 곳이라도 가지 못할 곳이 없다. 마음에는 지붕도, 벽도 없다. 고로 천지를 드나들어도 걸리는 데라고는 없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라도, 또 지상이든 우주든 도달하지 못하는 곳이 없다. 눈 깜짝할 새에 혹성들을 징검다리처럼 디디고 다닐 수도 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마음이 그토록 자유자재한 줄도 모르고 항상 좁은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살고 있다. 스스로 제 마음의 무한 능력을 계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이기심, 질투심, 자존심 따위의 좁디좁은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라도 닥칠양이면 '어떻게 하나' 전전긍긍한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 우주 전체가 마음에 의해 이뤄졌고 마음의 근본자리에 통하면 삼천대천세계가 이웃 동네집이나 같다고 가르치셨다.

천국과 지옥도 마음 먹기 달렸다. 고통과 기쁨도 마음 먹기 나름이다.

행복이란 잘나고 못난 것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라 잘났다 못났다는 생각에서 마음에 울화가 치밀면 그대로 화탕지옥이 되고 평화가 깃들면 그 순간 천국에 있는 게 된다. 행복과 불행의 열쇠는 마음에 있다.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내 일처럼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 PP, PE밸프렌, PE발포 전문 업체
· 각종 규격의 원지 생산 및 재단
—나무, 합판 및 종이 보드 대체용—

부산시 북구 학장동 289-3
전화:(051)313-2859, 315-2859
팩스:(051)313-2859

교차로

일본서 계율사상 연구



채인환스님(동국대 선학과 교수)은 내년 2월 25일까지 일본 경도불교대학에서 「백제불교의 계율사상이 일본초기 불교의 계율형성에 끼친 영향」이란 연구과제로 해외연수 중이다.

금산사 주지 임명



도영스님이 금산사 주지로 임명 받았다. 스님은 61년 월주스님을 은사로 출가 80년 금산사 주지, 87년 총무원 교무부장 등을 역임했다.

파주 보광사 주지



효림스님(종회의원)이 지난달 25일자로 파주 보광사 주지로 임명 받았다.

태고종 이사장에 선출



이규범스님(태고종 상임이사)은 지난 2일 열린 재단법인 한국불교태고원 입시이사회 및 평의원 연석회의에서 새 이사장에 선출됐다. 새 이사장에 선출된 이규범스님은 그동안 태고종 종무부장, 사무총장, 행정원장, 종회부의 장등 중요요직에서 실질적 책임을 맡아왔다.

세계선무도 승급심사

적운스님(세계선무도 진흥회 회주)은 지난 8일 오후 7시 선무도 서울본원에서 승급심사를 가졌다.

혜광사 주지에 취임

해주스님(동국대교수)은 오는 19일 종로구 평창동 동국대학교 비구니수행관이 있는 혜광사 주지에 취임한다.

3녀 회전앙 화촉

서석재씨(민자당 당무위원)의 셋째 딸 서희전(28)양이 김태석(30)군을 신랑으로 맞아 오는 26일 오후 3시 공항터미널 컨벤션 홀에서 화촉을 밝힌다.

'함안의 날' 행사 참여



정동호의원(무소속, 의령·함안)은 오는 20일 서초동 경남농산물 직판장에서 열리는 함안의 날 행사에 참석, 지역에서 온 영농후계자·군수 등을 격려할 예정이다.

「문화유산 보는 눈」강연



유홍준교수(영남대)는 지난 5일 대동은행 여직원회 주최로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강연회에 참석, '문화유산을 보는 눈'이란 주제로 슬라이드 강연회를 가졌다.

하인즈 경연대회 장려상



정판수씨(불과회 회장)는 지난 5일 개최된 제1회 하인즈 팡, 과자 경연대회에서 「설탕 반 야심경」등 작품으로 공예부문 장려상을 받았다.

'자랑스런 청주인상' 시상

김진영의원(청주갑, 무소속)은 올해 처음으로 '자랑스런 청주인'상을 마련, 다라니경을 옛방식대로 복각하는등 불교문화 재현에 공이 큰 오국진씨에게 14일 제1회 자랑스런 청주인상을 시상했다.

러시아 상원의장 만나

정재철의원(민자당, 속초·고성)은 지난 9일 한·러의원친선협회 회장 자격으로 러시아 상원의장인 슈메이크의원을 만나 한·러간 우호협력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교각스님 영화제작 협의



한갑진씨(한진영화사 대표)는 중국 합작영화공사와 구하산 교각스님의 영화화와 중국불교 다큐멘타리 제작 협의를 위해 15일 출국했다.

문화예술인법회 법문



정병조교수(동국대)는 지난 11일 서울 충정사에서 봉행된 한국문화예술인법회 11월 정기법회에 참석, '부모에게 성불을 권장하는 것이 효'라는 주제로 법문을 했다.



◇연꽃마을 간병인회는 환자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아 병실 청소와 불경독송을 해주는 등 자비행을 실천하고 있다.

보살행이 숨쉬는 현장 — 연꽃마을간병인회

입원 환자들의 말벗…병실일도 거들어

"206호에 입원해 있는 환자 퇴원했나요?"

"아니요, 부처님 가피로 빨리 나아야 하는데…"

거어즈를 접고 수술가운을 정리하는 손길들이 날렵하다. 경찰병원에 입원해 있는 불자환자들의 안부를 묻는 소리 사이사이 일요법회 나가서 있었던 법담 나누는 소리도 들린다.

여기는 국립경찰병원 공급실. 연꽃마을 소속 간병인회(회장·엄무성)가 일주일에 두번씩 봉사활동을 하는 곳이다.

매주 목·금요일 오후 2시면 어김없이 밝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자원봉사자들은 먼저 법당(주지 성범)을 찾아 부처님께 인사부터 드린다. 그런 다음 입원해 있는 불자환자들을 하나하나 찾아간다. 병실에만 매여있던 환자들이 반가워 어쩔줄을 모른다.

몸이 불편해 절에 가고 싶어도 마음만 있는 환자들을 위해 절집안 소식을 들려주기도 하고 환자들에게 경전을 읽어주기도 한다. 도란도란 앉아 말벗이 되어 주기도 하고 어지러운 병실을 깨끗이 청소해 주는 일도 주요 업무다. 이렇게 하다 보면 간병인 자원봉사자들에겐 하루가 너무 짧게만 느껴진다고 한다.

자원봉사자들은 조금이나마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과 함께 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지난해 10월부터 경찰병원 자원봉사에 나섰다.

많은 병원에서 간병인 및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 대부분의 간병인이 타종교인으로 구성돼 있는 과거와 달리 최근 연꽃마을 간병인회, 불교간병인협 등 불자간병인들이 늘어나 불자환자들에게는 반가운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불자간병인을 필요로 하는 환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불자간병인의 역할이 점점 중요시 되고 있는 것이다.

간병인회가 창립되면서부터 한번도 빠짐없이 정기적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는 김 보문행보살은 "아직은 자원봉사가 초기단계이지만 앞으로는 부처님의 자비행을 바탕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환자나 가족을 위해서 따뜻한 불심으로 간호하는 전문불자간병인이 되겠다"며 매주 하는 봉사가 조금도 힘들지 않다는 듯 밝게 웃는다.

이와같은 연꽃마을 자원봉사자의 헌신적인 노력이 돋보여 지난달 21일에는 경찰의 날을 맞아 국립경찰병원 자원봉사단체중 가장 모범이 되는 단체로 선발, 감사패를 받는 기쁨도 누렸다.

〈김중근 기자〉

게시판

▲소찍새 마을서 인간방생법회=대구 법왕사(주지·실상)는 오는 29일 강원도 원주 치악산 소찍새마을에서 제3회 인간방생 법회를 마련한다. 오전 7시30분 법왕사 주차장에서 출발하고 회비는 2만원.
(053-766-9088)

▲후원회원 모집=환경위기의 해결을 위한 교육 및 실천운동을 펼치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불교환경교육원(이사장 법륜)에서는 후원회원을 모집한다.

후원회원이 되려면 매월 1천원(국민학생), 5천원(일반인)이상을 납부하면 된다. (02-765-6324)

▲출가생활 주말수련회=전남 대원사(주지 현장)는 1박2일 출가생활 주말수련회를 개최한다. 수련회는 매주 토요일 오후 5시~일요일 오후 2시까지이며 염불, 명상법, 선체조, 사경 등으로 진행된다.
(0694-52-1755)

▲검도·침술·미용교실=삼전복지관(관장 보각)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11시에 주부, 여성 20명을 대상으로 '검도교실 무료강습회'를 개설한다.

'수족침술' 초급반은 15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30분~12시까지 3개월 과정으로 수강료는 4만원, '미용시반'은 수시로 모집하며 매주 월 수 금요일 오전 10시~12시, 12시30분~2시30분 두차례 실시한다. 3개월 과정으로 수강료는 7만원이다. (02-421-6077.8)

▲마리도 「기원정사」낙성 법회=제주 마라도 기원정사(주지 정관)는 오는 19일 오후 1시 마라도 기원정사에서 낙성법회를 갖는다.

기원정사는 91년 가을 3년간 계획으로 린란드산 홍송나무를 수입, 사원양식으로 대웅전 60평을 건립하고 요사채 1백60평, 종각(범종 1천관) 20평, 욕실 15평을 완공했다.

당일 항공 선박등 교통 혼잡을 예상, 6일부터 매일 오후 1시에 낙성법회를 봉행한다.
(064-47-0757)

▲남도답사일번지 순례=제9회 백화도량 '남도답사일번지' 성지순례가 오는 19·20일 실시된다.

해남의 대흥사, 강진의 백련사·무위사·다산초당 등을 둘러보게 될 이번 성지순례는 김성배(문화재연구소)씨가 안내를 맡는다.

19일 오후 2시30분 중앙박물관내 주차장에서 출발 예정이며, 선착순 40명 마감이다. 회비 55,000원
(02-929-0929)

내일을 여는 불자 — 문경림씨 〈실음복지관복지사〉



불우청소년·노인 가족처럼 돌봐

남편과 함께 어린이복지관 건립이 꿈

"지금까지 제가 걸어온 길에 대한 후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길이 평생 가야할 내 삶의 몫이라 믿습니다."

92년 길음종합사회복지관 개관과 함께 재가복지봉사센타에서 일해온 문씨는 짧은 기간이지만 너무도 많은 일을 해내고 있는 여학여성으로 복지관에서 평가받고 있다. 영세가정과 무의탁노인, 불우청소년이 유난히도 많은 이 지역에서 가가호호 방문 무료세탁, 밑반찬 제공, 간병의료서비스, 가사 돌보기, 생활용품후원, 상담 등 헤아릴 수도 없는 많은 봉사활동이 문씨가 해 온 일들이다.

"자원봉사자 주부들이 없었더라면 업무도 못낼 일이지요. 저보다는 그분들의 노고가 더욱 큽니다"라고 겸손해 하면서도 "우리는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요. 어렵고 불쌍하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 과연 이 사회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라는 자조섞인 반문속에서 문씨의 이웃에 대한 사랑이 맹목적임을 알게 한다.

전문적인 여성직업을 택하기 위해 성심여대 사회사업학과에 진학한 문경림씨는 대학 4년 동안 삼육재활원, 정신병원 등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해오다 더 많은 사람을 베풀기 위해 본격적인 사회복지사의 길로 들어섰다.

그러나 그동안 수많은 불우 이웃을 돌보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해온 일 보다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다는 문씨는 교계의 사회복지 활동이 서서히 늘고 있기는 하나 그 질과 양적인 측면에서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 특히 무의탁노인에 대한 복지시설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한다.

"아동복지와 노인복지, 그리고 불교에 관해 체계적으로 공부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사, 교계, 관계당국이 삼위일체가 되었을 때 이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힐 수 있지 않겠느냐는 문경림씨는 가장 중요한 것은 불우이웃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이라고 강조한다.

복지관에서 함께 일하는 신심 깊은 불자인 남편과 함께 장래에 불우한 어린이를 위한 장소를 마련, 사회복지의 일익을 담당하고 싶다는 문씨는 '이 일이야 말로 부처님의 법을 그대로 행하는 자비의 실천'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힘없는 손으로 슬며시 쥐어 주는 사랑 하나에 담겨 있는 할머니의 마음, 어려울 때 도와준 이웃이 자립해 찾아왔을 때의 웃음속에서 보람을 느낀다는 문경림씨는 또다시 작은 가방속에 사랑을 가득 담고 비탈길을 내려간다.

〈한명우 기자〉

밤 방 — 수협 불자회

회원 2백명, 이웃돕기 애경사 함께해

「수협불자회(회장 안정황)」는 수산업협동조합(수협) 중앙회 내에서는 가장 나중 생긴 종교모임이지만 가장 내실있고 화합이 잘되는 모임으로 정평이 나 있다.

지난 92년 바쁜 직장생활속에서도 수행을 통해 나의 본성을 내가 알자는 취지아래 수협내 2백여 불자들이 창립법회를 가지면서 수협불자회의 본격 활동이 시작됐다. 매월 셋째 주 화요일 오후 7시 정기법회를 중심으로 야외법회, 자연보호법회, 교수초청법회 등을 개최, 회원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운문사 새벽예불」「산사의 향기」등 불교 비디오물을 회사내서 상영, 회원 확장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수협불자회원들은 마치 가족과 같이 서로 돕고 지낸다. 성지순례 등 야외법회에는 물론 가족들도 동참하지만 회원 중 누군가 상을 당하면 같이 밤을 새우고 염불을 해준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위문을 가 빨리 낫기를 기원하는 뜻으로 불공을 드려준다.

또한 승진했을 때는 진급법회를 열어 같이 기쁨을 나누고 승진에서 누락됐을 때는 위로법회(?)를 열어 내 가족처럼 가슴 아파한다.

회원들은 십시일반으로 회비를 모아 예천 연꽃마을에 후원금을 내는 등 어려운 이웃에 대한 이타행에도 솔선하고 있다. 최근 불교 텔리비전 주식 공모에도 동참, 영상포교 시대가 빨리 열리기를 고대하며 다투어 불자주식 청약에 앞장섰다.

한국·산업·조흥·기업 등 각 은행 불자회는 매년 봄 가을 전국 금융인 불교회로서 합동법회를 열고 있다. 수협불자회는 내년 봄 수협에서 전국금융인불교회 개최를 예정하고 있다.



◇ 대원정사에서 법회를 보고 있는 수협불자회원들

창립때부터 회장으로 있는 안정황씨(수협 덕정사업소장)는 대원회 법사회, 동국대 교육대학원 이사를 맡고 있을 정도로 불교공부를 열심히 해오는 것으로 이름나 있다. 이같은 간부들의 공부열기가 확산돼 불교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회원이 10여명 있을 정도로 불교공부에 대한 열의가 대단하다고 한다.

〈이경숙 기자〉

"묻어버리자니 장소가 없고, 태워버리자니 냄새가 나고…"

국내 최초로 개발된 '이동식 소형 소각로'
제트 1, 제트 2 가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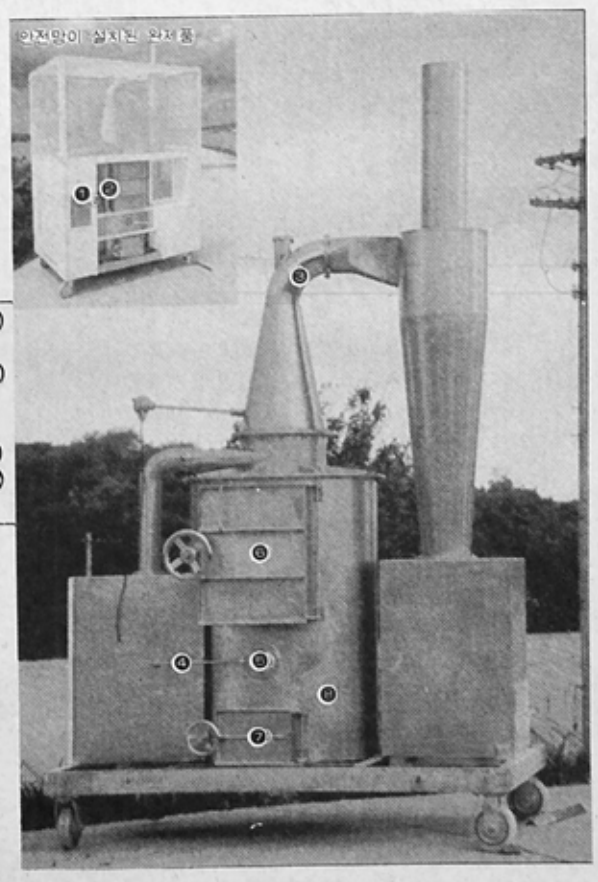
폐 비닐·플라스틱, 생활 쓰레기, 각종 지류, 병원 쓰레기 등 가연성 폐기물이면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매연이 없이' 완벽하게 소각·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 트1, 제트2 이동식 소각로는 연소 드럼에 강력한 송풍 장치인 모터 블로워를 장착해 연소통 내에 제트 기류가 형성되도록 함으로써 보조연료의 사용 없이 성냥불만으로 완전연소를 실현시킨 획기적인 제품입니다.

일 회 소각용량은 30kg이며 완전연소에 40분 정도 소요되어 소형 한 대만으로 하루 3톤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소 형, 이동식이므로 넓은 설치 공간이 필요 없고 붙박이와는 달리 폐기물이 있는 곳을 따라 옮겨 다니며 소각할 수 있습니다.

발명특허출원 94-8644, 의장특허출원 94-8470, 8471, 8472



환경관리공단 및 생산기술 연구소
성능 검사 합격!!

소형 소각로 제조 전문
영우실업
본사·공장: 경기도 고양시 사리현동 267-1
전화: (0344) 64-7236, 62-3488
팩스: (0344) 62-7012



삽화 · 이기선

심신을 맑고 향기롭게 하는 식사

청정한 환경 · 새음식 문화 창출의 지름길

목정배 교수가 쓰는

오늘의 불교 ❹

바루공양

현대인은 거개 매식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경우는 아침식사마저 매식하는 사람이 있다. 새벽부터 근무하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공장 학원 학교에 일찍 나가는 사람은 집에서 아침식사를 하고 나오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사람의 식문화는 하루 3식이 거의 정착되어 있기에 간단한 요기나 입가심 아니면 뜨거운 엽차나 커피라도 마셔야만 하루 일을 할수 있다. 이때 사용하는 용기가 종이 컵이 아니면 은박지 지함이나 비닐봉지가 전부이다. 음식을 먹고난 다음 그 뒤처리가 여간 간편하게 진행되지만 쓰레기의 적체현상은 무어라고 말할수 없다.

한국 전 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가공할 만하다. 전국 곳곳에는 쓰레기 문제로 자연이 황폐하고 고갈되고 국토가 썩어가고 병들고 있는 것이다. 간단하게 아침식사를 할 때 나오는 폐품처리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수거되고 재활되지 않으면 안된다.

색식과 자연훼손

여기에 대하여 불교적 대처방법은 없는가. 그것은 용기의 활용성이 과학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바루공양이 제일 상책이다. 스님이 산중 대가람에서 공양할 때는 언제나 바루공양을 한다. 자신의 바루에 적당한 음식을 배식하여 그 음식을 남김없이 응양하는 것이다. 김치 한 오래기도 우거지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말끔히 응식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맑고 깨끗한 마루 그릇으로 씻어내고 그 씻은 물 마져 마셔버리는 철저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찌거기나 국물이 있을 수 없다.

참으로 맑고 향기로운 식사법이 아닐 수 없다.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서 성정각보리 하였을 때 그 곳을 지나가는 발리카라는 상인이 미시가루와 꿀을 바쳐 올렸다. 그러나 아무런 그릇이 없어 가만히 계실 때 사천왕 각각이 바루 하나씩을 올렸다. 그 때 부처님은 네 바루를 한바루로 겹쳐 받아들고 미시가루와 꿀을 저어서 자셨다. 이것이 바루의 시원이다. 바루는 부처님의 응공기이다. 이 응공기는 음식을 먹는 데도 긴요하게 쓰이기도 하지만 법기(法器)의 상징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법은 담겨질 그릇이 필요없는 세계다. 법은 밝음과 바름이다.

밝다고 할 때는 광명스러운 것이다. 바르다고 할 때는 정대한 것이다.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사특한 일들이 일어나는 현장이라 치드라도 밝은 것이 충만하여야 한다. 밝은 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으면 일체 중생이 허둥대지 않고 앞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 또한 바른 마음이 있다면 사람들은 믿고 살만한 일이다. 사특한 거짓이 우리 주변에 날뛰고 있다면 그곳에 사람들은 빠져들어 헤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법은 밝음과 바름을 앞세워 나가는 법도요 이 우주 모두를 부드럽게 담아주는 법기이다.

부처님의 성도 직후 이 바루로서 공양을 하셨다는 것은 의미가 심장하다. 이것은 법기장엄 (法器莊嚴)의 세계가 구현되었음을 상징한 것이다. 육체적인 건강을 보양하기 위하여 그릇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신불이 사바세계의 광명체가 되고 정대성이 되게 하는 장엄법기인 것이다.

지금 우리들 주변에서 만연되는 일들 즉 자연이 파괴되고 훼손되는 일상사는 바로 육체에만 음식을 공급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소치이다. 원래 인간은 法食을 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러나 오랜세월 色食을 하는 습관이 누적되어 먹이사슬에 대한 장엄의식을 내던지고 말았다.

집에서도 바루법을

이것이 커다란 병폐가 되어 지금은 자연이나 산하대지 초목 어조 등물을 모두를 질식시키는 재앙의 원죄자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제 우리는 식단법이나 음다법을 바꿀 시대가 왔다. 응공법이 전환되고 순수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집안에서 일상에서 하는 식사도 법식으로 대하는 바루법을 되살려 내어야 한다. 사찰에서 배운 저 좋은 청정 공양법회를 일주문 밖으로 나오면 까맣게 잊어버리게 될까. 모든 불자들은 이것을 각성하여야 한다. 잠깐한 때 좋은 것이 었다면 오래하면 더욱 좋은 것이다. 지금이 좋으면 나중도 좋아야 한다. 처음은 할 수 있지만 항상은 할 수 없다. 이것은 나약한 것이다. 정법수지의 서원이 쇠미한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상주불변하여야 하고 정법구주(正法久住)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법기장엄의 부처님 법기의식이 사회화 · 문화화 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청정한 환경으로, 아니 새로운 음식문화를 창출하는 식단법이 될 것이다.

"스님역 맡으면 나도 스님"

산문밖의 維摩 배우 전 무 송

아직도 불교공부 보다는 사람공부에 더 심취해 있다. 설익은 불교인 보다 '사람'을 배워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한60쯤 되어서야 욕심도 집착도 놓을수 있을것 같습니다."



명륜동 '극발전연구회' 사무실. 연극에 쏟는 전무송씨의 열정이 배어있는 곳이다. 인사를 나누고 그는 담배를 권했다. 그리고 최근 아는 스님과 동행해 늦가을의 백양사와 선운사를 무작정 다녀왔다는 얘기로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아들을 학교까지 데려다주고 사무실 문을 열었다는 얘기를 덧붙였다.

올해 서울예전 연극과에 입학한 그의 아들도 연극을 하고 있다. 어려서부터 드라마센터를 놀이터 삼아 자라온 딸도 연극을 한다. 자식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연극을 한다는 것에 대해 그는 무심하다. "글쎄요, 자기들이 좋아서 하겠다는데..."

불교에서는 우리들 삶을 종종 꿈으로 비유한다. 망상과 헛된 집착, 탐욕과 어리석음과 성냄을 끊으라는 경책의 뜻으로 꿈을 끌어들이기도 하지만, 삶의 무상함 곧 제법무아 제행무상의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일 것이다.

"이 세상 모든 것은/꿈 같고, 허깨비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갯불과 같으니/마땅히 이와 같이 보아야 한다."금강경의 가르침이다.

그렇다면 '꿈'을 '연극'으로 바꿔보면 어떨까. "이 세상 모든 것은/연극과 같으니/마땅히 이와 같이..."

30여년을 줄곧 무대에 서 온 전무송.배우로서의 그의 세상살이는 어떤 모습일까.

"연극은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사람을 만나서 함께 살고, 살면서 부딪히는 갈등과 반대과 좌절을 표현해내는 것이죠. 연극에서는 무수한 삶을 만나는데 배우가 그들 삶의 승결 하나까지 어떻게 드러내어 관객에게 보여주느냐가 문제죠."

불교에서는 느끼지 못한다면 행할 수 없다는 가르침이 있다. 연극도 마찬가지이다. 전무송씨는 영화 〈원효대사〉를 회상하며 말을 잇는다.

"원효스님이 당나라 유학길에 해골에 고인 물을 마시고 깨닫는 장면인데, 이 장면을 첫날 찍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감독에게 말했죠. '가장 핵심되는 부분인데 배우가 원효스님의 구도열정과 그 감정을 표현해낼 준비도 없이 어떻게 촬영할 수 있겠느냐'고 그랬죠. 그래서 몇 일 미뤄 촬영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의 작품을 '아픔의 산물'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나 이 아픔을 비껴가거나 물리치지 않는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 또는 이겨내야 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아픔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지요. 사람이기 때문에 아파하는 것이고, 그 아픔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60여편의 연극 영화 드라마에 출연하며 가장 어려웠던 배역은 영화 〈만다라〉의 지산스님역. 가장 힘들었고, 그렇기에 너무나 아꼈기 때문일까. 예술을 통해 외로이 구도의 길을 뜻는 수행자의 모습, 아니 구도의 열정과 좌절에 괴로와했던 지산스님의 영혼으로 다가온다.

촬영 때문에 자리를 뜰 시간이다. 그가 미안하다는 말을 건넸다. sbs 12부작 미니시리즈 '우리들의 넝쿨'에서 그는 사람들의 굳어버린 가슴을 향해 무언가를 부르짖는 주정뱅이 시인 역을 맡았다.

어둠이 깔린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건너편 야외촬영장. 그를 다시 만났다.

그는 굳이 불교와 자기를 연결시키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했다. "사람이 씻지 않으면 냄새가 나는 것은 당연한 일. 사람냄새가 나야지 향내나면 그건 가짜입니다. 바로 그러한 것을 표현하는 것이 연극이며, 이러한 이치를 어기지 않고 살아가라는 가르침이 곧 불교 아니겠느냐"는 이유에서다.

그가 참여하는 신행모임인 영산회에 가서도 백팔배를 드리지만 불경은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고 털어놓는다. 그러면서 절을 올릴 때는 "티끌 같은 이 몸을 통해 불교의 가르침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도한다.

불교를 꼭 불교라는 언설로 표현하지 않고 그 가르침을 느낌으로 전달할 수 있는 연기, 그러한 배우이기를 추구한다. 따라서 아직은 불교공부보다는 사람공부에 더 심취해 있다. 설익은 불교인이 되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얼치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람'을 더 열심히 배워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한 60쯤이나 되어서야 욕심도 집착도 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무송은 분명 얼치기는 아니다. 한 작품 끝내고나면 그 작품에 대한 모든 것을 잊는다. 다만 배역을 맡았던 인생의 침전물만 그의 것이 된다.

그러나 아직도 잊지 못하는 대사가 있다. 새로운 배역을 맡아 어떻게 이 사람의 삶을 관객에게 전달할까 끙끙거릴 때면 가슴깊이 박혀있었던 응이의 아픔처럼 삐져 나오는 말.

"백척간두에 서 봐. 그리고 거기서 한발 더 내디뎌. 부디 견성하거든 나도 제도해주게."

영화 〈만다라〉에서 괴각승 지산이 만행중에 법운에게 불쑥 건낸 말로, 〈무문관〉에 나오는 화두이다. 일찍이 중국의 석상선사가 장사선사에게 이렇게 말했다.

"백 척 높이 장대 끝에서 어떻게 하면 더 오를 수 있겠는가." 장사선사가 대답했다.

"백 척의 장대 끝에 앉아 있는 사람이 설사 경지에 들었다고 할지라도 아직 참된 것은 아니다. 백척의 장대끝에서 반드시 한걸음 더 나아가 시방세계에 온몸을 나타내야 한다."

그렇다면 전무송은 어디에 서 있는가. 그가 서 있는 곳은 언제나 연극이며 영화, 이미 시방세계가 아닐까.

〈정성온 기자〉

"연기 30년에 사람공부는 좀 했지요"



1,600년 한민족 불교문화의 짙은 향기가
빼어난 영상과 평이한 해설,
김영동 명상음악의 깊이 있는 선율로
어울어진 한편의 감동시!!

정가 : 20,000원

山寺의 향기

불자들의 오랜 궁금증을 풀어줄 바로 그 비디오!!
사찰의 모든 것이 비디오로 나왔습니다.

사찰이란 어떤 곳인가.
일주문·천왕문·금강문 등에는 무슨 뜻이 있고,
대웅전·적광전·극락전은 어떤 법당인가.
또 사찰에 모셔져 있는 수많은 부처님과 보살님들은
어떤 분들이며, 어떻게 모셔야 하나.
오랜 동안 불교를 신행해온 신자들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웠던 사찰의 모든 것을
한 편의 비디오로 쉽게 배운다.

주요 수록내용
일주문, 천왕문, 금강문 등 산문의 의미
법고, 목어, 운판, 범종 등 주요 법기
법당 내에서 지켜야 할 기본 예절
사원 내 주요 전각과 불·보살상
강원과 선원에서 생활하는 스님들의 수행과정 등

대정프로덕션 DAE JEONG FILM PRODUCTION
서울 · 중구 을지로 3가 302-2 승관BD 601호
구입문의 : ☎ (02) 275-9459 · 265-9458

신학대학 석사논문에 "불교연구 다양"

기독교적 관점서 접목 … 아전인수식 해석 우려도

김 재 경 기자

불교와 신학을 관련시켜 연구한 논문이 각 신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다.

신학대 석사학위 논문에서 10여년 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불교관련 논문은 주로 비교종교학적 측면에서 시작됐으며 불교에 대한 기독교적 해석의 양상을 띠고 있다.

기독교 내부에서 종교다원주의(宗敎多元主義)가 확산돼, 타종교가 더 이상 사탄의 교일 수 없으며 사회공동체 속에서 엄연히 공존하는 대등한 종교라는 인식이 점차 일반화 되면서 신학생들의 불교 연구는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이런 인식의 확대는 종교간의 상호이해를 통한 대립의 해소란 측면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불교에 대한 신학적 연구'란 측면에서 우려되는 면도 적지 않다는 것이 학계의 견이다.

목원대대학원 신학과의 송용택씨는 「기독교와 불교의 고난 이해에 대한 비교고찰」에서 "기독교와 불교의 고난 자체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문제를 규명해 인간 실존의 근본문제를 좀 더 신학적으로 분석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연구 배경을 설명, 그 연구 방법론이 근본적으로 신학에 기초함을 밝히고 있다.

감리교 신학대학원의 최창일씨는 「백제 미륵신앙의 천년왕국적 성격」에서 "한(恨)과 메시야니즘이란 한국 민중의 종교적 영성에 구원의 빛을 밝혀야 하는 한국 기독교는 서구중심적인 정통신학의 한계를 과감히 극복하고 비기독교적인 토착문화의 구원론에서 출발하는 민중종교신학을 형성해 나가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미륵불을 기독교적 메시아인 예수와 비교하면서 백제 미륵신앙을 한국적 민중종교 신학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 같은 학교의 남호씨는 「한국사에 있어서의 미륵불교와 민중신학적 의미」란 비슷한 주제의 논문에서 "민중 신학의 한 형태로 두드러지게 부각되는 미륵신앙에 대한 고찰과 함께 미륵신앙과 민중신학의 접맥을 시도함으로써, 한국의 현실에서 역사의 변혁적 주체인 민중이 어떠한 정신적 맥락에서 주체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밝히고 있다.

최창일씨와 남호씨의 논문은 원시불교와 대승불교, 정토교 등 다양한 교리체계를 지닌 불교를 기독교의 메시아사상과 유사한 미륵신앙에만 촛점을 맞춰 연구함으로써 아전인수(我田引水)식 해석의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계명대대학원 신학과의 신상돈씨는 「불교의 삼신설(三身說)과 기독교 삼위일체(三位一體)의 비교연구」에서 "불교의 법신(法身)과 기독교의 하나님은 동양적 용어로 말하면 상즉적(相卽的) 관계이고, 과정신학의 용어로 말하면 통전적(統全的) 관계"라고 규정하고, "오늘날 불교인과 기독교인들이 양자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도 없이 서로의 선입견, 편견과 아집으로 법신과 인격신을 물과 기름의 관계라고 규정지어 버리는 태도는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불교계도 비교종교학 범위확대 해야

이처럼 신학생들의 불교연구는 신학적 방법론을 모태로 한 취사선택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전체적인 불교 이해에서 벗어날 우려가 있는 반면, 불교와 기독교의 상호이해와 비교종교학적 발전을 위한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불교학계의 이에 상응한 연구 부족은 종교학에서 차지하는 불교학의 비중을 고려할 때 자성을 촉구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불교관련 신학석사 논문은 △「선(禪)에 관한 기독교적 이해」 오지수(89,침례교신학대학) △「관상(觀想)을 향한 말씀 묵상에 있어 선수행의 방법적 응용에 대한 연구」 정형준(91,가톨릭대) △「한국 제종교의 내세관과 기독교 종말론과의 비교」 서진호(84,장로회신학대학) △「한국 전통종교에 나타난 벽사신앙에 관한 연구」 김용덕(91,대구가톨릭대) △「선불교의 명상과 기독교 신비주의 비교 연구:Thomas Merton과 보조국사 지눌의 사상을 중심으로」 이용우(91,감리교신학대학) 외에도 다수가 쓰여져 학위를 취득했다.

감리교신학대학에서 불교관련 논문을 지도했던 변선환목사는 "비교종교학 발전과 종교간 이해를 위해서도 이같은 연구가 계속돼야 한다"며, "불교학계도 서양철학과 신학연구를 통해 학문적 연구범위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포스트모더니즘 · 해체주의 신학 선 철학과 상통성 가져

부산신학교 김승철교수 발표

스즈끼 다이세쯔(鈴木大拙 · 1870-1966)의 선(禪)철학에서 핵심을 차지하는 '즉비(卽非)의 논리'를 매개로 최근 서구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해체주의를 동양적으로 수용하는 문제를 다룬 논문이 발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논문은 지난 9일 서강대에서 열린 종교신학연구소(소장 · 서공석) 월례발표회서 부산신학교 김승철교수가 발표한 것.

김교수는 "서구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다원주의의 문제점과 한계를 지양하고 동양적 · 불교적인 것으로 파악되는 '다원적 다원주의'를 뿌리내리기 위해" 이 논문을 쓰게 됐다고 말했다.

이러한 논의의 배경에는 다원주의를 표방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이나 해체주의의 의도를 더욱 활발히 진행시킴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종교다원주의나 종교간의 대화를 위한 실재이해를 천착하려는 의도가 포함돼 있다는 것이 김교수의 설명이다.

김교수는 스즈끼가 "기독교라는 타종교(非)에 즉(卽)해서 인식되는 불교의 자기정체성을 추구하고자 했다"고 전제하고, "다양한 가치체계와 문화현상, 종교적 신념이 혼재돼 있는 상황에서 '다른 거울에 비추어 자기를 보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존재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종교신학연구소는 신학 · 종교학 · 역사학 · 철학등의 다양한 주제로 각 종교간의 학술적 대화를 계속해 왔다. 〈경〉

"엔닌스님은 한반도 도래인"

백제인 후예 … 「입당구법기」 · 장보고상 남겨



◇ 일본연력사에 보관돼있는 엔닌 스님의 영정

재일교포 남석환교수 주장

지난달 31일 1천5백여년 만에 일본 국보수리 권위자인 다카하시 준부씨(高橋俊夫 · 75)에 의해 교토 삼정사(三井寺)의 장보고(張保皐 · ?-846)상이 공개된 데 이어, 이 상(像)을 제작한 엔닌(圓仁 · 794-864)스님이 한반도 도래인이라는 학설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3일 교원대 박물관 주최로 열린 '문화사국제대강연회'서 재일동포 남석환교수(일본 남숙(南塾))의 「최후의 견당사(遣唐使)와 엔닌」이란 주제발표에서 밝혀졌다.

다카하시 준부씨는 최근 내한강연에서 "서해에서 풍랑을 만난 엔닌법사가 장보고가 세운 산동성 법화원(法華院)에서 1년2개월 동안이나 보살핌을 받다가 무사히 귀국한 뒤 그 은덕을 기리기 위해 삼정사에 세워 모셔온 목상이 바로 장보고상"이라고 설명했었다.

남교수는 "엔닌은 스스로의 종교적 목적을 위하여 9년 이상 중국 각지를 여행하면서 매우 상세하고 정확한 일기인 〈입당구법행기(入唐求法行記)〉를 남길 수 있었다"고 말하고, "엔닌의 〈입당구법기〉는 일본인이 남긴 제1급의 위대한 일기일 뿐 아니라, 중국의 생활양식에 관한 최초의 면밀한 기록"이라고 입증했다.

엔닌의 속성은 임생씨(壬生氏)로 상모야씨족(上毛野氏族)에 속하는데, 상모야씨족은 백제도래씨족인 전변사(田邊史)의 후예였다. 엔닌이 당에서 신라인의 도움을 받게 됐던 것도 한국 도래계씨족이란 사실이 작용했을 것이란게 남교수의 주장이다.

엔닌은 중국을 방문한 일본 두번째의 천태종 지도자였다. 최초의 방문자 최징(最澄)은 짧은 체재기간으로 종문 교의의 많은 것을 배우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엔닌은 체재기간이 길어 그 기회를 얻었다. 남교수에 의하면 "일본 천태종에 대한 엔닌의 공헌은 무엇보다도 밀교를 소개한 데 있었다"고 한다. 엔닌의 「입당구법기」는 엔닌과 신라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9세기 중엽의 동아시아 정세를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어, 신라와 일본, 중국의 정치 · 경제 · 외교에 관한 정보를 풍부히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 학계의 견이다. 이번 장보고상의 공개와 엔닌스님에 관한 논문발표는 8세기초 활약한 해상왕 장보고에 대한 국내 학계의 반약한 연구현황을 보여줘 학계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하는 계기가 됐다.

지상상담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분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 ·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 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 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 (02)722-4162 팩스 : (02)737-0698

점장이가 신을 받아야 살 사주라는데

문 남편 생일이 음력 4월 초파일입니다. 한 점장이 말이 '출가할 사주인데 가정을 이루고 사니 수명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러니 신을 받아야 수명이 연장된다'고 합니다. 남편은 그 말에 동요의 빛이 역력한데요, 어찌해야 합니까?

(부산시 수정동 · 성빈모)

답 팔자 운명이란 따로 없습니다. 모든 게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마다 집착을 떼지 못하니까 업이 있고 응보가 있고 유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으로 짓고 받는 것이니 내가 팔자를 믿고 귀신이 있다고 하면 있는 것이고 없다고 하면 없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자기 중심이 바로 서지 못한 사람은 비유하자면 빈집과 같습니다. 빈집에는 떠돌이도 들어가 살고 짐승, 벌레들이 제멋대로 들락거립니다. 그러므로 마음도리를 몰라 집을 비워놓는다면 누가 들고 나도 도무지 가늠치 못할뿐 아니라 엉뚱한 놈이 주인노릇 하면서 심신을 망쳐놓아도 속절없이 당하기만 할 것입니다.

스스로 주인이 되십시요.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치 마십시요. 겁내고 의심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믿지 못해 겁내고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리되면 부처님의 뜻과 나의 뜻은 하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만물의 영장으로 태어나서 자신의 근본이 부처인 줄도 모르고 점쟁이 말에 흔들리는 그런 졸장부가 되어야 옳겠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믿지 못하면 마음의 열쇠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일체를 나의 근본 주인공에 맡기고 거기서 밖에는 해결할 수 없다는 강한 믿음을 갖기 바랍니다.

자기 주인공을 왜 믿어야 하는지요

문 스님께서는 '자기의 본래 모습인 주인공을 철저히 믿으라'고 가르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이치를 알고 싶습니다.

(서울 은평구 갈현동 · 유상희)

답 자기가 자기를 믿지 못하면 보궁의 열쇠를 받을 수 없습니다.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배 창고의 열쇠를 맡기겠습니까.

내 속에 칠보가 가득 차 있으니 잘났다는 생각, 못났다는 생각 다 버리고 자기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참 자기야말로 안되는 것도 되게 할 수 있습니다. '되게 할 수 있다' 고 믿는다면 돌 위에 세워 놓아도 삽니다.

'주인공만이 모든 걸 하고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 고 믿으면 관세음보살이 찰나에 드셔서 법을 설하기도 하고 약사보살이 찰나에 드셔서 또 법을 펼쳐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부처님 도와주십시요. 관세음 보살님 살려주십시요' 할 것도 없습니다. 믿음 속에 제불보살과 역대 조사와 삼라만상의 온갖 조화가 다 깃들어 있습니다.

자기의 뿌리인 주인공을 굳게 믿으십시요. 뿌리만이 나무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예컨대 퉁그러진 삐마디가 제 자리에 가서 앉을 수 있는 것도 태가 잘못 앉았다가 제자리에 가서 임신을 제대로 하게끔 할 수 있는 것도, 육신을 뜻대로 움직이게 하는 것도 자기 뿌리가 하게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내 몸 속에 있는 의식 · 생명 · 모습들만이 내 몸을 바꿔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인공을 진실로 믿고 거기에 일체를 맡길 때 내 의식들이 통신이 되고 그리되면 몸 안에서 통신을 받아 전체가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주인공에 모든 것을 맡겨 놓으면 닥치는 대로 용도에 따라 어떤 예고든지 불에 타버리는 도리가 있습니다. 모든 게 나로부터 벌어졌고 나로 귀결되는데 자성을 못 믿어서야 되겠습니까.

좌선할 틈이 없어 공부가 잘 안됩니다

문 하루하루 생업에 쫓기는 몸이라서 차분하게 좌선할 틈이 없습니다. 제 스스로도 퇴보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바꿔볼까 생각 중입니다. 가르침 바랍니다. (경남 김해시 어방동 · 권혁인)

답 하루 생활 속에 바쁘게 움직이는 것을 공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좌선만이 공부라고 생각한다면 좌선하는 사람은 방에 앉을 이유도 없고 먹을 이유도 없고 입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남이 만들어 놓은 옷 입고, 남이 농사 지은 것 먹으면서 물질세계의 모든 움직임을 거부한다면 바로 죽은 도를 믿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상하 사방이 탁 터졌으니 거칠 게 없느니라 하는 말이 있는 겁니다.

작으나 크나 짧으나 기나 일하는 거나 앉았는 거나 섰는 거나 모든 게 걸림이 없을 이고 통 속을 벗어나야 어리석음을 다 태워버리고 자유자재 할텐데도 불구하고 우선 앉아서 내가 마음공부를 꼭 해야지 하는 이것도 물리가 터지질 않은 지혜롭지 못한 이치다 이겁니다.

또 생활 그 자체로는 도를 배울 수 없다고 생각해도 어리석은 것입니다.

생활을 떠나서 불교가 없고 불교를 떠나서 생활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래요, 여러분들이 바로 부처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하고 다르게 행동한다면 부처가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어리석음 떨쳐 버리고 앉으나 서나 일을 하나 안하나 공부 아닌게 없고 참선 아닌 게 없다고 생각할 때, 바로 몸과 마음을 물이 아니게 다스리면서 관하고 나아가는 게 마음의 회향이요 공부 입니다. 옛날 백장선사께서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라 하셨는데 왜 그랬을까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2차

전국 어린이불교 학교 지도자 연수 교육 안내

목 적: 실제 어린이 입장이 되어 모순과 꾸밈을 다스리고 마음드는 법을 배워 법회에 자신감을 갖게 하며 진솔한 믿음으로 각자 자기 신앙을 쌓게하는 데 있다.

내 용: · 주인공을 믿고 관하는 도리
· 지도 교사 실천 현장 체험 성공 사례 발표
· 화엄놀이

일 시: 1994년 11월 26일(토) 오후 6시~11월 27일(일) 오후 1시(1박 2일)

장 소 : 한마음선원 금왕지원(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주리 산 5-2번지)

대 상: 어린이 법회에 관심있거나, 현재 소임을 보는 스님, 일반 지도 교사

참가비: 15,000 원

신청문의: 한마음선원 본원 및 각 지원
본원 0343-72-3100
금왕지원 0446-877-0462



※ 뜻이 있으신 분은 11월 24일 까지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한마음 선원 어린이 지도교사회

108개의 재미있는 이야기로 풀어 쓴

이야기 한국불교사 I

삼국과 통일신라시대

김현준 지음 / 신국판 / 344면 / 값 6,000원

"구도의 불길이 한 순간도 꺼진 날이 없었던
1600년 한국불교사
이제 그 찬란한 역사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우리 문화의 뿌리가 되어온 불교문화,
한국불교의 위대성과 독창성,
불교가 전래된 이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불교사에 대해
우리는 얼마만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 「이야기 한국불교사 I」은
삼국과 통일신라시대 불교의
전반적인 모습을 108개의 재미있는
이야기와 함께 풀어 쓴 책으로 불교도는 물론
일반인 · 중고생까지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 이제까지 발간된 한국불교사 관계 책 중에서
가장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어
불교모임에서 함께 읽고
토론하기에 적합한 책입니다.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로
제2회 불교출판문화상 대상을 수상한
김현준씨가 감동깊게 엮은

경봉대선사 일대기 바보가 되거라



"사바세계를 무대로 삼아
연극 한바탕 멋있게 하라"고
당부하셨던 경봉대선사,
예리한 지혜의 눈과 깊은 자비심으로
모든 이의 자유로운 삶을
일깨웠던 경봉대선사,
이 책을 펼쳐들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살아 움직이게 했던
이 시대 최고의 도인을
만날 수 있게 된다.

김현준 지음/신국판/219면/값 4,300원

법보시를 원하는 분은 연락을 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전화 : 587-6612-6613 FAX : 586-9078

수 요 인터뷰



미당 서 정 주

20세기 한국 시단의 최거장 서정주. 앞 마당에 수북한 낙엽들을 보며 미당선생은 또 한해의 가을을 보내고 있었다. 낙엽을 바라보는 선생의 모습은 신라의 아름다운 마을에서 방금 도착한 듯 고요했다. 80의 세연에 주름진 얼굴은 차라리 고졸하고 다감한 우리의 할아버지이기에 모자람이 없지만 앞둬 없이 흐르는 시대의 혼돈을 걱정하는 시인의 마음은 앞뜰의 산재나무 보다 곧고 푸르렀다. 관악산 아래 단아한 시인의 집, 국화 한아름이 꽂혀 있는 봉산산방(蓬蒜山房)에서 미당선생을 만났다.

"부처님 법은 세상 밝히는 법 경전 잘 읽으면 누구나 시인"

―어느덧 입동(入冬)입니다. 무척 건강해 보이시는군요. 요즘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여름엔 여름으로 살고 가을엔 가을로 살지. 아침에 일어나면 합망구와 같이 체조를 해. 거 있잖아, 국민학생들이 하는 체조말야. 그걸 하는 날과 안하는 날은 차이가 크다고.

늙으면 몸이 침체돼.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체조를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는 산이름을 외우지. 무슨 산이름이냐 하면 세계의 산, 천6백25개의 산이름이야. 이것은 기억력의 침체를 막기 위한 것인데 그 많은 산이름을 4년전에 다외웠어. 미국 아들집에 있을 때부터 말야. 천6백25개의 산이름을 다 외고 나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 '이만하면 아직 쓸만하다'란 생각이 들지.

산이름을 다 외고 나면 합망구하고 대문을 나서지. 저기 관음사가 있지, 그 곳까지 사득사득 걸어 갔다가 오거든. 그러면 기분이 좋아져. 그 좋은 기분으로 책도 보고 시도 쓰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는 거야.

―하루 독서는 얼마나 하십니까.

▲뭐 대중있나. 앞뒤 없이 읽고 또 쓸 것이 있으면 쓰고 그러는 거지. 아직 내가 둔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히 말할 수 있어.

―방금 공항에 다녀 오셨다는 데요.

▲음, 미국 친구가 왔었어. 엊저녁에 와서 하룻밤 자고 갔는데 코넬대학의 교수로 있는 메켄이란 사내야. 내 시집을 미국에서 세권이나 번역해 낸 친구인데 「한국과 일본의 현대시 연구」로 하바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지. 그래 그 친구가 인사차 들렀다가 간 거야.

―당호가 봉산산방(蓬蒜山房)인데 무슨 뜻입니까.

▲거 왜 있잖아. 단군신화에 웅녀 나오지. 웅녀는 쑥과 마늘을 먹고 여자가 되어 우리의 어머니가 된 것인데 그것은 윤회의 사상이거든. 인생의 쓰고 매운 것을 잘 참고 견디어 무던히 살면 인간으로 환생한다는 것 아닌가. 우리들 살아가는 지혜가 거기에 있는 거야. 그래서 택호를 봉산산방이라 한 거야.

―요즘 세상이 몹시 어수선 합니다. 끔찍한 사건과 있을 수 없는 사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는 심정이 어떠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의 문명에 적응할 만큼 훈련이 돼 있질 않아. 발전된 사회에는 거기에 맞게 적응하고 살 수 있도록 인습이 따라야 되거든. 그런데 그것이 안돼 있어. 주의력이 부족하고 치밀성이 없다는 거야.

신화와 전설과 민담이 있는 곳은 어디를 막론하고 아름답다는 거야. 그것은 민족의 지혜를 일러주는 교과서이기도 해. 그 좋은 교과서를 시로 쓰는 일은 즐겁지 뭔가.

가장 큰 문제는 교육이야. 나도 교육자 생활을 했지만 어려서부터 치밀한 교육을 안 시키니까 건성건성 일들을 하지 않는가. 서양에는 국민학교에서 어텐션교육도 시킨다드만.

―이제 20세기도 다 저물어 갑니다. 미래사회를 대비한 지식인의 자세와 젊자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자연이야. 자연을 자연스럽게 하고 나서 과학문명도 발달해야지. 자연과학 문명의 발달은 공해만 잔뜩 만들어 놨어. 우리나라도 굉장히 심하거든. 인구나 땅의 면적을 생각 않고 들입다 공장만 세웠으니 오늘의 환경문제가 나온 것 아닌가.

쿨 사먹는 세상이 어디 바로 된 세상이라 할 수 있나. 자연을 살려야 해. 자연 속에서 그 비밀을 밝히고 그것으로 인간의 삶을 가꿔야지 자연을 짓밟고 인간의 이익을 추구하면 남패 밖에 더 올 것이 없거든. 자연을 경외하고 존경하고 그와 융화해서 사는 길을 지식인들이 걸어야 한단 말이야.

토인비가 말했잖아. 21세기 인류의 의식을 정화하기 위해서는 불교를 배워야 한다고. 나는 그 말을 적극 지지하는 사람이야. 마음의 정화에는 불교공부 밖에 명약이 없어. 거 있잖아. 오온이라는 것. 그 오온을 밝게 해야 열반에 든다고 '구경열반'이라고 하잖는가.

불교가 가르치는 마음공부를 모든 인류가 해야 된다는 게 내 주장이야. 거기에는 종교간의 이질성도 필요 없어. 다 존중하며 화합해야 한다고. 내가 성심여대(춘천에 있을 때)에 강의를 가면 그때 학장이던 김재수 수녀가 참선을 배우고 싶다고 해서 이기영박사를 소개했던 적이 있어. 종교는 서로 존중하고 화합할 때, 인류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거야. 석전스님 알지? 그분 앞에서 남의 종교 욕하면 혼쭐이 났다고. '내집 어른 위할 줄 알면 남의 집 어른도 잘 위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거든.

―신라, 삼국유사등 우리의 역사를 시로 쓰시고 신화의 세계에 몰두하시다가 다시 세계의 여행을 통해 각국의 민속과 산들을 시로 쓰셨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다시 한국적인 것으로 시의 주제를 옮겨 오셨는데 마치 커다란 회기선을 그으신듯 합니다.

▲제자리로 돌아온 거지. 시의 관심이 세상을 두루 한바퀴 돌아왔다고. 세계 어디나 마찬가지야. 신화와 전설과 민담이 있는 곳은 어디를 막론하고 아름답다는 거야. 그것은 민족의 지혜를 일러주는 교과서이기도 해. 그 좋은 교과서를 시로 쓰는 일은 즐겁지 뭔가.

―요즘 몰두하시는 일이 있으십니까.

▲무의식과 의식의 세계에서 나오는 욕망을 잠재우는 일을 하고 있어. 욕망을 잠재우고 말끔히 씻어내야 열반에 드는 것이거든. 사리사욕에 젖으면 깨끗하게 살 수가 없잖아. 성경을 보니까 '부자가 천국가기는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 보다 어렵다'는 말이 있더구만, 불교에도 솔하게 나오잖아. 욕심을 버려라, 욕망을 끊으라고 말야. 그걸 그냥 가르침으로 듣고 흘리는 것은 무의미해. 진짜 욕망을 내 몸으로 씻어내는 노력을 해야 하는 거야.욕망을 깨끗이 씻어낸 바로 그 세계가 니르바나의 땅이 아니겠는가. 순수 생명의 상태를 가져야 열반에 들어 갈 자격이 주어지니까 나도 이제 그 준비를 하는 거지.

―그간 써 오신 시들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아, 그거야 없지. 있으면 시인이 못 되는 거야. 시를 쓰고 또는 시집을 내고 나서 뭔가 찜찜하면 그걸 또 새로운 경지로 발전시켜 나가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서 나이를 먹고 나이값을 하는 것이야. 완전한 시가 어디 있나.

―경전은 어떻게 읽으십니까.

▲경전을 읽지 않았다면 내가 시인이 되지 못했을 거야. 거 왜 있잖아 〈관무량수경〉 같은 것 말야. 얼마나 화려하고 장엄한가. 경전이 묘사하는 세계와 경전이 말하는 진리, 그 표현과 구사력이야말로 최고의 문학이지.

그것을 배워야 해. 경전의 화술과 구사력을 찬찬히 들여다 보면 문학의 길이 보인다고. 문학하는 사람은 무조건 경전을 읽으라고 권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경전 속 문장의 아름다움을 배우고 또 그 뜻을 알면 이미 누구나 위대한 문학인이 될 수 있어.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의 내일을 여쭙고 싶습니다.

▲내일이 뭐 따로 있는감. 오늘을 잘 살고 나면 또 오늘이 오는 것이지. 일생을 공부했다 해도 돌아보면 쥐꼬리만큼도 아는 게 없지. 사는 자체가 공부의 연속이거든. 그저 욕심없이 공부하고 글쓰고 그러다가 골짝 슬 넘어 가면 되는 것이지 뭐.

대담 : 임연태 기자

불음 가득 · 법향 가득

책방 여시아문은



국내 최대의 불교 전문 서적만을 취급하는 서점입니다.

60여 평의 여유로운 공간에
국내외의 불교관련 서적으로만 3천 2만 여 종을 갖추었습니다.
책방 여시아문은 초심자에서 학자에 이르기까지
독자들 한분한분의 기대에 따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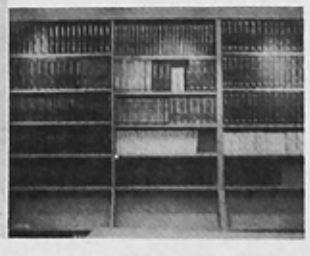
불자 여러분의 갈증을 풀어드립니다.

국내외의
서지정보(희귀본, 서적, 논문, 잡지) · 불교학술논문 · 불교문화예술정보 등
다양한 불교관련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는 이외에도
항상 불자 여러분의 공부에 충실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불자 여러분의 편안한 휴식공간입니다.

누구라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서가 배치, 컴퓨터 검색 체제,
그리고 언제라도 편안히 앉아서 독서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분들의 만남과 함께 법향 듬뿍 음미할 수 있는 곳,
책방 여시아문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여시아문은 불자들의 자랑입니다.

여시아문은 삼보에 귀의하는 서점입니다.
불법 홍포를 위해 회향하는 서점입니다.
그리고 불교의 현대화 · 생활화 · 세계화를 실천하는 서점입니다.

다시 푸는 경서

초발심 자경문 (4)

又不得於主法人 生輕薄想
(우부득어주법인에 생경박상하라)

因之於道 有障 不能進修 切須愼之
(인지어도에 유장이면 불능진수리니 절수신지어다)

論 云 如人 夜行 罪人 執炬當路
(논에 운하되 여인이 야행에 죄인이 집거당로인데)

若以人惡故 不受光明 墮坑落慙去矣
(약이인악고로 불수광명이면 타경락참거의라하니)

또한 법사에 대해 업수히 여기는 생각을 내지 말라. 그런 생각으로 말미암아 도에 장애가 생기어 닦아 나아가지 못하게 될 것이니 지극히 삼가하고 삼가할지어다. 논에 이르기를 '어떤 사람이 밤길을 가는데 죄진 이가 횃불을 들어 앞길을 비춘다고 할 때에 만약 그 사람이 나쁘다는 이유로 불 비취줌을 마다할것 같으면 구렁텅이에 빠지고 말 것이다' 라 하였다.

聞法之次 如履薄氷
(문법지차에 여리박빙하여)

必須側耳目而聽玄音 肅情懷而賞幽致
(필수측이목이청현음이며 숙정진이상유치하다가)

(동자차호이언정 기가한만으로 유담무근하고)

虛喪天日 欲冀心宗而求出路哉
(허상천일하고 욕기심종이구출로재리요)

처음을 알 수 없는 옛부터 버릇처럼 익혀온 애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마음에 얽히고 설켜 있어 잠시 숙어진듯 했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게 마치 하루 걸러 앓는 학질과 같나니 (먹고 잠자고 일하는) 일체사에 모름지기 수행을 돕는 방편과 지혜의 힘으로써 스스로 뻐틀 깍는 아픔으로 막고 자립자언정 어찌 한가하고 게으른 마음으로 근본없는 잡담을 즐기면서 (금쪽같은) 세월을 허송하며 마음깨치기를 바라고 삼계로부터 벗어날 길을 구하고자 할 것인가.

但堅志節 責躬匪懈
(단견지절하여 책궁비해하며)

知非遷善 改悔謂柔
(지비천선하여 개회조유어다)

勤修而觀力 轉深 鍊磨而行門 益淨
(근수이관력이 전심하고 연마이행문 이익정하리라)

長起難遭之想 道業 恒新
(장기난조지상하면 도업이 항신하고)

常懷慶幸之心 終不退轉
(상회경행지심하면 종불퇴전하리니)

설법들을 때는 그윽한 뜻을 맛보도록
불법 만남에 늘 감사하면 발심도 새로워

下堂後 愛坐觀之 如有所疑
(하당후에 욕좌관지하되 여유소의어든)

博問先覺 夕惕朝詢 不鄙絲髮
(박문선각하며 석척조순하여 불람사발이어다)

如是 乃可能生正信 以道爲懷者歟
(여시라야 내가능생정신하여 이도위회자여인저)

그러니 설법을 들을 때는 마치 살얼음을 밟고 가듯이 간절히 이목을 기울여 깊고 깊은 진리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마음 속의 번뇌티끌 밝히고 그윽한 뜻을 맛보도록 해야한다. 그런뒤 법사가 당에서 내려가면 욕욕히 앉아서 관하되 어떤 의심되는 게 있거든 선지식에 널리 물을 것이며 아침 저녁으로 간절히 안으로 찾아 의심나는 것을 털끝만큼도 넘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아야 이에 가히 바른 믿음을 지녔다 할 수 있고 도로써 자기 마음자리를 삼는 자라 할 것이다.

無始習熟 愛欲患痴 纏綿意地
(무시습숙한 애욕애치이 전면의지하여)

暫伏還起 如隔日瘧
(잠복환기하여 여격일학하니)

一切時中 直須用加行方便智慧力
(일체시중에 직수용가행방편지혜력하여)

痛自遮護 豈可閒慢 遊談無根
(통자차호이언정 기가한만으로 유담무근하고)

虛喪天日 欲冀心宗而求出路哉
(허상천일하고 욕기심종이구출로재리요)

처음을 알 수 없는 옛부터 버릇처럼 익혀온 애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마음에 얽히고 설켜 있어 잠시 숙어진듯 했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게 마치 하루 걸러 앓는 학질과 같나니 (먹고 잠자고 일하는) 일체사에 모름지기 수행을 돕는 방편과 지혜의 힘으로써 스스로 뻐틀 깍는 아픔으로 막고 자립자언정 어찌 한가하고 게으른 마음으로 근본없는 잡담을 즐기면서 (금쪽같은) 세월을 허송하며 마음깨치기를 바라고 삼계로부터 벗어날 길을 구하고자 할 것인가.

但堅志節 責躬匪懈
(단견지절하여 책궁비해하며)

知非遷善 改悔謂柔
(지비천선하여 개회조유어다)

勤修而觀力 轉深 鍊磨而行門 益淨
(근수이관력이 전심하고 연마이행문 이익정하리라)

長起難遭之想 道業 恒新
(장기난조지상하면 도업이 항신하고)

常懷慶幸之心 終不退轉
(상회경행지심하면 종불퇴전하리니)

다만 (출가한 : 발심한) 뜻과 절개를 굳게 다지고 스스로 채찍질해 게으르지 않도록 하고 그른줄 알면 바르게 고치며 회개하고 뉘우쳐 마음을 조어하고 늘 부드럽게 할 것이다.

부지런히 닦아 나아가면 관하는 힘이 더욱 깊어지고 단련하고 갈아 나아가면 수행문이 더욱 청정해지리니 (억겁 윤회 중에) 만나기 어려운 불법을 (천행으로) 만나게 되었다는 생각을 오래 오래 일으키면 도 닦는 일이 새록새록 새롭고 언제나 마음으로 발심한 게 얼마나 다행스럽고 경축할 일인가 생각하면 끝까지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如是久久 自然定慧圓明 見自心性
(여시구구하면 자연정혜원명하여 견자심성하고)

用如幻悲智 還度衆生
(용여환비지하여 환도중생하여)

作人天大福田 切須勉之
(작인천대복전하리니 절수면지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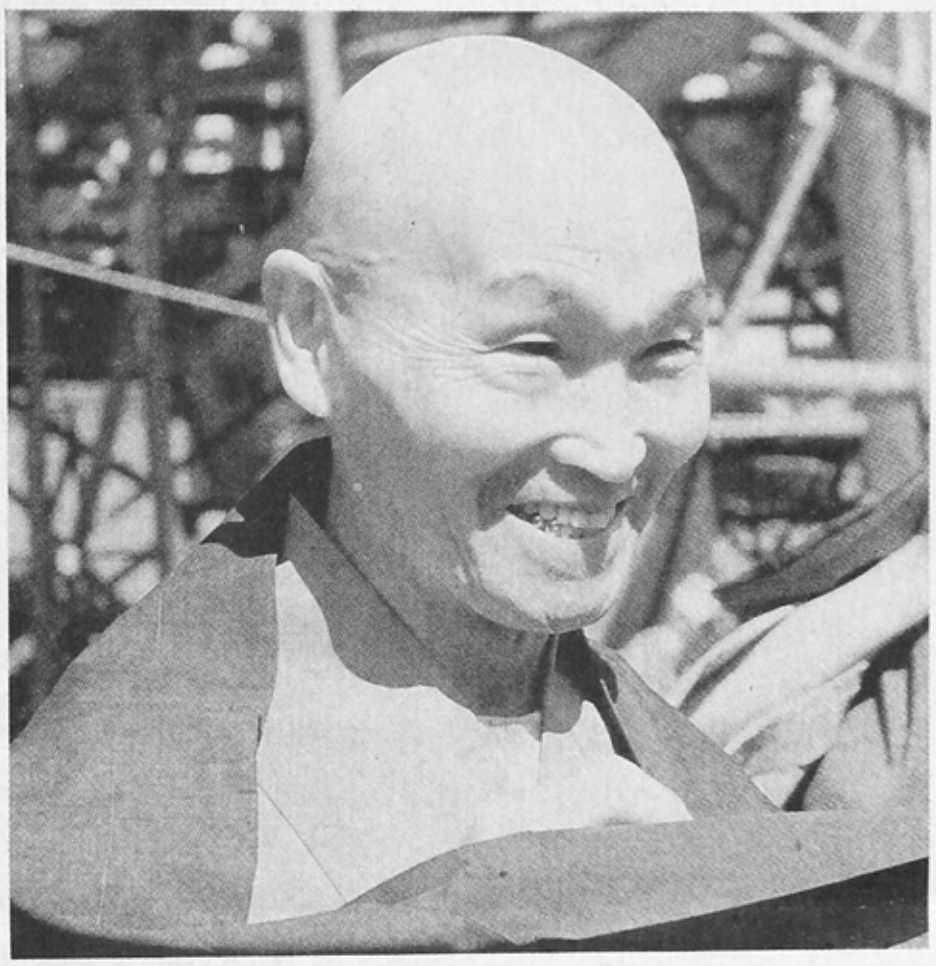
이와같이 오래오래 닦아 나아가면 자연히 정과 혜가 원만하게 밝아져 스스로 마음 성품을 보게 될 것이며 (비록) 법계가 공한 줄 아나 자비와 반야의 지혜를 굴려서 중생을 (고해의 밖에서) 풀이켜 제도하고 인·천 가운데 큰 복밭을 일구리니 부디 간절히 바라노니 모름지기 힘쓰고 힘쓸지어다.

龍眼

지상 법석

"반야는 창조와 행복의 어머니

청화 스님 <태안사 조실>



몽상 여의면 반야

만법은 유식이라 모든 존재가 오직 식(識) 곧, 마음 가운데 다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도 동물도 유정(有情)·무정(無情)도 모두가 오직 식(識) 곧 마음입니다. 식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만법유식의 도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람도 역시 식(識) 덩어리요, 마음 덩어리요, 산도 태양도 별도 식 덩어리요, 우리 지구도 바로 식입니다. 따라서 우리 지구는 바로 그대로 지장보살 입니다. 또는 태양은 바로 그대로 관세음보살이요, 달은 대세지보살 입니다.

그런데, 우주의 도리인 반야바라밀은 대체로 어떤 것인가 우리는 여태 반야에 관해서 여러가지로 생각도 하고 검토해 왔습니다. 반야는 바로 제법공(諸法空) 도리입니다. 그러나 다만 비어 있고 허무하다고만 생각할 때에는 반야바라밀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생이 실제로 있다고 집착하는 현상계는 사실은 시간적으로 무상(無常)하고 공간적으로 비어 있어서 허무한 것이나, 모든 허망한 존재의 근본 성품인 진여불성(眞如佛性)은 무한 공덕을 갖추고 우주에 충만해 있는 바로 생명의 실상입니다.

이러한 실상(實相)의 도리가 반야바라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야가 있으면 비로소 참다운 수행자이고 반야가 없다면 수행자가 못됩니다. 반야는 어느 고유한 존재가 아니라 바로 생명입니다. 우리가 전도된 몽상만 여의어 버리면 바로 반야의 생명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반야와 더불어 있어야 참다운 창조가 있고 또는 참다운 수행이 있습니다. 반야가 없다면 모두가 다 범부의 허물을 벗지 못하는 것이고 또는 어떤 행동이나 때문은 유루행(有漏行) 밖에는 못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생이 보고 느끼는 일체 현상은 모두가 다 허망하고 무상한 것이며, 범부인 한 우리가 보는 것은 다 전도된 몽상입니다. 전도된 몽상을 끊어 버리지 않고는 공부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끊어야 할 것인가? 이런 수도의 방편이 화두(話頭)요, 염불(念佛)이며, 관법(觀法)이요, 주문(呪文)이며 계율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아직 반야의 도리를 증명은 못하더라도 우선 이론적으로 바른 이해가 있어야 수행이 바로 되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이론적인 자기 정립이 되어야 합니다. 이른바 선오후수(先悟後修)(먼저 깨치고 뒤에 수행하는 것)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상(相)을 여의면서 체(體)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현대 사조(思潮)는 여러 갈래로 다원적이고 다양한 문화현상들이 하나의 도리, 하나의 근본 체성(體性)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는 전환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분야에서나 모두가 다 개방적이고 보편적이고 궁극적인 하나의 진리, 포괄적인 본체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상(相)에서 체(體)로 또는 분열(分裂)에서 화합(和合)으로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없는 깨달음의 길

따라서 이런 시대를 맞이하여 불교도 내 종파 네 종파의 권견에서 벗어나 불법의 근본이자 우주의 법칙인 반야바라밀로 돌아가는 것이 절실한 때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도 여러가지 방편이 있는 것인데 우주 자체가 무량무변한 진여불성이므로 불성을 깨닫는 대도(大道)에는 문이 따로 없는 것입니다.

어떤 스님이 조주스님께 '무엇이 조주입니까' 하고 법을 물으니까 '동문(東門) 서문(西門) 남문(南門) 북문(北門)이라' 진실한 조주는 어느 한 문이 아니라 동문이나 서문이나 남문이나 북문이나 어디에나 걸림이 없는 참 성품이라는 말입니다. 불법은 이와 같이 위대한 길이기 때문에 문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진리에 마음만 사무치면 상을 여의고서 본체를 지향하는 간절한 마음만 있다면, 수도정진하는 과정에서 물(水) 보고 깨닫고 불(火)보고 깨닫고 달(月) 보고 깨닫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직 우리가 체(體)를 여의지 않고 용(用)을 나투고 또는 용에서 본체로 돌아가는 간절한 뜻이 없으면 수행자의 자세가 못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한눈 팔지 않고 근본 성품인 진여불성을 깨닫고 진여불성과 하나가 되고자 출가사문이 된 것입니다. 삼천대천 세계도 모두가 체에서 용으로 화현(化現)되었다가 다시 체로 돌아갑니다. 체와 용이 원래 둘이 아니지만 현상적인 세계는 체에서 용으로 온 세계입니다. 현상적인 용(用)이란 본래 본체에 입각해서 용(用)을 나투어야 온전한 바른 통찰과 올바른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본체란 가명(假名)과 가상(假相)을

부디 진리의 등불 되시길 빌며
1천만 불자님들께 바칩니다.

우뚝 선
仁山醫術의 큰 봉우리

藥이 어떻다, 病이 어떻다 떠든 사람은 많지만 막상 난치병 불치병을 휘어잡은 의사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전설 속의 편작(扁鵲), 화타(華陀) 만큼이나 죽음의 구덕에서 병자를 살려낸 사람, 천금보다 소중한 자신의 경험의방을 모두 공개한 참 醫者. 현대의 불치병을 다스렸던 영원한 神醫 — 仁山 김일훈. 그의 救療一生과 神藥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소설로 쓴 神醫·神藥이야기

'소금 有害論'의
코페르니쿠스적 반전 일으킨 대저술

신비의 약소금 — 죽염의 제조원리·효능·활용법

죽염요법

김윤세 지음 / 광제원 펴냄 / 9,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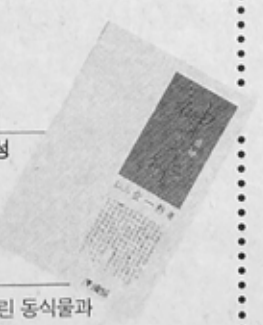
인산 선생이 창제한 죽염의 제조원리와 응용법. 선생의 가르침 그대로 죽염을 빚고, 그 약성을 이용하는 갖가지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선생의 의론 전수자이자 가업을 대물림한 김윤세가 펴냈다. 요약본이 3개국어로 번역되었으며 일본어로 완역판 발행, 이어 영어 중국어 완역판 발간 예정.

"의료인도 처방도 약도
필요없는 세상…"

난치병 불치병 다스리는 仁山醫論의 집대성

神藥

김일훈 지음 / 광제원 펴냄 / 7,000원



약성으로 가득한 한반도의 신비를 풀어, 지천에 깔린 동식물과 약재의 합성으로 온갖 병을 다스리는 법을 제시한 책. 화공약독 및 화학물질의 범람으로 급증하는 각종 공해병 성인병 퇴치를 위해, 83년간 펼쳐온 의론의 정수를 집대성한 책. 현대병으로 신음하는 이들에게 구원의 희망을 던져준 그 유명한 책.

꺼지지 않는 등불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동사열전≫은 이땅의 정신사에 빛을 남긴 인물들의 구도자적 삶과 득도와 죽음에 대한 기록이다. 1천6백년전 한반도에 불교가 전해진 이후 해남 대흥사의 伯梵海 선사에 의해 199명의 전기가 편찬(1894년) 되기까지 1천5백년의 세월이 소요됐고 번역자에 의해 한글로 옮겨지기까지에는 또 1백년의 세월을 기다려야 했다. 7년에 걸친 자료수집과 정리, 번역작업 끝에 우리는 1천6백년의 시간과 한반도라는 공간 속에서 199명의 구도자들이 이룩한 득도체험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오랜 세월을 이어 전해진 '꺼지지 않는 진리의 등불'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깊이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伯梵海 선사가 편찬했던
199명 구도자의 전기
처음 한글로 완역

제24회 문화부 추천도서
제2회 불교문화상 수상도서
제2회 불교문화원리위원회 선정
한국 간행불문리위원회 선정
청소년 권장도서



불교서점,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주문/ 736-3171

梵海撰, 金侖世 譯 국판 720쪽/값 1만원

慶濟院 서울 종로구 수송동 197-28 대일빌딩 (110-300) 전화 (02)736-3171 팩스 (02)732-3919

東師列傳
그림자 없는 나무도 물거품을 태운다

지상 법석

부처님 가르침은 만병 통치약"

여읜 일미평등(一味平等)한 자리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무아(無我)·무소유(無所有)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아·무소유의 경계는 일체만유 그대로 진여법성의 경지입니다. 어느 것도 진여법성, 부처님 아님이 없는 자리입니다. 한 생각 잘못 비뚤어져서 '저것은 부처가 아니다, 이것은 부처다'고 분별하는 마음 자체가 체를 여의고서 상에 얽매이는 미망인 것입니다.

현대사회의 선구자

따라서 모두가 부처라는, 일체공덕을 원만히 갖춘 진여불성이라는 생명의 실상자리에다 우리의 마음을 둔다면 우리의 행위인 신·구·의(身口意) 삼업(三業)이 청청해 집니다. 그것이 바로 참다운 도덕률입니다. 공자(孔子)나 노자(老子)나 예수나 그런 성인들의 행위도 모두가 도덕률에 따른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면 도덕률의 본체는 바로 참다운 철학인 우주의 도리요, 불교에서 말하면 진여불성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도리는 본래 공평하여 사사로움이 없는 생명이기 때문에 말하는 언어나, 행동하는 몸짓이나 조금도 윤리 도덕에 어긋날 수가 없습니다. 말을 함부로 한다거나 또는 음행을 한다거나 또는 음식을 함부로 먹는 다는 것은 모두가 다 도덕률 곧 우주의 천연자연(天然自然)한 도리(道理)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 바야흐로 무서운 시대입니다.
> 자기 문중(門中)에 집착하고 자기 종단(宗團)에 얽히고 자기가 공부하는 법, 내 것만이 옳다는 것에 불잡히게 되면 우리 마음은 바로 어두워지고 그지없이 옹색해집니다. 이것 자체가 전도몽상입니다. 본래 훤히 틔어서 아집(我執)도 법집(法執)도 없는 마음인 것을 구태여 지어서 '나'에 집착하고 '법'에 집착한다면 공부나 다른 사람한테나 그 무엇에도 도움이 안되며 그것이 또한 우주를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철학에서도 인간성의 실존 문제가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어떤 분야에서나 인간성을 탐구하는 문제가 가장 절실한 근본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성을 똑바로 깨닫고 가르치는 가르침은 불교 외에는 없습니다. 절대로 아전인수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수행자는 인간성을 개발하는 선구자 입니다. 현대사회의 선구자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선 도덕적으로 우리는 완벽을 기해야 합니다. 인간이란 약해서 마음으로 다짐을 해도 미끄러지고 비틀어지고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칠전팔기로 즉시 다시 일어나서 나약한 자기를 추스려야 합니다. 땅에 넘어지면 다시 땅을 짚고 일어나듯이 강인한 의지로 다시 바로 일어나서 한사코 법성(法性)자리에 우리의 마음을 붙이고 미망의 그물을 벗어나야 합니다.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자기 스승을 위해서나 부모를 위해서나 친구를 위해서나 어느 누구를 위해서나 이와 같이 생명의 고향인 본체로 돌아가는 그 행위가 가장 수승한 행위요, 가장 진정한 보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전도된 몽상만 떠나면 모든 것이 한결같이 제법(諸法)이 공(空)이요 5온(五蘊)이 개공(皆空)입니다. 범부 중생들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보기 때문에 고민이 생기고 여러 가지 번뇌가 더욱 더 치성(熾盛)해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본래면목을 바로 참구하는 공덕보다 더 수승한 보배는 없습니다. 우리는 몸이 아프면 약을 먹고 영양분을 많이 섭취합니다만 그것이 필요없는 것은 아니나, 가장 훌륭한 영양분, 가장 완벽한 보약은 부처님 가르침을 여법히 수행하는 일입니다.

부처님 법에다가 마음을 두고 바로 생활한다면 웬만한 문제들은 풀리는 것입니다. 진여불성에 가까울 수록 더 잘 풀리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면 무슨 병이나 다 근본은 무명에서 오는 것이며 법성 자리에는 본래 죽음도 병도 없기 때문입니다. 고기를 안 먹어도 단백질을 벌도로 안 취해도 그것 때문에 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약해서 뒤뚱거리고 넘어지기가 쉽지만 넘어지면 바로 일어서야 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것은 조금도 없습니다. 부처님을 따르는 길은 공명정대한 우주의 공정한 길입니다. 사실은 최상의 안락행(安樂行)입니다. 수행자들이 가는 길은 수 많은 성현(聖賢)들이 헤치고 다져놓은 탄탄하고 활짝 트인 해탈의 대도입니다.

해탈 지향하는 시대

전도된 몽상만 떠나 버리면 훤히 트인 마음으로 영생(永生)의 낙토(樂土)를 지향하여 환희용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도 눈도 열려 버리면 웬만한 병은 침범을 못합니다. 그래서 한없이 틔어 있고 다만 비어 있지 않는 자리, 무량한 공덕을 갖춘 진여불성자리, 이 자리를 생각하고 그 진여불성을 여의지 않는 생활보다 더한 행복은 없습니다. 불경에도 아가타약을 말합니다. 아가타약은 만병 통치약입니다. 부처님 명호나 화두나, 또는 주문이나 부처님이 말씀하신 불법은 다 한결같이 마음의 병과 몸의 병을 치유하는 만병통치의 아가타약입니다.

우주가 바로 부처님이요 일체의 존재가 바로 불법(佛法)이기 때문에 중생이 부처를 생각하면 부처는 또한 우리 중생을 굽어보고 호념(護念)하는 것입니다. 다같은 부처이므로 부처를 생각해서 부처가 이심전심(以心傳心)으로 상통하고 감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야흐로 무서운 시대입니다. 자기 문중(門中)에 집착하고 자기 종단(宗團)에 얽히고 자기가 공부하는 법, 내 것만이 옳다는 것에 불잡히게 되면 우리 마음은 바로 어두워지고 그지없이 옹색해 집니다. 이것 자체가 전도몽상입니다. 본래 훤히 틔어서 아집(我執)도 법집(法執)도 없는 마음인 것을 구태여 지어서 '나'에 집착하고 법에 집착한다면 공부나 다른 사람한테나 그 무엇에도 도움이 안되며 그것이 또한 우주를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현대는 개방적인 시대입니다. 아무렇게나 방만(放漫)하게 한다는 개방적인 시대가 아니라, 법에 대한 집착을 털고 나에 대한 집착을 털어버리지 않을 수 없는 해탈을 지향한 시대라는 말입니다.

마땅히 번뇌 해탈을 지향하는 시대적인 조류에 맞춰야 첨단 과학에도 뒤지지 않고 우리가 5욕의 수렁에서 헤매는 무량중생을 구제하는 진정한 보살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행자는 자랑스러운 존재입니다. 과거 전생에 두고두고 공덕을 쌓아서 금생에 영광스러운 법의를 입었습니다. 우리들의 무상(無常)한 금생 인연이 몇 차례나 다시 만나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내생에 가서도 꼭 우리는 수행자가 되어서 피차 청정한 수행자의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다생겁래(多生劫來)로 몇 만 생을 다시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한사코 중생 제도를 위해서 '반드시 고통 많은 사바세계에 태어나야 합니다. 그때마다 출가하여 성취하고 본래 없는 무명 다 여의고, 본래 없는 무량한 중생을 제도하여 다 함께 성불하게 할 것입니다.

부처와 중생은 서로 상통 감응해야 돼
'나' '법'에 집착하는것은 곧 우주 오염

과학속의 불교 ┐
불교속의 과학 ┘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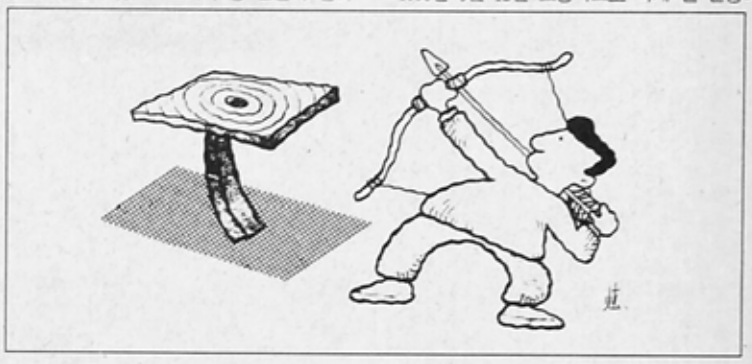
인과의 확률론

김 성 규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는 한강줄기를 평생 동안 지켜보아도 같은 흐름을 계속한다. 그러나 삼국시대에 태어나 지금까지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한강의 흐름을 지켜보았다면 강물 줄기가 엄청나게 달라져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물줄기는 끊임없이 변하고 있지만 단지 우리들이 단편적으로 보니까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우리가 변하고 있는 것을 모를 뿐이다.

인과도 마찬가지다.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 인과를 100년 동안의 눈으로 보니까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자연의 조건에 의해 한강 물줄기가 끊임없이 변하는 것처럼,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들의 생각과 삶에 의해 인과는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속담에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난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콩 심은데 말라비틀어져 먹을 수도 없는 콩이 날 수도 있고, 빛깔도 좋고 오동통 살찐 콩이 날 수 있음도 또한 엄연한 사실임을 알아야 한다.



생각·행동 바뀌면 인과도 변해

인과는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한 번 살펴보자. 빛의 파동-입자 이원론적인 성질을 밝히는데 있어서 1924년 보어박사는 파동의 확률화라는 것을 제안하므로써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으며, 양자역학의 확립에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였다. 예를들면 영의 실험에서 하나의 광자가 사진판의 어느 곳을 때릴 것인가 하는 것은 계산할 방법이 없지만 실험이 적절하게 준비되고 결과가 정확하게 측정만 된다면 광자가 일정한 장소에서 사진판을 때릴 확률은 정확하게 계산될 수 있다는 얘기다. 가령 A지점에 빛이 떨어질 확률이 60%라면 1,000,000번의 실험을 되풀이 할 때 600,000번 정도는 빛이 A지점에서 포착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원자적 규모의 입자들은 파동과 같은 확률모형으로 해석되며 궁극적으로 이러한 모형들은 물체의 확률이 아니라 상관관계의 확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독립된 실체로서의 의미보다는 실험의 준비와 그 다음의 측정 사이에 있는 상호연관으로 이해될 수 있는 사건이다.

양자론은 우주의 근본적인 전일성을 드러내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최소의 단위로 이 세계를 분해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자연은 어떤 독립된 기본적인 구성체를 보여주지 않고 오히려 전체의 여러 부분들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복잡한 그물의 관계로서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들은 언제나 그 본질적인 면에서 관찰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인간이라는 관찰자는 관찰되는 과정의 연속이며 아원자적 대상물로 단지 관찰자와 대상자의 상호작용에 의해서만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생명과 무생명을 포함한 우주의 모든 현상이 확률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큰 명제는 "인과는 변한다"는 사실이다.

같은 조건에서 광자가 어디를 때릴 것인가 하는 실험을 1,000,000번 되풀이 했을 때 결과적으로 같은 위치에 맞출 수 있는 경우가 십만번도 될 수 있고, 이십만번, 삼십만번, 육십만번도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인과의 확률론적 해석의 결정적 단서가 된다.

박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지은 업에 의하여 1995년 5월 12일 교통사고로 죽게 될 운명이라고 하자. 우리는 이 사건을 놓고 인과론적인 해석과 확률론적인 해석을 할 수 있다.

첫째, 인과론적인 해석은 박이라는 사람의 현재 행위가 어떻든 간에 1995년 5월 12일 일어날 사건은 피할 수 없는 숙명적인 것으로 죽게 되는 것이다.

둘째, 확률적인 해석은 1995년 5월 12일에 있을 교통사고는 어떻게 피할 수 없지만 교통사고로 받는 과보는 박이라는 사람의 현재 행위에 따라 죽을 수 있고, 중상을 입을 수도 있고, 조금 다칠 수도 있고, 자동차만 찌그러지고 본인은 안 다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는 업력은 엄청나게 강하여 숙명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을 내건 지극한 외지도 현재의 행위에 집중시킨다면 바뀔 수 있는 것이다. 인과는 고정된 틀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행위에 의해서 끊임없이 변해가는 실체인 것이다.

같은 신앙을 믿고 있으면서도 도달하는 목적지는 천차만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있든 어떻게 살아가든 결국에는 목적지에 다다르게 마련인 것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먼저 '무엇이 될 것인가?' 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분명한 목적은 인과를 변화시키는 가장 확실한 것이다.

불자들이여!

어떤 일이 있더라도 도를 이루겠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자.

〈영남대 의대교수〉

불교성지순례

○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인도 7대성지 순례)

인도 네팔 11일
- 출 발 : 11월 18일, 12월 2일, 12월 16일, 12월 30일 동참금 : 165만원
- 일 정 : 서울-델리(1박)-럭나우-발람푸르(1박)-바라나시(1박)-보드가야(1박)-라지기르, 나란다-파트나(1박)-바이살리, 쿠시나가르(1박)-룸비니(1박)-카트만두(1박)-싱가폴 경유-서울
- 특 전 : 전문요리사 동행 **한국 음식 제공**, 불교성지순례 **전문가이드**.

○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캔디 불치사)

스리랑카 6일
- 출 발 : 11월 18일, 12월 2일, 12월 16일, 12월 30일 동참금 : 108만원
- 일 정 : 서울-콜롬보(1박)-아누라다푸라-하바라나(1박)-폴른나루와, 시기리야-하바라나(1박)-덤불라, 아루비하르-캔디(1박)-콜롬보(1박)-서울

○ 불탑의 나라

미얀마 태국 8일
- 출 발 : 11월 18일, 12월 2일, 12월 16일, 12월 30일 동참금 : 140만원
- 일 정 : 서울-방콕-양곤(1박)-파간(1박)-만달레이(1박)-양곤(1박)-폐구-양곤(1박)-방콕(2박)-서울

○ 불광사, 화련

대만 5일
- 출 발 : 11월 18일, 12월 2일, 12월 16일, 12월 30일 동참금 : 68만원
- 일 정 : 서울-타이페이(1박)-고웅(1박)-화련(1박)-타이페이(1박)-서울

○ 세계최대의 불교기념비, 보로부두르 사원

인도네시아 5일
- 출 발 : 11월 20일, 12월 4일, 12월 18일, 1월 1일 동참금 : 85만원
- 일 정 : 서울-덴파사(2박)-족자카르타(1박)-자카르타(기내박)-서울

불교성지순례 전문업체
혜초여행사 대표전화 (02)544-1533

약사(藥師)여래불 조성 점안식

삼보에 귀의하옵고!
불자님 가정에 항시 불은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억대 제불 보살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심에 꼭 한가지 서원을 가지고 중생을 제도하시니 약사여래불은 우리 중생의 모든 병고액난을 치유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기도영험 도량인 해동 용궁사에서는 **약사여래좌불**을 **조성**하옵고 **점안식**을 다음과 같이 봉행하오니 불자님께서는 부디 동참하시여 약사여래부처님 가피력으로 병고액난을 모두 소멸하시기 바랍니다.

동/참/안/내
- 일 시 : 음 11월 5일(12월 7일)
- 장 소 : 해동 용궁사 약사여래전
- 증 명 : 고 산 큰스님
- 기념품증정, 점안 오색실
- 문 의 : 용궁사(0523)361-3165, 6166
- 교 통 : 버스 1, 2, 3호 전체운행함.

각지역 접수 문의처
- 서 울 : 용진관광 279-1911~3
- 대 구 : 칠성관광 551-7771~3
- 대 전 : 백제관광 222-5900~2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해동용궁사

고은의 불교 대하소설

수미산 〈4〉

"우리의 자식은 법(진리)이지 여느 사람들의 그것처럼 아들 딸이 아니오."
"아" 낭자가 짧은 감탄을 내 뱉았다. 그것은 기쁨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영혼의 무정이었다.

그들의 동거생활

그 섬은 격렬비열도의 여러 섬과도 동떨어진 무인도였다.

이를테면 서산군의 황도마을 풍어제(豊漁祭)의 그 엄격하기까지한 황소의 피 제사 따위와도 아무런 상관 없는 무인도였다.

사람들은 그 무인도에도 누군가가 살고 있다고 믿어 온 것이다.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신선인데 그는 언젠가 다시 하늘로 돌아가리라 했다.

그런데도 섬의 물레에는 쉽게 배를 댈 만한 곳이 없는 암초의 위험이 있어서 마치 그런 위험은 긴 쇠사슬의 무게로 쳐지는 수곡선(垂曲線)과도 같은 금줄이라도 쳐진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

실지로 조선 초기의 한 담력이 있는 젊은 어부가 주낙배를 저어서 다가갔다가 그 섬 물레를 휘감고 있는 뜻밖의 소용돌이 물에 휩쓸려 배는 조각나 여기 저기 널관지로 떠다니고 사람의 자취는 끝내 종잡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 뒤로 그 섬에 가는 일이란 거의 없었다.

처음 권력승 인담이 충청도 가야산에 이르렀을 때 그 지방에 퍼진 괴질에 걸렸으나 그는 사흘 뒤에 거뜬히 나았던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다. 그러므로 낯선 스님 인담의 쾌유가 돋보였다.

그를 신선이라 한 것은 그때부터였는데 그는 가야산을 떠나 바다 쪽으로 무작정 가는 것이었다. 마치 어떤 매혹적인 귀신에 홀려서 가는 것 같았다.

이윽고 황도마을에서 북쪽 바닷가로 올라갔다. 거기서 황도의 풍어제에서 들리는 풍어타령을 듣고 언짢아 한 인담은 그 옆에 동행이라도 있는 것처럼 구시렁댔다.

월산 바다에 조기도 많고
우리네 주머니 돈도 많다
순풍에 돛 달고 만경창파를 떠나서
돈 실러 가세 연평 바다로
에헤 어허뚱 에헤 어허뚱

그 소리는 억센 바다 위의 사람들의 소리 인지라 당차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그런 타령에 걸핏하면 돈타령이 나와 버리니 풍어를 기원하는 오묘한 이치가 크게 감소 될 따름이었다.

'노래에 욕심이 들어있으면 그 노래에 무슨 보탬이 있으리' 하고 인담은 투덜댔다.

그런 낮의 흡날같은 검푸른 수평선 가녘으로 외딴 섬 하나가 방금 저쪽에서 떠내려 온 것처럼 그에게 새로운 화신(確信)으로 내다보였다.

그때였다. 저쪽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가까이 오는 늙은이가 있었다. 타고난 병신이 아니라 먼 바다로 나간 지난 시절, 사나운 고기로부터 다리 하나를 먹힌 뒤 죽을 고비를 넘기고도 명(命)이 질겨서 의족(義足)에 의지하는 사람이었다.

"내가 풍어제 제주(祭主) 노릇을 열두 번도 더하였으나 이제는 퇴물이 되어 바닷가에 밀려 온 감태 줄기만도 못한 신세라오. 헌데 대사가 바라보는 저 섬은 물 한 방울 없는 곳이라오. 건너 가다가 물귀신의 놀이개가 될 수 밖에 없으니···하기야 죽을 터이면 저런 곳에 가서 수장(水葬)되는 것도 썩 좋을 것이여."



그림 · 최규일

늙은이는 권히 허드레 그물 한 다발을 어깨에 메고 한쪽 다리를 기웃 등대며 갔다.

인담은 섬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내가 건너가 볼 일이다. 천축(天竺: 印度)의 해수관음(海水觀音)이 보살펴 주실 터이니···"

그는 늙은이가 오던 곳으로 더 올라가 낡은 조각배 하나를 대강 지레짐작으로 점검한 다음 그 배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알 바 없이 그것을 파도 위로 밀어내어 기기에 덜렁 탔다.

온통 파도에 얻어맞아 그야말로 '비맞은 중'의 몰골이었다.

언제 삿대를 잡아본 적이 있었던가.

그러나 그는 전생에 사공 노릇이라도 실컷 해 온 것처럼 능청맞게 삿대를 노로 삼아 저어갔다.

파도 한 덩어리에 부딪칠 때마다 노를 꼭 쥐었던 것이다.

그렇게 해서 물귀신이 나온다는 소용돌이 입대를 용케 건너서니 섬 물레에서 유일하게 포구가 될만한 아늑자늑한 갯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만하면 전생(前生)의 나와 현생(現生)의 내가 오랫동안 머물만한 곳이 아니랴. 중이 산에만 모여들면 바다가 가벼워지니 내가 무거운 산과 가벼운 물을 달래어 중도(中道)를 이루지 못할 바 그 무엇이리. 여기서 사람이나 뭇 중생이 지닌 욕계삼욕(欲界三欲)이나 어루만져 티끌로 만들어보리'

이렇게 시작한 무욕도의 독신생활이 인담의 자연스러운 나날을 이루었던 것이다. 간혹 물으로 건너가 양식을 구해 오거나 시를 쓰기 위한 지필묵을 구해올 때 그 곳 사람들을 만나도 인담의 수행 때문인지 그의 푸릇푸릇한 기운 때문에 그것을 신선이나 귀기(鬼氣)로 느끼는 백성들의 본능이 인담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였던 것이다.

그런 섬의 독신승이 한 낭자를 데리고 섬에 건너왔으니 태안반도 일대의 어촌마다 심심하던 차에 주고 받을 얘기 거리가 족해진 것이다.

"신선이 짝을 데려 왔다네."

"신선도 음양의 이치를 따르는 법이 아닌가."

"아무도 없는 섬에 단물이 운우지정(雲雨之精)을 나누는 맛이란 어디 그것을 굴맛 따위에 비할 것인가.」

"그러고 보니 그 대사가 음흉하기는 산 닭을 죽었다고 잡아먹을 만하지."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다가 어느날 밤 바닷가에 일제히 불을 놓아 섬의 남녀가 놀라도록 하였다. 그런데 놀라기는커녕 섬의 바위등성이에도 생나무를 찍다가 불을 놓아 불에 맞불을 놓으니 그때에야 어둠 속의 바다가 두 불빛에 물들어 이제까지 없었던 아름다운 광경의 장관(壯觀)을 이루었던 것이다.

"신선님! 내내 복되소서!"

"···"

"대사!복되소서!"

"···"

"신선님 우리 뱃놈들, 고기잡이 상것들 부디 안태(安泰)토록 살펴주소서!"

그곳은 물쪽이 아니라 난바다 쪽이어서 사람들의 눈에 띄기 어려운 곳이었다. 바로 그곳에 배를 매어두고 섬의 모감주나무 숲과 소나무 숲 그리고 소사나무 물참나무 갈참나무 숲 속으로 빨려 들어간 것이다.

인담은 이 섬이 전혀 낯설지 않았다.

'그렇지. 저쪽에 응달샘이 숨겨져 있을 것이야.'

과연 그 섬 동남쪽 골짝의 머루와 인동 덩쿨로 얽혀진 곳을 살펴보니 맑은 물이 아무도 몰래 솟아나 흐르고 있었다.

바로 그 샘 부근의 육덕(肉德)을 자랑하는 것 같은 넓적한 바위가 비탈져 있는 데 거기에 갈매기가 쌓아 놓은 똥으로 두꺼운 바위 표피층을 이루고 있었다.

밤바다는 그런 뭍 쪽의 소리 뒤로 조용해졌다. 파도도 한동안 쉬는 것인지 사위어 가는 불빛에 그 파도의 출렁 거리는 반사(反射)를 그만 두고 있었다.

새벽이었다. 닭 울음소리가 뭍쪽에서 들리지 않고 바다 복판에서 들리고 있었다.

낭자가 귀를 가다듬었다. 바다 수평선 너머에서 건너오는 소리였다.

"스님! 닭 우는 소리가 바다 저쪽에서 들리는 데 왠 까닭이어요?"

"그것은 말입니다···그것은 청(淸)나라 청주(靑州)의 닭이 우는 소리가 바다 바람의 방향을 타고 여기까지 들려오는 것입니다."

"정녕 그럴수 있을까요? 청나라와 조선이 얼마나 큰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는데···"

"옛날 당나라에 다녀온 고운(孤雲)선생이 그가 공부하던 곳을 그리워 해서 군창포 앞바다 자천대(紫泉臺) 바위 위에서 글을 읽으면 중국의 선비들이 그 글 읽는 소리를 듣고 그 글을 따라 읽었다 합니다."

"먼 데와 가까운 데가 물이 아니로군요."

인담은 새벽의 푹신 젖은 습기의 바다 기운 가운데서 입술이 짭짤해지는 것을 즐기는듯이 빙긋이 웃음을 머금었다. 사람도 꽃을 피울 때는 그렇게 피우는 것인가.

그래서인가, 저 아래 한 군데의 모래밭 귀퉁이에서 해당화가 활짝 피어 날 준비를 하는 개화직전(開花直前)의 긴장을 바다 위에 깔리는 먼동 빛으로 풀어내고 있었다.

인담이 낭자에게 말하였다.

"이제부터 그대와 나는 이 섬에서 부부가 되었소."

"···"

"그러나 우리는 하나의 갈대지붕 아래 이건만 서로의 몸을 건드리지 않는 공부로 사는 부부일 터이요. 우리의 자식은 법(法-진리)이지 여느 사람들의 그것처럼 아들 딸이 아니오."

"아"

하고 낭자가 짧은 감탄을 내뱉았다.

그것은 기쁨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영혼의 무정(無情)이었다.

"나는 고려국 임춘선생의 시를 뭍의 선비들에게 전한 뒤로 할 일이 있오. 바로 그 일을 그대도 일념(一念)으로 도와주기 바라오."

"스님의 말씀대로 하오리다."

인담은 〈서하문집〉을 펼치며 껄껄 웃었다.

"아직 나는 그대를 이곳으로 모시는데 빚을 지고 있음이오. 그 빚을 갚을 길이 열렸소이다."

"스님?"

하고 낭자가 햇빛을 받은 이른 아침의 얼굴로 꽃다워졌다. 그것은 놀라운 변화이기도 하였다.

"우리는 공부로 사는 부부일 터이요" 그녀는 고인물처럼 고즈넉하였다

그러나 인담은 그런 아름다움에 심상(尋常)하였다. 임춘의 시 몇줄을 흙어보다가 저으기 읊어보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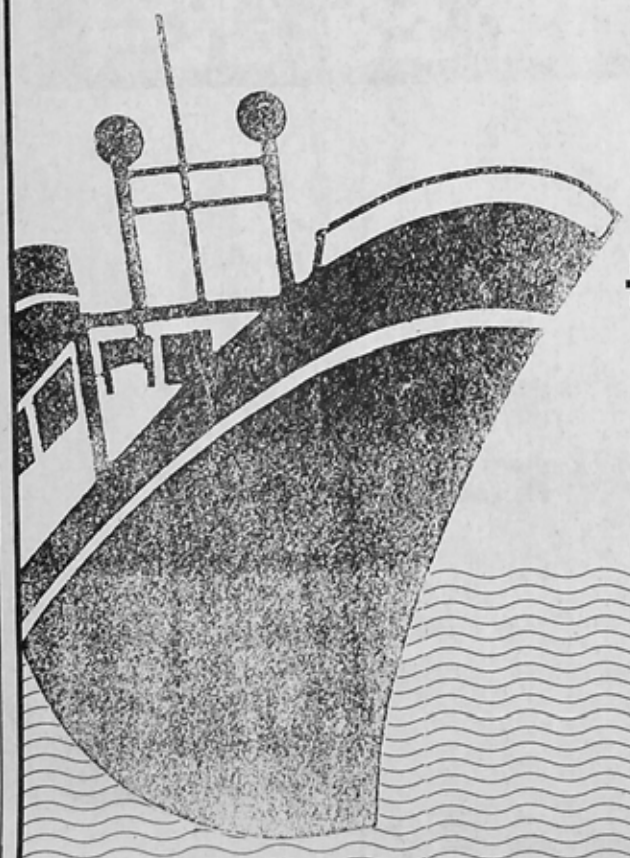
싸락눈 말안장에 허옇게 쌓이고
채찍을 드는 곳에 몇산이나 푸르렀느뇨
(踏雪行衡散雪白
擧鞭吟數亂峯靑)

인담은 무릎이라도 치고 싶도록 시「겨울길(冬日途中)」의 이 구절에 감동하였다. 고려 인종 말엽 무신 정중부(鄭仲夫)의 군사반란 당시 가까스로 화를 면하여 궁핍으로 생애를 마친 시인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채찍을 들어 그것으로 산봉우리 푸르름을 뽑아내는 대목은 전율(戰慄)이었다.

인담의 곁에서 낭자 우녀는 결코 미친 여자가 아니었다. 실로 고인 물처럼 고즈넉하였다. 그러나···

(주) 혜 인 · 동아디젤상사



선박 엔진의 모든 것
동아 디젤 상사에 맡겨 주십시오.

최고의 엔진 · 최고의 성능,
(주)해인
—동아 디젤 상사—와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동아 디젤 상사의 선박 엔진은 세계 최고의 기술로 만들어진 엔진입니다.
—판매에서 AS까지 성기는 자세로 고객을 대합니다.
—엔진의 성능은 곧 선박의 선능입니다.
—안전 운항 · 쾌적 운항, 동아 디젤이 돕겠습니다.

(주) 혜 인
동아디젤상사
DONG-A DIESEL CO.
부산시 영도구 남항동 1가 22
TEL:(051)415-1250~1
(051)415-1432
FAX:(051)415-1461

CAT

집안에 부처님 모셔도 "괜찮을까"

재가불자 불단 설치 놓고 이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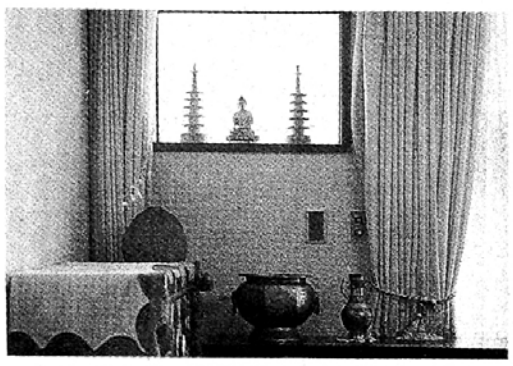
가정에 불단을 마련하느냐 아니면 집안에 불상을 모시지 말아야 하느냐라는 논란이 재가불자들 사이에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반된 의견은 최근들어 불교가 생활 속에 용해되면서 제기 되었다. 그 동안 민가에 전래된 불교는 집안에 불상을 모셔서는 안된다는 의식이 강했다. 따라서 불자들은 부처님께 예경을 하기 위해 산속의 사찰을 찾아야만 했다. 바쁜 현대사회에서 매일 사찰을 찾기는 어려운 일이다. 가정불단의 찬반 논란은 여기에서 표면화 되었던 것이다.

집안에 불단을 마련하고 매일 예배를 갖는 방송작가 윤청광씨는 "신라시대 집집마다 불단을 차려놓고 집안에서 예불을 모셨다는 기록이 있다"며 "집안에 부처님을 모신 이후 마음의 평안을 얻었고, 가족 모두가 하루하루 무사히 본분을 다한 데 대해 감사할 줄 알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일본을 비롯 태국·버마·스리랑카 등의 불교국가들은 집을 지을 때부터 불단을 마련하고 매일 예경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가정불단 만들기는 대중불교운동을 펼치는 한국불교대원회(이사장 박윤흔)를 주축으로 10여년전부터 꾸준히 펼쳐지고 있다. 대원회는 '집집마다 부처님을 모시자'는 캠페인을 내걸고 가정불단 마련하는 방법, 가정에서의 예불, 서돈각박사등 불교계 원로들의 가정불단 소개 등을 통해 가정불단의 필요성을 꾸준히 역설하고 있다.



◇ 한 불자가정이 응접실 창가 유리문 상단을 비워서 마련한 불단. 불자들은 가정불단에 대해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이에 반해 아직도 대부분의 불자들은 집안에 불상모시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

일상생활 속에서 부정한 생활을 배제하기 어렵고 여기에 부처님을 모셔 도리어 화를 부르지 않을까를 염려해 가정불단이 터부시 되어 오고 있다. 또한 자칫하면 불상을 집에 모셨을 때 기복·타력신앙으로 흐를 염려가 있고 일상을 구속하는 또 하나의 집착을 낳을 가능성을 우려한다.

능인선원 15기 회장 구필회씨는 "그렇지 않아도 많은 불자들이 부처님께 복·건강·합격·승진 등을 비는 경향이 있고, 이것도 모자라 부적을 몸에 지니기까지 하는 일이 허다하다"며 "항시 팔정도를 신행의 지표로 삼는 경우라면 마음속에 불상을 모시고 있으니 구태여 따로 모실 까닭이 없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기복에 흐르기 십상이니 가정에 불단을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계사 부근 불구상가에는 한달에 1~2명의 재가불자가 가정불단을 차리기 위해 불상을 찾고 있다. 가정불단은 불상, 불감을 비롯 관음보살도 등의 불화, 반야심경등의 경전 등이 이용되고있다.

〈엽〉

독자토론

가정 불단

찬성



윤선덕화

부처님과 늘 함께 …가르침 생활화

각 가정에 불상을 모시는 일은 내 마음에 부처님을 모시는 일만큼이나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다. 현재 불자들의 가정에 보면 불상은 아니더라도 부처님 사진이나 「불」자 표구를 많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자칫하면 벽면을 장식하는 장식물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

소승 불교권인 나라에 보면 각 가정에 불단이 마련되어 있어서 특별히 공양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음식이나 예쁜 꽃을 올려 예불 드리고 있다.

이것은 꼭 부처님에게 한다는 생각보다 내 마음의 어른이시고 내 가정의 어른에게 인사 드린다는 의미가 더 깊다.

점차 핵가족화되어가는 우리의 가정에는 참어른이 없다.

아버지는 돈 벌어오는 사람이고 어머니는 돌아다니는 사람이 되고 있어 아이들의 웃사람 노릇을 하는 현실에서 반드시 집안에 불단이 있고 부처님이 모셔져야 한다.

아침에 직장이나 학교에 가기 전 불단 앞에서 조용히 인사를 드리고 가는 광경은 몹시 흐뭇하다.

"부처님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시험 입니다. 제가 아는 것을 다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처님 다녀 오겠습니다.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하는 하루 인사는 마음을 평화롭게 한다. 어려운 일이 있을때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지나치거나 교만하여 다른이의 마음을 다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하는 언어는 마음의 때를 벗게 한다.

이런일들이 가정에서 시작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단이 필요하다. 불상이 작고 크고가 문제가 아니다. 부처님을 모셨을 때와 안 모셨을 때 마음의 차이인 것이다. 요즈음은 모두가 바쁘다고 하다. 너무 바빠서 법회에 나갈 시간도 없다고 한탄 한다.

부처님은 꼭 법당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다. 내 집에 모셔 놓으면 내 집이 법당이 된다. 내마음에 모시면 내가 곧 법당이다.

우리 모든 불자들이 한분씩 부처님을 모시면 온 세계가 자비로 가득한 법당이 될 것이다.

〈주부·서울 노원구〉

다음 독자토론 주제는 「부적」 입니다. 12월 3일까지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이동현

자성불 외면한 타력신앙 우려

불교신도의 수가 증가하면서 여러 신자들의 종교생활 모습도 다양해진 것이 요즘의 현실이다. 그 중 개인의 집에 불상을 모셔놓은 불도들이 있어 불교의 본질을 되돌아보게 한다.

재가불단은 그 신심의 진실됨 여부에 관계 없이 불교의 본질에 어긋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첫째, 개인의 집에 부처님을 모셔놓음으로써 부처님을 섬기는 듯한 왜곡된 종교생활을 초래할 수 있다. 불상이 본래 부처님이 아님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불상은 다만 의심 많고 마음 약한 인간에게 신심을 불어 넣어주기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재가불단은 자칫 부처님을 우상화하게 되고 결국 자기 안의 부처를 찾아 깨달음을 얻는 그 본질로부터 벗어난 종교생활로 흐를 우려가 있는 것이다. 부처님은 모셔놓고 섬기는 대상이 아니다.

둘째, 집에다 불상을 모셔놓은 그 자체로써 야기되는 문제점을 간과할 수 없다. TV, 오디오, 비디오, 쇼파, 가구 등 집기가 많은 현대 우리의 집안 어디에 불상을 놓는단 말인가? 가정 집기들 사이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앉은 불상은 아무래도 그 경건함을 갖기가 어렵다.

하나의 방에 따로이 불단을 마련한다해도 문제는 피할 수 없다. 그것은 어떤 신당이나 굿당을 연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신당이나 굿당의 이미지는 진정한 불교로서의 종교생활과 연결될 수 없다. 결국 재가불단은 그 경건함이나 본질 면에서 왜곡을 드러내게 된다. 현대는 조선시대처럼 몰래 혼자서만 부처님께 절하는 시대가 아니다. 자유로이 절에 가서 마음이 같은 여러 신도들과 함께 찬불가도 부르고 부처님께 공양도 올리며 즐겁고 활발하게 종교생활을 할 수 있다. 훌륭하신 스님들의 법문을 들으며 지혜와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고 마음의 때를 닦아낼 수도 있다.

요즘은 현대인의 생활리듬에 맞춰 주말법회를 여는 절도 늘고 있다. 일상 속에서 마음이 흐려질 때 절에 찾아가 예불함으로써 느낄 수 있는 마음의 청정함을 재가불단에서 만분의 일이라도 맛볼 수 있을까?

참된 의미의 생활불교는 불·법·승 삼보와의 조화 속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신심과 신행의 조화 속에서 종교의 참된 가치를 찾아야 할 것이다.

〈회사원·천안〉

만 화

法句經 법구경

○대구(對句)의 장○

수양없는 마음에는 탐욕의 손길이

이 향 원



한장의 佛字가 가정과 불교를 일으켜 세웁니다.

대동불교예술대학 학사건립을 위한 2천만 佛字 보급

"불자님의 정성어린 동참이 한국불교의 숙원을 이루는데 큰 힘이 됩니다."



"
본 佛事는 교육을 통한
한국불교의 중흥을 애타게 염원하는
스님의 뜨거운 구도의 열이
빚어낸 역사입니다.

2천만장의 장대한 서원
오직 佛字만을 화두로 잡은 용맹정진
오늘도 그의 붓끝에는
새벽 안개처럼 밝은 향기가
피어나고 있습니다.
• 작품 : 無佛스님(무량사 주지)
"



교계유일의 예술대학

본 대학은 88년 개교이래 불교교육 연구와 인재양성, 부속연구기관설립 등 대학으로서의 내실을 다져온 교계 유일의 종합예술 대학입니다.
앞선 교육이념, 철저한 교육관리와 뛰어난 교수방법으로 미래 한국불교의 주역을 양성하는 저희 대학의 노력을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더욱 넓은 세계로 웅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요.

불사에 동참하시게 되면

▶ 동참자의 모든 작품에는 『대동불교예술대학 학사건립 동참기념 일련번호』가 기록되어 작품의 희소가치를 입증시켜 주고 있습니다.
▶ 회망시에 동참자의 이름도 작품에 넣어 드립니다.
▶ 일련번호 따라 동참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대학 본관 주춧돌에 새겨서 그 뜻을 길이 남기게 됩니다.

문의: ☎ 725-7527

주부를 위한 『가야금·판소리』강좌

주부들의 음악적인 정서함양과 예술의 전문성을 살리고자
초보자 및 중견 연주자를 대상으로
개인별 실기지도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 개강: 매주 화·목요일 오후 2시~4시(수시접수)
▶ 장소: 본원 가야금 연습실
▶ 회비: 월 8만원
▶ 특전: 개인의 희망에 따라 별도의 연습시간을 협의, 보충지도 가능

대동불교예술대학

국악과 / 가야금합주단 /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단

대동불교예술대학 후원회

■ **예술대학**: 불교학과/유초등교육학과/음악과(작곡·피아노·성악)/국악과(기악·타악·성악) (02)725-7527 ■ **교육연구소**: 법회교육연구부/시청각교육연구부/불교음악연구부/법회조직연구부/교육행정연구부 (02)725-7529 ■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단**: 자격-국교3, 중2학년/특정-음악전공자 개인별지도/대주토·일/수시등록가 (02)723-1525 ■ **청소년가야금합주단**: 자격-고등학교 1학년, 2학년/특정-예대진학지도중심/매주 화·목/수시등록가능 (02)723-1528 ■ **주부가야금반**: 자격-초급, 중급, 고급의 일반주부/특정-개인지도 실시/매주 화·목/수시등록가능(02)723-7528

새로 나온 책

▲신라불교 사상사연구(김영미 지음)=신라불교 대중화에 크게 기여한 아미타신앙과 여래장사상을 통해 신라인들이 불교적 세계관을 어떻게 받아들여 생활화했는지를 삼국유사와 금석문에 나타난 신앙사례를 분석해 밝혔다. 저자의 박사논문인 이 책에서는 또 원효의 불성론과 아미타신앙의 관계를 분석, 신라불교가 선종사상과 괴리되지 않았음을 살폈다. 민족사, 1만2천원.

▲이와같이 나는 들었다(암도 지음)=전 조계종 포교원장으로 20년간 포교에 헌신해온 암도스님의 생활불교 지침서. 어느때 어떤 경전과 다라니를 독송할



것인지, 석가모니와 대승보살들의 지혜의 법문, 인연과 인연법문 등 모두 4부로 구성했다. 우리출판사, 6천원.

▲흰학의 울음소리(불교전기문화연구소 엮음)=조선의 고불로 추앙받아온 학명선사의 일대기. 선사의 생애와 사상, 어록, 독특한 선풍을 이룬 학명선을 조명하고 있다. 아울러 유고집인 백농집과 일본 임제종 관장 종연선사와 거량한 선문답과 선시, 백양산가 등 16수를 발굴, 수록했다. 불교영상회보사, 6천원.



▲새 불교 원초불교(아잔 차 외 지음)='마음 길들이기' 등 그동안 소책자로 발행돼온 10편의 글을 수행편(1)로 묶은 남방불교의 수행지침서. 남방불교에서 불교수행 지침의 근간으로 삼고 있는 '염신경'도 실었다. 김용호 외 옮김, 고요한소리, 6천원.

▲수행합시다(현음 지음)=한국불교의 전통적인 대승선에 위빠사나 수행법을 접목시킨 선수행 지침서. 송광사수련원 지도법사를 지냈던 현음스님의 유고집으로 불일회보등에 연재했던 '5일 동안의 수행' '실제적인 수행을 위한 지침' 등의 글을 묶었다.

"불교도 재미있게 공부해요"

교리 시리즈·퀴즈대장경 눈길···만화도 한몫

'불교란 무엇인가.' 초심자는 물론 불교를 돼나 공부한 사람에게도 이같은 의문의 충동이 인다. 불교가 어렵다라는 반증이겠고, 다른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자기확인을 요구하는 불교의 속성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최근 잇따라 출간되는 〈재미있는···〉 시리즈가 이같은 우문에 대한 현답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불교공부도 재미있게 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어 주목된다.

'재미있는'을 책제목의 머리에 이고 나온 책서는 〈재미있는 불교공부〉 〈재미있는 인과이야기〉 〈재미있는 선이야기100〉 등이다. 이밖에 문답으로 불교를 배우는 〈퀴즈대장경〉(불지사)과 〈만화화엄경〉(불교만화사)을 비롯한 만화경전시리즈, 〈만화로 보는 부처님의 십대제자〉 (우리출판사) 등을 불교공부를 재미있게 이끄는 불서로 꼽을 수 있다.

이같은 제목붙이기와 새로운 형태의 불교입문서는 불교를 알고 싶어도 어렵다는 선입관을 갖고 주저하는 독자들을 부르는 손짓으로 풀이된다. 또 경전류 법어집 들과는 달리 가벼운 마음으로 불교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알려주는 이정표로서의 역할을 갖는다.

한편 '재미있는' 시리즈가 불교의 대중화와 교리의 체계적인 이해에 도움이 되고 있음은 분명하나 너무 간략한 설명으로 자칫 포괄적인 불교 이해를 방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불교를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불서 출간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2월에 출간돼 두 달만에 3쇄를 기록하며 독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재미있는 불교공부〉(세민 지음)는 불교시대사의 '재미있는' 시리즈를 대중화시킨 입문서이다. 이 책은 '부처님과 그 제자들' '경전의 세계' '중요한 교리' '업보와 윤회' '불자의 수행' '불교와 문화' 등 6개장으로 나누고, 각 장을 17~23개 항목으로 분류해 1~2쪽 분량으로 설명하고 있다.

각 항목의 원어인 산스크리트어 풀이를 통해 원뜻을 밝히고, 경전의 용례를 들어 뜻풀이를 했다. 여기에다 신앙적 의미, 현재의 사용관례를 밝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불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용어 가운데 하나인 '무상'의 경우, 자칫 생명의 덧없음 즉 허무의 뜻으로 즐겨 쓰고 있음을 지적하고 "모든 것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변해 가며, 변화하는 현상을 초월한 고정적인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현실파악이 불교의 출발점이 되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나아가 "무상하기 때문에 인간이 노력하여 변화·향상할 가능성도 보이는 것"이라는 적극적인 의미를 전달한다.

〈재미있는 선이야기 100〉(지우 편저, 불교시대사)은 〈벽암록〉 〈무문관〉 등 선어록에서 선문답을 발췌해 선을 통한 불교입문의 길을 열어보인다.

선은 상식이나 논리를 넘어선 것이므로 일반인들에게는 어렵다라는 생각을 갖기 이전에 우선 당황스럽다. 그러나 이 책은 논리와 합리성에 깊은 함정이 도사리고 있음을 발견케 해준다.

'차나 한잔 마시게(喫茶去)'는 조주스님의 유명한 화두다. 찾아오는 누구에게나 '차나 한잔 마시게'라고 인사했다. 이 말에 존재의 근원에 대한 부철하고 깊은 선적인 의미를 담고 있음을 재미있게 풀이하고 있다.

〈퀴즈대장경〉은 불교방송의 인기프로그램 '퀴즈대장경' 문제를 책으로 엮은 것. 부처님의 생애와 경전, 한국불교의 큰스님, 불교문화 등 8개장에 5백여 문제와 정답, 간단한 해설을 결들인 일종의 불교상식·불교입문서이다.

〈재미있는 불교이야기〉(대문엮음, 열린불교)는 사성제, 석가모니 부처님, 불법승 삼보, 팔정도·불성·보현행 등 불교의 기본교리와 실천지침을 경전의 가르침과 설화, 현실에서 차용한 비유로 풀이했다. 초심자 또는 불교에 대한 궁금증을 가진 사람들의 안내역을 하고 있다. 책 뒷부분에는 250여 항목에 대한 색인표를 달아 독자들의 편의를 도우는 성의있는 편집 태도를 보였다.

〈재미있는 인과이야기〉(여래)는 경전과 사찰설화 가운데 인과와 관계된 50편을 가려뽑아 '인연의 장' '윤회의 장' '지혜의 장'으로 나눠 엮었다. 불교의 기본교리인 연기법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정성운 기자〉

명사추천 불서100선

조주록

늦깎이 공부길 안내에 발심



조 달 공 〈서울불일회장〉

벌써 20년전의 일이다. 내가 구산 큰스님을 뵈었을 때, 곧바로 선공부를 말씀해 주셨다. 그때부터 서울 법련사에서 철야정진이란 명분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참선공부를 시작했다. 몇몇 거사들이 주축이 되어 풋나기 수행인 답게 꼬박꼬박 빠짐없이 이어나갔다.

구산스님의 지시대로 좌선 이외는 불경같은 것은 볼 생각도 안했다. 게다가 주안 용화사 송담스님 법문을 들어도 화두 참구하는 법 이외는 불서 한권 소개하는 일이 없었다. 고작 일년에 한번씩 법보시로 나눠주는 〈선가귀감〉 정도였다. 따라서 내 서가에는 〈선관책진〉 〈신심명〉 〈증도가〉 정도의 몇 권이 전부였다.

그후 어떤 인연으로 건국대학교에 재직 중인 이영무교수의 불경 강의를 듣게 되었다. 이 교수님의 강의에 나는 하도 심취하게 되니 난해하던 불경도 제법 풀려가는 느낌을 갖게 되었다.

지금의 나의 서재는 대학에서 전공하던 불란서문학은 좌천을 당하게 되고 그 대신 불서들이 군림하게 되었다. 그중에는 불어불경, 영어불경도 몇 권 끼어 있다.

좌선과 불경공부를 아울러 하자니 그 만큼 바쁠 수밖에 없다. 말하자면 선교를 양립시킨다는 그런 뜻을 굳이게 뭔 셈이다.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 생각된다. 불교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이런 방법이 필요한 것으로 믿게 되었다. 아직은

선상다리 동여매어 쓴 일화에 감동

한문실력이 딸려서 비록 번역이나 대역본을 읽을 수밖에 없지만 나도 원서를 볼 수 있는 시기가 머지않아 오기를 바라고 있다.

내가 불교와 인연을 맺은 것은 청소년기였지만, 발심은 비교적 늦은 50대가 되어서 였다. 나는 처음 조주록(趙州錄)을 대하고, 한가지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다. 60세에 입산한 조주스님에 비하여 나도 때가 늦지 않다는 확신이 있다. 더욱이 인도의 협존자(脇尊子) 같은 분은 80에 발심하여 도를 이루었다고 하지 않는가.

공자님도 불치하문(不恥下問)이라 하셨듯이, 조주스님도 '일곱살 어린이에게도 배우겠노라' 하였다. '활도로 학도로(活到老 學到老)'란 말이 기억난다.

스님은 생애를 통해 청빈낙도가 몸에 밴, 그런 선사의 한 분임을 실감할 수 있다. 부러진 선상다리를 부지깽이로 동여매어 쓴 일화는 너무도 유명하거니와, 조주록 계송 가운데 십이시가(十二時歌)는 스님이 120세까지 얼마나 가난한 수행으로 정진해갔는지 우리의 눈시울을 뜨겁게 한다.

"닭이 우는 축시(丑時)
· · · · · ·
군자(君子)도 관삼(橫衫)도 하나 없고,
가사(袈裟)는 형체만 겨우 남았네,
속옷에는 허리가 없고, 바지에는 주둥이가 없네.
머리에는 푸른재가 서너말,
도 닦아 중생구제 하렸더니
이 골로 변할 줄을 그 누가 알았으랴"

조주스님의 끽다거(喫茶去)는 모르는 이가 없다. 하지만 이 해석은 구구하다. '차나 한잔 들고 가게' '차갑에 가서 차나 한잔 마시게(그리고 정신차리게)' 등등.

도를 구하려 불원천리 찾아오는 남자들에게 선사가 건네는 표현이다. 일찍이 차와 선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 왔다. 각자는 공부의 정도만큼 그 풀이의 심도도 깊고 얕은 것이다.

보조·태고어록 색인집 준비

내년 2월출간···2백부 한정판

보조 및 태고어록 일자색인과 항목 색인집이 95년 2월 출간될 예정이다. 보조어록 일자·항목색인은 정혜결사문과 수심결 진실직설을, 태고어록 일자·항목색인은 원돈성불론 간화결의론을 텍스트로 삼았다.

이 작업에는 중앙승가대 전산원장 김용철교수와 이태승씨(동국대 경주캠퍼스 강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성본스님(중앙승가대교수·불교학)과 종법스님(중앙승가대 도서관장)이 자문에 응하고 있다.

일자·항목 색인은 특정한 글자 및 항목이 저술 중 어느 곳에 어떤 개념으로 쓰였는지, 특정한 항목에 대해 저술자가 어떤 뜻으로 사용했는지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한 일종의 어록 글자 사전이다.

일자색인 및 항목색인집 발간은 교계에서는 처음으로, 불교학연구의 필수적인 기초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생태주의운동 자료집 발간
불교환경교육원

사단법인 한국불교환경교육원(이사장 법륜)은 지난해 실시한 '생태주의 운동의 사상 모색강좌(1)'를 자료집으로 발간했다. 이 강좌는 불교를 비롯한 동양철학 내부에서 환경과 생명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모색하고자 실시되었다. 수록된 논문은 다음과 같다.

△동양사상에서의 환경의식/유승국(전 정신문화연구원장) △노장철학의 세계/송항용(성균관대교수·유학) △노장철학의 자연관/이강수(연세대교수·철학) △불교사상과 환경문제/전재성(한국불교대교수) △불교사상에서의 생명문제와 세계관/법륜 △힌두이즘의 우주관과 자연관/김용정(동국대교수·철학) △동학에 나타난 자연관과 세계관/임운길(천도교 종무원장) △유학에서의 정치와 자연관/최영준(성균관대교수·유학) △주역에서의 자연관/곽신환(숭실대교수·철학) △한국의 전통속에 나타난 환경윤리/최근덕(성균관장).



고 선원빈국장 추모문집
다음달 불지사에서 펴내

선원빈 전법보신문 편집국장 추모문집이 다음달 불지사에서 발간된다.

20여년을 불교언론 발전에 몸바쳐온 고인의 넋을 기리고 후배들의 귀감으로 삼기 위한 문집 발간은 유족과 불교언론 선후배, 지인들이 함께 하고 있다.

문집에는 고인이 법보신문에 연재했던 '인사동칼럼'을 비롯해 불교의 오늘과 내일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조망한 '불가의 신풍속도', 학창시절(동국대 국문과) 동대신문에 발표했거나 미발표작 시와 단편소설, 이와 함께 시인 고은, 목정배교수(동국대), 박경훈 전 역경부장 등 지인 20여명의 추모글이 실린다.

21세기 불교아카데미
곧 단행본으로 출간

한국불교사회연구소(소장 이남곡) 올해 5월부터 개최한 '21세기 불교아카데미'와 '21세기모색 아카데미' 강좌 내용을 단행본으로 꾸며 이달 중순 펴낼 예정이다. 강좌에는 박광서 교수(서강대) 현능스님(사천왕사 주지) 배영순교수(영남대) 등이 '불교사상의 세계화' '지방화 시대, 지역사찰의 위상과 역할' 등을 주제로 강의했다.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분류
1	자네, 도가 뭔지 아나	효림	대원정사	수상
2	선문선답	오현	장승	선명상
3	위빠사나	김열권	불광	선명상
4	부처님 땅	이정법 외	불지사	아동
5	만화 반야심경	임기준	불교만화사	아동
6	영원한 나를 찾아서	혜원	글수레	법어
7	백일법문	성철	장경각	법어
8	마음의 향기	성우	토방	문학
9	사랑하는 날	현진	해인사출판부	수상
10	진흙소리의 울음	경허	홍법원	법어

구입문의:(02)737-0695

신간
신비의 영부적대사전
김백만 편저
지금 절실히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렸든 지금 시험을 치르고 주택을 사고
주식을 팔려고 하는 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이 책을 펴쳐 보십시오.
부적을 집대성하여 최초로 공개하는 비밀스런 책입니다.
당신에게 요긴한 책이 될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도
바뀔 것입니다.
선현들의 예지를 본받아
생활할 줄 아는 사람이
참으로 가치있는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전국 유명 서점에 있습니다.
신국판/800쪽/값 35,000원


관음 역서 시리즈
1 내가 푸는 내 운명 감정 소프트 상·중
각권 값 9,000원
2 재미있는 오행철학으로의 여행
값 12,000원
3 관음 소프트 만세력
값 8,000원
관음출판사 전화/921-8434 팩스/929-3470

1995학년도(전기)
대학원 신입생 모집
불교대학원(야간) ☎ 260-3097·8
1. 모집과정 및 전공 : 석사·연구과정
가. 불교학과 : 불교학·선학
나. 불교사학과 : 불교사·예술사
다. 불교사회복지학과 : 사회복지학·포교학
2. 원서교부 및 접수 : 1994년11월7일(월)~11월21일(월)
3. 전형일시 및 방법 : 1994년11월24일(목) 14 : 00
석사과정 : 영어·전공·면접
연구과정 : 서류전형·면접
4. 특 전 : 조계종재적승려·공무원은 소정의 장학금 지급
■ 관리자과정(야간) ■
1. 지원자격 : 조계종의 대덕법계품수승려·각 종단의 간부
각 신행단체의 간부 및 대표·신심이 돈독한자
2. 원서교부 및 접수 : 1994년11월7일(월)~11월21일(월)
3. 전형일시 및 방법 : 1994년11월25일(금)13 : 00 서류전형 및 면접
4. 특 전 : 조계종재적승려·공무원은 소정의 장학금 지급
교육대학원(야간) ☎ 260-3109·10
1. 모집과정 및 전공 : 석사 및 연구과정
가. 교육학과 : 교육행정·교육경영·상담교육·유아교육
나. 교과교육학과 : 국어·지리·역사·수학·윤리·철학·미술·한문·체육·영어·물리·화학·생물·가정·전자계산·종교교육·중국어교육
2. 원서교부 및 접수 : 1994년11월14일(월)~11월25일(금)
3. 전형일시 및 방법 : 1994년12월3일(토) 14 : 00, 서류전형·면접 및 전공구술
4. 특 전 : 교육기관의 교사, 공무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며 경력을 감안하여 전형시 가산점 부여
문화예술대학원(신설·야간) ☎ 260-3605·7
1. 모집과정 및 전공 : 석사과정 및 연구과정
가. 문예창작학과 : 문예창작
나. 연극영화학과 : 연극·영화영상
다. 불교예술문학학과 : 불교미술·불교음악·문화제
2. 원서교부 및 접수 : 1994년11월28일(월)~12월9일(금)
3. 전형일시 : 1994년12월16일(금) 15:00
4. 전형방법 : 구술시험, 면접
5. 기 타 : 상세한 사항은 문의바람
■ 문화예술관리자과정 ■
1. 지원자격 : 풍전작가·언예인·불교예술인 및 문화예술기관 간부
2. 원서교부 및 접수, 전형일시 : 연구과정과 동일
3. 전형방법 : 서류전형, 면접
동국대학교

단전호흡
한민족전통수련법인 단전 호흡은 마음, 몸, 정신을 건강하게 하는 수련으로써 누구나 꾸준히 수행하면 삼매의 경지에 이르는 수련 도법입니다.
단전 호흡은 조용하고 고르게 꾸준히 수련하면 정신집중이 잘되고 안정되며 단전에 힘이 모이므로 두통, 불면증, 소화불량, 변비, 기관지, 허리병, 어깨결림, 생년기장애, 숨가쁨, 손발저림등 각종 질환에 뚜렷한 효과가 있습니다.
■ 수련내용 : 단전호흡, 철산법, 신선기공 36동작
■ 약도

■ 문의처:(02)735-6795, 6796
韓國神仙道協會
會長 李海昌合掌

불심시심 〈4〉

허공의 딸꾹질

昔與桓因築鼻孔 (석여환인축비공) 옛날에는 하느님과 콧구멍을 쌓더니
今伴山僧解打空 (금반산승해타공) 지금은 중과 친구되어 허공을 치다
打去打來空自噫 (타거타래공자희) 쳐가고 쳐올 때 절로 이는 허공의 딸꾹질
一噓噓出滿堂風 (일허허출만당풍) '후유' 하는 소리 날 때마다 방에 가득한 바람.

이 시는 조선 초기 함허당(涵虛堂 · 1376~1433)의 시이다. 부채를 두고 지은 시이다. 선이 무엇이냐 했을 때 가고 머무르고 앉고 누움이 선 아님이 없다 한다면 이것은 바로 일상의 삶이 바로 선이라는 말이 아닐까. 그러함에도 선이다 하면 삶의 오묘한 어떤 깊이를 암시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일차적으로 받는다. 평범한 현실을 그 평범 이전의 것이거나 또는 평범 저 너머의 진리의 깨우침 또는 평범 저 너머의 진리의 깨우침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 그 자체가 바로 참의 모습이 아닐까.

위의 시는 여름날의 부채에 대한 평범한 소재요 부채 부침의 평범한 삶에 불과하다. 그러나 함허선사가 보는 부채나 부채질은 그 평범이 바로 우주질서의 한 부분인 것이다.

바람은 하느님의 콧구멍에서 피어나는 공기일 수도 있다. 이것을 측정해 두었다가 지금은 산승의 손에 들린 부채로 인연해서 때리는 허공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이다. 산승의 손끝에서 이쪽 저쪽으로 허공을 때리고 있다. 이때 허공은 이미 없는 매맞음에서 탄식할 수 밖에 없다. 이때 부는 바람은 허공의 딸꾹질이다. 이 딸꾹질에 방안에는 바람이 가득차고 이 바람으로 해서 스님은 시원하다 한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바람이 움직여서 오가는 것인지 부채가 오가는 것인지 정확한 표현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움직이기야 부채가 움직였지만 그 앞에 얼굴을 대고 있는 나로서는 바람이 오고 간다고 느끼는 것이요, 또 그 결과에 의해서 시원하다는 느낌을 받는 것도 바람이 시원하다 하지 부채가 시원하다 않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바람이 움직이는지 깃발이 움직이는지 마음이 움직이는 것인지 말하기 어려운 것이 진실인가 보다.

이 종 찬 〈동대교수〉

"바람소리를 그렸습니다"

자유 찾아 가는 무상의 여행 화폭에

여섯번째 개인전 갖는 하수경 교수

불교적 관심을 꾸준히 화폭에 담고 있는 하수경교수(전주대)가 여섯번째 개인전을 갖는다.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인사동 갤러리 「이존」에서 열리는 하교수의 이번 개인전에는 「바람소리」를 명제로 한 작품 20여점이 출품된다. 전시회를 앞두고 작품의 마무리 작업에 분주한 하교수를 그의 작업실에서 만났다.

— 오랫만에 전시회를 갖게 되셨군요.

▲ 92년에 다섯번째 개인전을 열었으니까 꼭 2년만이군요. 당시에도 「바람」이라든가 「새」를 명제로 한 작품을 내놨었는데 이번에 전시되는 작품들도 같은 주제의식으로 그려진 것들입니다.

— 바람이나 새등을 작품의 소재로 선택하신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특별하다고야 말하기 어렵지만 누구나 자신의 세계에 대한 일관된 주제의식이 있지요. 89년의 인도여행 이후 저는 고정물에 대한 관심을 자유로운 것, 다시말하면 무상한 것으로 옮겨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람소리」 「새」 「물고기」등의 소재를 선택하게 됐어요.

— 그 소재들이 갖는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 한마디로 말한다면 자유입니다. 속박되지 않고 자유롭게 존재하는 것이죠. 바람소리란 있는 것이지만 볼 수도 잡을 수도 없으니 없는 것이기도 하잖습니까. 그 자유는 다시 무상이라는 인식의 세계로도 확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무상에 대한 관심은 인도여행이 저에게 준 커다란 화두같은 것이기도 합니다.

— 그림들이 좀 난해한데요.

▲ 그렇습니까. 화가로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을 표현했을 뿐입니다. 감상하는 분들에게 이해가 안 간다면 저의 책임이겠지요. 그러나 명제와 주제 그리고 소재가 갖는 유기적인 관계들을 찬찬히 생각해 보면 그리 어려울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 화가의 작품세계를 직접 감상객들에게 이야기 하는 자리를 미련하셔도 좋을듯 싶은데요.

▲ 그렇지 않아도 생각중입니다. 전시장에서 감상자들과 마주 앉아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 받을 수 있다면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도가 없는게 화단의 실정이고 보니 용기가 나지 않는게 제 심정입니다.

— 그림의 구상은 어떻게 하십니까.

▲ 원래 동양화는 머리 속에서 그림의 전체적인 구상이 무르익은 후에 단번에 그려내야 하는데 바쁜 생활은 그것을 허락치 않는군요. 그래서 생각이 떠오르는 대로 아무 종이에다 에스키스(밑그림)를 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작업실에서 작품을 그립니다.

— 재료는 어떤 것을 쓰시는지.

▲ 종이는 전주에서 나온 순지를 씁니다. 흙은 전주 벌판의 복숭아 밭에서 채취 해다가 씁니다.

— 거기에도 무슨 이유가 있는지요.

▲ 글쎄요. 신토불이라고나 할까요. 제 자신의 고향이고 추억이 서린 곳이 전주인데다 그곳의 종이와 흙이 좋기도 하고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전주에서 나온 종이와 흙으로 그림을 그리면 마음도 편해집니다.

— 앞으로도 무상에 대한 탐구를 계속 하실 계획인지요.

▲ 당분간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인도여행과 구산 큰스님과의 대화에서 얻은 「화두」가 아직 풀리지 않았으니까요. 무상에 대한 인식의 편린들을 바람소리와 물고기, 새들로 연결시키는 것은 인간의 원초적 자유를 찾아가는 저의 기나긴 여행이기도 합니다.

— 화가로서 또 불자로서 가지고 있는 소신이 있다면.

▲ 나의 일에 충실하는 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란 것입니다.

〈임연태 기자〉



◇여섯번째 개인전을 앞두고 작품에 마지막 손질을 하느라 바쁜 하수경교수.

불교음악의 대향연 성황

13개합창단 열창 · · · 무대연출 새로워

한국불교음악연구회(회장 · 반영규)가 마련한 「'94 불교음악의 대향연」이 지난 5일 KBS홀에서 2천여 관중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예불합창으로 시작한 이날 음악회는 불교계 작곡가 정부기씨 등 4인의 창작곡 20여 곡이 13개 합창단의 합창과 고소화, 오승희씨등의 독창에 의해 연주됐다. 또, 천안 동여자중학교 합창단이 특별출연해 '범종' '자장가'를 노래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음악회의 2부에서는 자유로운 사복 차림의 합창단이 등장해 사부대중과 함께 호흡하는 계기가 됐고, 김희경 곡 이건호 작사의 '지장보살송' 과 정부기 곡 '가없는 사람' '대각사 돌아가며' 등 3곡의 신곡의 찬불가가 발표됐다.



◇지난 5일 KBS홀에서 열린 불교음악의 대향연. 사복차림의 합창단이 눈길을 끌었다.

이형기교수 대산문학상 시부문 수상자로 선정

국내 문학상 가운데 가장 많은 상금이 수여되는 대산문학상의 시부문 수상자로 동국대 이형기 교수가 선정됐다.

이형기교수는 대한민국문학상, 한국문학작가상, 부산시 문화상, 윤동주 문학상등을 받았으며 〈눈베개의 시〉 〈꿈꾸는 한발〉등 다수의 시집을 냈다. 이번 대산문학상에는 이청준, 최윤, 파트리모뉘스씨가 번역상을 김우창씨가 평론상을 받았다.

"불교 전문예술극장을 세웁시다"

극단 바람, 기금마련 행사 · 공연도

불교극단 바람(대표 · 현장)이 「불교 전문 예술극장」을 건립한다.

극단 바람은 불교연극의 침체 국면을 벗어나 공연문화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불교 전문 예술극장」의 건립을 계획하고 기금 모금에 들어 갔다. 이 극장은 포교를 목적으로 하는 연극공연과 영화, 무용, 음악, 예식등 다양한 행사장으로 쓰이게 된다. 또 세미나, 법회 등을 위한 공연으로도 문을 열 이 극장의 건립을 위해 극단 바람은 사찰과 불자들을 대상으로 모연을 하는 외에도 바자회, 기획법회, 특별공연등도 펼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특히 극단 바람은 내년 봄 경허스님의 일대기를 연극으로 꾸며 무대에 올릴 계획도 세우고 있다. 경허스님의 일대기 연극 「길 없는 길」(가제)은 현장스님이 이미 대본을 마무리 한 상태이며 곧 스텝을 구성 연습에 들어간다.

"지난달부터 시작된 극장 건립 모연에는 공연문화의 침체를 안타까와 하는 불자와 스님들이 속속 참여하고 있다"는 극단측은 불교문화의 활성화에 보다 많은 불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만다라세계 보여 도열스님 작품전

석도열 스님의 네번째 작품전이 11일부터 17일까지 일정으로 경인미술관 제3전시실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작품전의 주제는 「우주를 만난 희열 만다라」이다. 도열스님은 이번 전시에서 지난해 인도지역 성지순례에서 얻은 환희심을 화폭으로 옮긴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스님의 작품은 만다라의 세계를 선명한 유채로 캔버스에 옮긴 것들로 인간과 우주의 신비로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모례정 지방문화재 경북 제296호로 지정

경북 선산군 도개면 도개리에 위치한 모례정(毛禮井)이 지난달 10일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296호로 지정됐다.

모례정은 신라 눌지왕초에 고구려 아도화상(阿道和尙)이 신라에 불교를 전파하기 위해 몰래 숨어들어, 이곳 모례(모록)의 집에서 3년간 머슴살이를 하면서 포교활동을 폈던 우물이다.

사찰음식 강좌 현대인의 건강식 소개

한국전통사찰 음식문화 연구소(연구소장 · 적문)는 오는 12월부터 6개월간 전통음식과 사찰음식을 발굴 · 계승하여 현대인에게 적합한 건강음식을 소개하는 강좌를 마련하다.

매월 1일과 15일 2회에 걸쳐 마련되는 이 강좌는 사찰음식 조리법 강습과 큰스님의 생활 및 건강법문이 있게 된다. 또 사찰음식으로 유명한 전국의 현지 사찰을 직접 탐방하여 사찰고유의 음식을 배우게 된다.

〈문의 : 245-0904, 246-6857〉

심장병아 돕기 음악회 24일, 연예인 자비회

대한불교연예인자비회(회장 · 지연)는 오는 24일 오후 3시, 7시 30분 2회에 걸쳐 「심장병 어린이돕기 자선음악회」를 부산 KBS홀에서 갖는다

이두스님 첫 구도소설

명암이 없는 선하 앞에서

번뇌와 해탈의 여정 한 수행승 통해 조명



◇이두스님

승려시인 이두스님(청주 관음사주지)이 첫 구도 장편소설 〈명암이 없는 선하(禪河)앞에서〉를 펴냈다.

한 승려의 일생을 다룬 이 소설은 주인공이 사회에 대한 갈등과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을 겪은 후 출가해서 구도의 길을 걷는 과정을 리얼하게 그리고 있다. "짧은 인생을 길게 사는 길은 개인에 집착하지 않고 공간적으로는 사회의 복된 일을 하고 시간적으로는 영원에의 신념을 가지고 사는 길"이란 스님의 생각이 그대로 주인공의 행적에 나타나고 있다.

구도 소설이 갖는 특징인 주인공의 방황과 갈등 그리고 깨달음을 향한 치열한 구도행위도 이 소설에서는 절절히 묘사되고 있다. 특히 중간부분인 「대도만행」장면은 고뇌하는 수행자의 아픔이 진하게 배어나고 있어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그러나 주인공은 만행을 거두고 깨달음의 길로 큰 걸음을 내딛는다. 그 큰 걸음 역시 달마의 그것에 비길만큼 철저한 면벽정진의 결과라는 점에서 수행의 먼 길을 가늠케 한다.

조국 분단의 아픔과 수행자의 고독 그리고 구도 일념의 눈부른 정진은 결국 선하(禪河)의 깊은 강물 속으로 묻히면서 이 소설은 종지부를 찍는다.

끊임 없이 연구 · 개발하고 있습니다.

ENERGY 절약형 각종 공업로 설계 제작 시공 전문업체

세계의 기계공업은
엄청난 속도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저희 금강 엔지니어링은 세계경쟁력을 키우기 위하여
그동안 미국의 선두업체인 ATMOSPHERE FURNACE COMPANY와의
기술제휴로 열기술 및 고성능의 공업 용로에 대한
생산성 향상과 원가절감의 새로운 노하우를 축척하였습니다.
이제 혁신적인 기술력을 지금까지 깊은 관심으로 지지하고
성원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아낌없이 내보이겠습니다.

영업품목
· 산업용로 제작
(가열로, 소둔로, 비철금속용해로,
각종 분위기로, 전기로, 요업요로)
· 전기 제어 장치
· CERAMIC FIBER
· 각종 로 재료 판매 및 시공
· ADI 열처리

전력을 다하는 기업
KEM 금강엔지니어링
KUEM KANG ENGINEERING
부산시 금정구 부곡 2동 273-2
TEL.:(051)512-7242~3
(051)517-3488~9
FAX.:(051)514-3593
USA ATMOSPHERE GROUP INC. 기술제휴

방송 단신

일본속의 한국불교
btn 현지 촬영 돌입

불교텔리비전(대표이사 · 태응)은 내년 3월 1일 개국에 특집방송될 다큐멘터리 「일본속의 한국불교」의 현지제작에 들어갔다.

내년 3월1일 11시부터 12시까지 방송될 이 프로그램은 총 3부작으로 일본불교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한국불교의 발자취를 짚어보고, 한국불교의 우수성을 보여주게 된다.

14박15일 일정으로 현지 제작되고 있는 「일본속의 한국불교」는 동국대 장휘옥(불교학)교수와 홍하상작가의 자문과 글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최세영PD와 이상원 카메라맨 등이 참여한다.

「일본속의 한국불교」는 오사카, 나라, 교또, 도쿄등 지역의 주요사찰인 사천왕사, 비조사, 동대사, 법륭사등의 사찰을 탐방해 불교문화재를 소개하고, 가마다 시게오 교수 등과의 대담을 통해 한국불교의 우위를 증명할 예정이다.

불교 문학 소개
BBS 「오늘을···」

불교방송(사장 · 김태호)의 「오늘을 이끄는 불교」에서는 14일부터 19일까지 김재홍(경희대 · 국문학)교수를 초청, 불교문학의 시대별 흐름과 경향을 소개한다.

첫날 불교문학이란 무엇인지 불교문학의 대략적인 이해를 돕고, 근대문학에서 현대문학에 이르기까지 불교문학의 의미와 작가들의 성향을 짚어본다.

아시아 문화 탐험
SbS 창사 특집

SBS 창사특집 문화대탐험 「아시아 4만Km」를 11월 8일부터 12월 13일까지 총 10부작으로 매주 화요일 10시 55분부터 11시 50분까지 방송한다.

아시아 문화권의 동질성을 확인해 보는 대장정 「아시아 4만Km」는 양자강 중심의 아시아가 아닌, 메콩강 시원에서부터 시작하는 아시아 탐사를 보여준다.

효도 관련 특집 마련
KBS 제1라디오

KBS 제1라디오는 자녀교육 특별기획 「효, 우리가 지켜야 할 덕목」을 3부로 제작,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오전 9시 30분부터 10시 59분까지 방송한다.

구독신청:737-8881

"공연일정 연말까지 꽉 찼어요"
초청공연 봉사활동으로 동분서주
대한불자가수회



◇ 불자가수회가 군 부대를 방문해 공연을 펼치고 있다. 맨우측부터 김흥국, 장미화, 진송남, 설봉스님, 남궁옥분, 남진씨등

매월 정기법회 통해 신심도 다져

도필선 기자

왕성한 신행활동과 봉사활동을 펴면서 이웃에 불을 전하기에 앞장서고 있는 대한불자가수회(회장 · 진송남)가 분주한 가을을 보내고 있다.

불교계 각종 법회나 문화행사에서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불자가수회는 1백여 회원 모두가 「불을을 전하는 포교사」라는 긍지와 믿음으로 뜰뜰 뭉쳐 있다.

'비온 뒤에 땅이 더욱 굳는다'는 속담을 증명이라도 하듯, 한때 회원 몇 사람에 의해 일었던 불협화음을 진송남회장의 선출등 새로운 임원진 개편으로 일단락시킨 불자가수회는 선후배가 모두 법우(法友)라는 공동체 의식으로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신행활동과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달 4일, 해병대 제2사단 청룡부대 위문공연에는 명국환, 남진, 장미화, 진송남부부, 김흥국, 남궁옥분, 이재영씨등 가요계 간판스타들이 바쁜 일정속에서도 한마음되어 화려한 위문공연을 가졌다. 또, 성남 육군종합행정학교에서의 위문공연과 경주 신라문화재 영산대법회, 제기동 천보원의 일곱보살 봉안 축하공연도 성대하게 가졌다.

불자가수회는 또, 지난 8일 부산 KBS홀에서 가졌던 설봉스님의 도예전에서도 특별회원 유명우(전 WBA세계 챔피온)씨와 김병찬 아나운서가 함께 해 부산 불자들의 불심에 등불을 밝혔다. 오는 20일에는 교도소 위문도 계획하고 있어 불자가수회의 수첩은 연말까지 빼곡하다.

진송남회장은 "바쁘게 살아가는게 저희 가수들의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빠듯한 일정속에서도 불교를 위해 일한다고 생각하면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불자가수의 노래소리가 사부대중의 마음이 괴롭거나 기쁠때 그 마음을 달래줄 수 있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커다란 힘을 발휘하길 원합니다."며 자리를 빛낼 수 있고 작은 정성으로나마 힘이 될 수 있는 자리라면 어디라도 불자가수회를 불러 달라고 당부했다.

불자가수회는 다보빌딩(불교방송국) 3층 대법당에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정기법회를 갖는다. 이 법회에는 불자가수들의 바른 일정관계로 1백여 회원중에 30여명 정도의 회원이 동참하고 이정기 법회 회원들의 개인적인 신행다지기의 도량이 되고 있다. 그리고 성지순례법회나 큰스님 초청법회를 정기적으로 가져 적극적인 신행활동을 하고 있다. 이같은 불자가수회의 활동에 빠질 수 없는 특별회원이 있다. 유명우씨와 매월 정기법회에 참석하기 위해 양산에서 올라오는 김종수 통도사 청년회장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회원들의 이 같은 뜨거운 동참의 열기에 힘입어 고아원, 양로원의 복지기관 방문을 비롯, 해외불자들을 위한 위문공연, 자체법당 마련 계획, 불교TV 개국에 따른 불자가수회 활동 활성화, 환경보호 · 전통문화계승 캠페인사업 추진등의 크고 작은 행사들을 계획중이다.

대중가요로 대중을 즐겁게 해줌으로써 삼속의 기쁨을 전해주는 불자가수회는 대중가요 작곡가가 작곡한 찬불가의 취입도 구상중에 있다. 또, 불자가수회는 후원자나 주변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보다 적극적으로 솔선수범하는 신행단체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히면서 X세대층의 젊은 불자들과 함께 호흡하는 폭넓은 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안도 검토중이다.

종단 쇄신 방향 다각적 모색
태고종, 29일 중앙종회 개최

한국불교태고종 제69회 정기중앙종회(의장 벽산)가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의 회기 일정으로 중앙불교회관 설법전에서 개최된다.

종회법 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열리게 되는 정기중앙종회에는 태고종 중앙종회의원과 종단 간부스님 및 전국 주요사찰 주지스님등이 참석하게 된다.

이번 종회에서 다루어지게 될 안건으로는 △95년도 종단사업 계획안 △95년도 종단 세입 · 세출 예산안 △종법(법인관리법, 사찰법) 제정안 △기타 종단현안 등이다.

이번 종회에서는 대중교화 종단으로서의 위상정립을 위해 대중교화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한국불교 정통종단으로서 위상과 면목을 회복하고 일신하기 위한 종합적인 종단발전책을 강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종회에서는 또 중앙법인이었던 한국불교태고종 유지재단이 별도의 독립법인인 한국불교태고원으로 개편됨에 따라 법인관리법과 사찰법 등 일부 종법을 제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연변서 불교연구 재개
덕전스님, 「불학 연구회」 설립



◇덕전 스님

중국 연변지역에서 1946년 종교 청산 작업 이후 50여년만에 불교학 연구가 공식적으로 재개됐다.

연변불학연구회(회장 · 강맹산)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 인민정부의 정식 비준을 받고 불교학 및 불교관련 제반학문과 조선민족의 문화, 역사등을 연구하기 위해 지난 5월12일 연변대에서 창립대회를 가진 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고 있다.

연변불학연구회 성립의 산파역을 맡았던 덕전스님에 따르면 불학연구회 활성화 외에도 연길 시내에 국생사(國生寺) 복원 및 불교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각국사 기념다례
"위업본받자"다짐

대각국사 제939주년 탄신기념 다례법회가 지난 1일 선암사 만세루에서 봉행됐다.

선암사 총무스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다례법회는 삼귀의례 반야심경 약력보고 헌향헌화 순으로 이어졌다.

이날 다례법회를 마치고 정지허 선암사 주지스님은 "오늘의 한국불교가 그 법맥을 계승하고 우리 종단과 선암사가 부처님의 혜명을 면면이 이어 올 수 있었던 것은 중흥조이신 대각국사의 큰 은혜와 공덕"이라고 말하고 "오늘 다례법회를 계기로 우리는 대각국사의 도력과 정신을 본받아 이 나라의 불교를 발전시키고 종단과 선암사를 다시 중흥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각국사 탄신기념 다례법회는 해마다 음력 9월 28일 탄신일을 기해 선암사에서 올리고 있다.

30일 군승의 날
기념법회 세미나 개최

군승단(단장 · 강남석)은 7일 월례 임원회의를 갖고 제26주년 군승의 날 기념법회 및 제22대 군승단장 취임법회를 오는30일 오후 1시에 국방부 호국원광사 및 전쟁기념관에서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제2차 군승교구 추진을 위한 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 세미나에서는 군포교 활성화와 군승단 역량강화등 군포교 전반에 걸친 문제점과 미래지향적인 방향 제시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조계종 선거와 언론

목탁소리

이 준 엽
〈취재1부 차장대우〉

조계종이 다시 선거열풍에 휩싸이게 됐다. 지난달 31일 총무원장 선거공고와 함께 7일에는 새로운 종헌종법에 따라 교구별로 종회의원 선거가 있었다. 이어 8일에는 중앙종회 직능대표 20명과 비구니스님 10명이 종회의원으로 확정됐다. 9일부터 시작된 총무원장 후보 등록은 당일 새벽부터 후보자들이 선관위를 찾아 선거분위기가 달아올랐다. 후보등록과 함께 후보자들은 곧장 종책을 발표하고 자신의 소견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언론을 통해 일반에 상세하게 전해지고 있다. 때문에 불자가 아니더라도 많은 이들이 불교계의 인물을 기억하고 있다. 스님을 알아보고 불교계의 흐름을 안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라 하겠다. 관심이 있을때 발전이 있기때문이다. 또한 민주사회에서는 모든 것이 투명하게 밝혀진다는 것도 발전을 의미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계종의 선거정국은 세속의 정치와 비슷함을 느낀다. 국회성격을 닮은 종회, 행정부의 수반격인 총무원장 선출등이 세속의 모양과 다름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불자는 사회에서 처럼 선거가 과열되지는 않을까 우려한다. 언론에 공개되는 선거모습 또한 긍정적이기 보다는 선거가 진행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만 노출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특히 후보 당사자의 뜻과는 달리 선거운동을 펼치는 주변인물에 의해 상대방을 음해하는 등 터무니없는 인신공격이 공개될까 염려스럽다.

대부분의 불자들은 불가의 일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여법하게 처리되기를 바라고있다. 특히 스님들의 일은 특정인을 제외하고는 재가불자나 일반인의 관심이 높지 않다. 따라서 굳이 불교계가 스스로 자청하여 일반에까지 선거 모습을 공개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오는 21일 조계종 총무원장이 선출된다. 언론으로 인해 선거가 과열되지 않도록 선거에 임하는 당사자들의 자숙을 기대해 본다.

해외통신

산림보호 눈부신 활동
태국 프라챠크스님

태국의 프라 프라챠크 스님이 산림보호를 위해 눈부신 활동을 하고 있어 세계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국의 TURNING WHEEL지에 따르면 프라챠크 스님은 소규모의 벌목을 막는 방법으로 나무에 성직을 준 것으로 유명하지만 다른 방법도 탐색하고 있다고. 스님은 특히 지역삼림 순찰을 조직하여 불법적인 벌목을 증명해 보이거나 통행로를 봉쇄함으로써 삼림지역을 보호하고 있다.

프라 프라챠크 스님은 또한 태국과 서구의 환경론자들과 함께 환경문제의 각성을 촉구하고 건설적인 사회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삼림감독구역 운동 및 비폭력적 방법의 강연회를 이끌기도 했다.

경제적 압력으로 젊은이들이 도시에 직장을 구하러 떠나자 프라챠크 스님은 청년 보호림 단체를 설립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했으며 청년들에게 흩어진 지역사회를 재건하는 기술을 가르치고 숲을 재생하는 훈련을 시킴으로써 시골에서의 생활이 경제적 생존에도 유익한 선택이었음을 그들이 알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박미영 기자〉

찬불가 CD제작
일본 경도 불교대학

일본 경도(京都)불교대학이 찬불가를 수록한 CD 〈불교성가〉를 제작 지난 22일 개교기념일에 맞춰 선보였다.

교또 불교대학이 만든 찬불가 CD는 20Cm 크기의 관형으로 70분 분량이다. 전체가 4부로 나뉘어져 1분는 신작 음악법요연송성가집, 2부는 구작 음악법요연송성가집, 3부는 교가, 4부는 부처님 품안에 등 생활 찬불가 25곡이 담겨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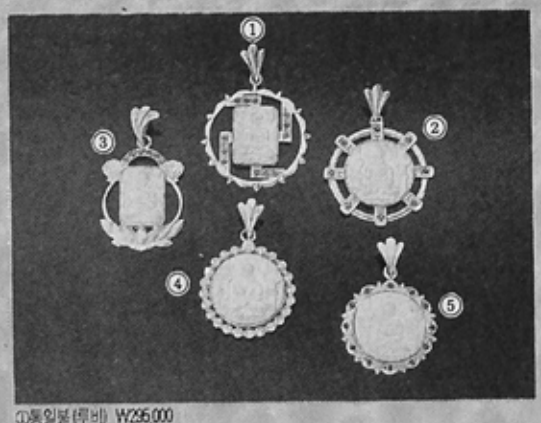
티벳난민촌 병원설립
DIC 지원 내년 1월 완공

티벳난민촌에 일본의 본원사 계열 다나 인터내셔날센터(DIC)가 건립하고 있는 병원이 완성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지난 달 22일자 중외일보에 따르면 DIC가 지원해 건설 중인 이 병원은 중앙인도 관다라 지구에 있으며 내년 1월에 개원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DIC는 네팔에 정착하고 있는 티벳난민을 돕기위해 뜻있는 승려들이 88년에 결성한 후원 단체이다.

영롱한 진주에 새겨진 자비의 부처님像 불가사의한 영험의 호신불

부처님像 진주메달리온





①연꽃반지 W328,000 GOLD 18K(1.5돈) 다이아 0.02C/T×12
②여반지 루비 W258,000 다이아 W318,000 GOLD 18K(2.5돈) 다이아 0.02C/T×10
③남반지 루비 W273,000 다이아 W336,000 GOLD 18K(3돈) 다이아 0.02C/T×10

①통일불(루비) W295,000 GOLD/루비/(養진주/ 18K(2돈)
②팔정도(루비) W285,000 다이아 W325,000 GOLD/루비/(養진주 18K(2돈) 다이아 0.02C/T×8
③석가모니불(루비) W275,000 다이아 W315,000 GOLD/루비/진주/18K(2돈) 다이아 0.02C/T×7
④염주불(루비) W339,000 다이아 W499,000 GOLD/루비/진주/18K(2.5돈) 다이아 0.02C/T×22
⑤12연기(루비) W295,000 다이아 W378,000 GOLD/루비/진주/18K(2돈) 다이아 0.02C/T×12



1. 2. 3. 4. 5.
1. 2. 3.

■호신불 보석시계 남·여 각 W148,000

· 부처님 양각(입체조각)
· 오스트리아산 큐빅 다이아
· 24K IPG 순금도금
· 5기압 방수·방충

부처님像 호신불로 삼재팔란으로 부터 벗어나세요
• 주문방법
주문제작이므로 전화로 신청후 7일이내 현품인도합니다.
(대금은 현금 및 신용카드)

전화 (02)439-6128~9

손조각 칼라채색으로 빚은 이조백자
5천년 전통도예의 맥을 이어온 藝泉선생의 걸작품





● 민족의 영산
백두산 천지 칼라 조각 백자
높이:47㎝
둘레:127㎝

■作家主要略歷
• 1949년 경기도 이천군 출생
• 1973년 대한민국미술품경진대회 입선
• 1974년 한국전통공예전 입선
• 1975년 여주 현예천도예연구소 설립
• 1976년 한국전통공예전 입선
• 1980년 공예품경진대회 입상
• 1986년 현대미술대상전 금상 수상
• 1987년 한국미술제 은상 수상
•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등 전국 순회 개인전 다수

● 중국 만리장성
칼라조각 백자
높이:50.5㎝
둘레:115㎝

■작품과정의 어려움으로 소량에 한하며 인도일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백화점·화랑전시가격 W520,000 ■특별보급가격 W390,000
전화로 예약하시면 접수순으로 작품을 인도 합니다(현금 및 은행신용카드)

• 제조 예천도예 연구원
三 田 洋 行
전화 (02)439-6128~9

스님들 외국어 공부 '붐'

국제화에 동참 … 해외포교의 필수과목
일어·영어에 큰 관심, 승가대 마다 특강도

서울 흑석동 봉황사 흥인스님. 요즈음 스님이 하루생활 가운데 가장많이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일본어 학습이다. 새벽4시면 어김없이 예불에 참석하고 사시마지나 불공이외에는 스님의 손에서 일어관련 책자가 떨어지지 않는다.

승가대 졸업반인 스님이 외국어 학습에 열을 올리는 것은 일본 불교대학원 시험준비때문. 노인복지에 관심이 많아 불교복지를 공부하고 스님의 위상을 높이기위해 일본유학을 선택한 것이다. 이번 시험을 위해 스님은 일어전문학원에서 3시간이상 강의까지 들고 있다.

승보종찰 송광사 강원. 이곳에서는 외전으로 진행되고 있는 영어와 중국어 특강이 인기가 높다. 강원에서 국제화 시대에 발맞춰 특별히 마련한 외국어 특강에는 미래의 해외포교사들이 진지하게 참여하고 있다.



◇전문외국어 학원에서 외국어공부에 열중하고 있는 스님들

승가대를 비롯 동학사, 법주사, 운문사 등 스님들의 전문교육기관들도 대부분 외래강사등을 초청, 외국어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스님들의 외국어 학습에 대한 높은 관심은 이미 10여년전 해외여행 자율화 바람이 불면서부터. 해외포교 및 성지순례등 해외로 나가는 길이 트이면서 외국어의 필요성이 요구됐던 것이다. 이러한 바람은 꾸준히 이어져 최근에는 경전공부나 참선등의 수행을 외국어로 배우는 곳이 늘고 있다. 한국선명상문화센타는 지난달 영어명상강의를 신설, 스님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했다. 혜원스님이 직접 지도하는 영어명상강의는 선수행과 명상법이 영어로 진행되고있다. 영어경전강의는 연등국제불교회관이 선두주자. 최근 8주강의의 기초반이 6주째 진행되고 있으며 고급반인 수트라반에도 스님들의 참여가 높다.

스님들의 외국어 학습열기는 전문외국어학원에도 나타나고 있다. 스님들의 왕래가 잦은 조계사부근 일어전문학원의 경우 매달 10여명의 스님들이 수강신청을 하고 있다. 서울의 종로 을지로등의 외국어학원가에도 스님들의 수강이 늘면서 스님들만을 위한 그룹을 만드는등 특별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외국에서 포교와 공부를 하고있는 스님들은 미주 1백30여명을 비롯 일본, 태국, 인도등에 3백여명. 그러나 해외포교 전문가들은 아직도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한마음선원 금왕지원에서 10여명의 대중스님들에게 매일 1시간씩 영어를 지도하고 있는 청아스님은 "외국에서 한국불교를 배우기위해 찾는 이들이 많다"며 "이들이 행자교육부터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국스님들의 완벽한 외국어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준엽 기자〉

종단 거듭나기 기틀마련

개혁회의 평가회 "개혁의지 지속돼야"

조계종 개혁회의(의장 석주)는 지난 8일 오후 6시 조계종 총무원 회의실에서 상임위부위원장 도법스님, 총무부장 정우스님, 기획조정실장 현응스님, 홍보실장 혜담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혁회의 7개월을 진단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종헌·종법 제정 개정에 대해 스님들은 "감사처 설립등 당초 기획했던 부분이 축소되고, 비구니스님들의 참종권이 박탈되는 등 아쉬운 부분도 많으나 전체 종도들의 의견을 수렴, 불교종풍을 쇄신하고 제도개혁 뿐 아니라 사상적 개혁까지 답으려 했다"고 말했다. 이는 기간이 짧아 논의부분이 적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종지를 비롯 사상적 체계 확립을 위한 연구가 계속되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개혁회의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받아 왔던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개혁적 인사 단행 △개혁에 동참해 적극 협조한 사람으로서 가람수호와 포교교육 사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인물 △지역정서와 주변 인연(문중등)에 있어 무리 없다고 여겨지는 합리적 인물 등을 원칙으로 인사를 단행했으며, 7개월동안 188개 사찰의 주지를 임명한 것은 매년 4백견 정도의 인사발령에 비해 많은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와관련 개혁회의 출범이후 본사급 주지 경질은 11개사, 징계에 의해 주지가 바뀐 사찰은 13개 사찰이라고 밝혔다.

재가불자의 종단 참여가 미흡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찰운영위원회에 주지 및 신도회 간부가 들어감으로 사부대중에 의한 사찰운영이 가능토록 되어 있으며 종회 참여는 시기상조"라 밝혔다. 또한 "불교병원 설립·중앙승가대 인가 등 정부의 불교공익성취문제는 지금 진행중으로 가시화 단계에 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스님들은 경륜있는 총무원장 선출에 따른 차기 집행부가 개혁의 틀을 계승·발전시켜 주기를 희망했다.

자성과 참회가 용서로
전 동국인 혁신 다짐

지난달 31일 동국대 스님교수 폭행사건이 전동국인의 자성과 참회를 통해 용서의 결과로 귀결되고 있다.

교무회의가 열린 2일 국문과 재학생 80여명은 불상앞에서 108참회를 통해 잘못을 반성하고 같은 과 학우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으며, 지난 4일에는 동국대 불교도연합학생들도 참회법회를 시작했다. 또한 지난 7일에는 총학생회를 비롯 10개 각 단과대와 동아리연합등이 공동으로 참회법회를 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동악인이 힘을 모아 동국혁신을 이룰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한편 현각스님은 지난 7일 이번 사건 관련학생들에 대한 사법조치를 원치않는다는 청원서를 중부경찰서에 제출함으로써 학생들에 대한 구속등의 사법처리 문제는 일단락됐다.

이번 사건은 학내의 성상, 정각원등 불교관계시설물의 보호관리 소홀,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구체적 사업부재등의 문제를 극명하게 드러냈다.

"정법신행의 문 연다"

22일 강원불교대 개설, 3백명 수강신청

춘천지역에 불교 공부 바람이 불고있다.

오는 22일 개설되는 강원불교대학에 따르면 개강에 앞서 이미 3백여명의 불자들이 수강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이 지역에 불교공부의 자리가 마련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강원불교대학의 개설은 지역 불자들의 불교 공부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것으로 보인다.

강원불교대학은 시내 소양로 석왕사내에 개설되며 매주 화, 목요일에 주간반(오후2시~4시)과 야간반(저녁7시~9시)으로 운영되며, 통신과정도 개설한다. 강의 내용은 불교사, 불교학 전반이며 강사진도 동국대 출신 석, 박사와 현직 교수등으로 구성된다.

강원불교대학 개설의 중추역할을 한 리선행(조계종 중앙상임포교사) 법사는 "취약했던 강원지역의 불교 공부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장병어린이 돕기
만등불사·헌혈운동

대한불교 감로심장회(회장 정일스님)는 지난달 30일 진주 의곡사에서 보성스님 초청법회 및 심장병어린이돕기 만등불사를 봉행했다.

'심장병 어린이에게 새 생명을'이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법회에는 2백여 불자가 동참, 10여명의 심장병어린이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게 되었다. 이날 법회에 앞서 감로심장회는 대한적십자사와 공동으로 29일 흑석루에서 자비의 헌혈운동을 펼쳤다. 이날 헌혈에는 62명의 헌혈자가 동참했다.

동국대 비구니기숙사
19일 혜광사서 현판식

동국대학교 비구니스님들의 안식처가 될 비구니기숙사 현판식이 오는 19일 종로구 광창동 혜광사에서 거행된다.

종립동국대 종비생제도 실시 이후 30여년만에 마련된 비구니기숙사는 지난 9월 조계종 총무원이 각진선원을 매입해 동국대 비구니회(회장·진명)에 사용토록 해 일부 보수공사를 마치고 사찰명도 혜광사로 전환, '동국대학교 비구니수행원'으로 사용케 됐다.

이날 현판식과 더불어 동국대에 재학중인 비구니스님 24명 전원이 입주를 완료하게 됨으로써 학문과 수행에 더욱 정진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훈병원 불자회 탄생
직원불자등 회원 2백여

한국보훈병원에 불자회(회장 권영부)가 탄생됐다. 보훈병원 불자회는 지난달 30일 직원불자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속리산 법주사에서 창립을 기념하는 야외법회를 봉행했다.

현재 보훈병원불자회에는 불자환자와 입직원, 가족등 2백여명이 등참하고 있다.

보훈병원불자회 법회는 매주 목요일(오후 12시), 토요일(오후3시)에 진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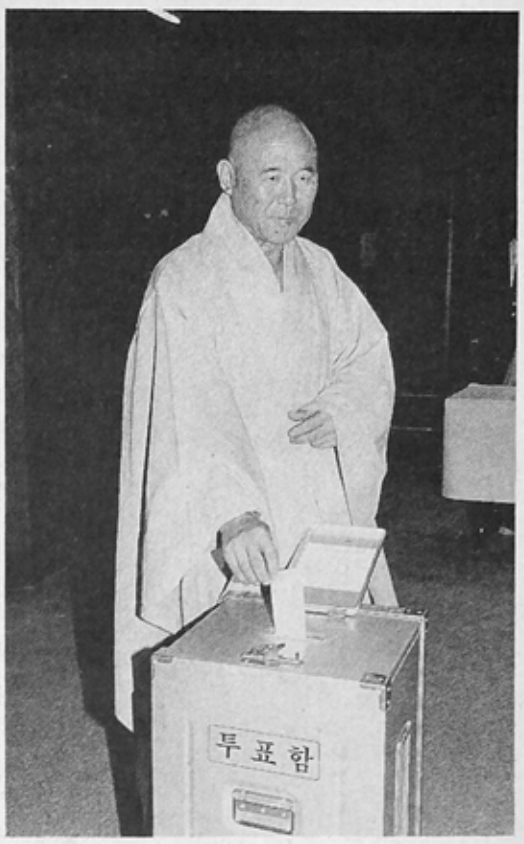
스님에 무료진료
광명의원 4곳서

스님들이 무료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이사장 각현)은 지난달 31일 임시이사회를 개최, 광명의원 4곳에서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결정했다.

스님들이 무료 의료서비스를 받게될 무료병원은 서울 광명의원(서울시 송파구 삼전동 (02)203-3677), 청주 광명의원(청주시 서문동 중앙공원내 (0431)221-0836), 군포 광명의원(군포시 군포1동 (0343)54-5617), 대전 광명의원(대전시 동구 삼성동 (042)634-5820) 등 네곳으로 내과 일반외과 가정의학과 정형외과 등을 비롯해 임상병리 방사선 초음파검사 등 각종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며, 특히 서울과 대전 광명의원에서는 물리치료까지 가능하다.

연꽃마을측은 "이번 조치로 스님들의 복리후생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가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개혁 … 한표 …

지난 7일 조계종 최초로 교구본사 재적승에 의한 직접 선거로 치러진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선거가 실시된 직할교구 조계사에서 총무원장 탄성스님이 한표를 행사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직선 48명, 직능·비구니 간선 30명 등 모두 78명(해인사 제외, 11.9. 현재)의 중앙종회의원이 탄생했다.

〈조계종 직선 중앙 종회의원〉

교구본사	법 명	교구본사	법 명
조계사	현근 종림	쌍계사	지하 영담
	수완 광복	범어사	영환 석호
용주사	정대 세영	통도사	정우 영배
신흥사	무산 청화	고운사	근일 설송
월정사	원행 부동	금산사	혜광 원행
법주사	각현 무상	백양사	성오 지운
마곡사	덕상 장곡	화엄사	종원 진만
수덕사	지운 인행	송광사	지원 영조
직지사	법등 정우	대흥사	보선 혜관
등화사	선봉 성덕	관음사	종하 진아
은해사	현소 향공	선운사	대원 동명
불국사	성타 진현	봉선사	일면 화범

〈직능대표 명단〉

직 능	법 명	직 능	법 명
율 원	성우 법혜	행 정	장윤 성문
선 원	명진 현봉	포 교	현진 지홍
강 원	종광 수진	비구니	일법 수현
교 육	정인 법성		재운 육문
사 회	진관 지만		법용 지훈
복 지	태용 무근		진성 본각
문 화	여연 효림		해주 홍륜
법 제	설정 정휴		

현대불교를 법공양 합시다

현대불교신문사가 펼치고 있는 「현대불교」 보내기 운동에 동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도소 군부대 등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직도 미치지 못하는 곳에 부처님의 법음을 전합시다.

◇법공양 하신 분



▲익명의 독자 100구좌
▲구필회 〈능인선원15기부회장·사진〉 20구좌
▲광우스님〈정각사 주지〉 4구좌
▲김상림〈서울 흑석동〉4구좌
▲김준성〈학생 서울대〉4구좌

◇1구좌 1만원

1구좌를 신청하면 3개월간 구독가능하며 구좌수 제한 없습니다.

◇보낼 곳

110-170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33
☎ (02) 737-8881
팩스 737-0697

질병의 큰 원인은 "수맥"

수맥차단, 이제 안심하고 주무십시오.

발명 특허원 제 2273호
□ 제조허가번호 3-7-190
□ 공업진흥청 형식승인번호 전 3-7-5663, 전 3-7-5664
遠赤外線 維狀發熱體 使用
품질보증

알파매트는 수맥의 유해파로부터 가장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수맥의 유해파에 대한 진실을 다시 알려드리고, 아는 바를 실현하고 유익함을 나눈다는 데 '자성'은
자긍심을 느끼며, 다음과 같이 수맥 차단용 신제품을 선보입니다.
최신 기술을 동원하여 정성을 다하여 만들었습니다. 품목을 다양화하고 품질을 혁신적으로 높혔습니다.

대리점 및 특판사원 모집
• 소자본으로 높은 소득 보장합니다.
• 정직한 상품을 정직하게 판매합니다.
• 수맥에 대한 지식이 있으신 분 환영합니다.
모집지역 • 전국 시, 군, 구 단위 지역
조건 • 보증금 없음 • 초도 상품대 가능자
• 영업사원고용 가능자.
문의처: TEL (02) 649-1781, FAX (02) 645-8180

수맥차단효과에 원적외선 효과와 음이온 효과를 더했 습니다
비아이피 골드세트
세트일체
소비자가 ₩ 1,310,00
매트
규격 D 140 × 200 Cm
소비자가 ₩ 858,000



이불 베개
소비자가 ₩ 460,000

수맥차단효과
원적외선 효과와 음이온 효과
참단 기능, 참단디자인으로 완성했습니다. -고급단색사용
골드 카펫
규격 150 × 220 Cm
소비자가 ₩ 765,000



수맥 으로부터 가족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브금형
알파매트
규격 D 140 × 200 Cm
S 100 × 200 Cm
소비자가 D ₩ 248,000
S ₩ 218,000



어릴 때의 건강이 평생의 건강입니다. -수맥 차단 매트
엔젤쿤드
규격 100 × 120 Cm
소비자가 ₩ 148,000



◀수맥차단방석(좌복usage)
◀유아용 수맥차단매트

자성기업의 건강 침구는 ——— 건강침구에 수맥차단장치가 필요한 이유

자성기업이 금번 개발한 알파매트를 비롯한 모든 건강침구는 명실공히 건강침구로서의 모든 장점을 살려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일반 유사 제품들이 안고 있는 단점들을 보충 완성해낸 의욕적인 제품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전열식 매트와는 전혀 다르고 수맥 차단 장치여란 주력한 투박한 기능성 위주의 상품도 아닙니다. 그 효능은 물론 내구성과 실용성을 고려하고, 고급 원단을 엄선하여 패션성이 뛰어난 디자인의 제품에 이르기까지 품질 자체가 이미 첨장 전문 업계의 일반 수준을 훨씬 넘어선 최상품으로 각광 받기 시작했으며, 많은 격려와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 수맥은 입산부와 산모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 어린아이의 경우 특히 민감하게 영향을 타므로 자고나면 경기를하는 등 매우 위험하다.
• 수맥위에 장시간 기거하는 경우, 신경통, 고혈압, 당뇨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 수험생은 책에 정신 집중이 안되고 산만해진다.
• 지진류에 오염된 가옥에 살면 발암률이 높다. — 구스타프의 지전류로 인한 암발생설
• 침대의 위치를 바꾸거나 (동판 알미늄판 등을 거술적으로 장착하여) 지전류를 피하면 안전하다. —독일 볼프라우트 하우전 도립병원의 비르켈바흐의 연구
• 수맥파의 영향은 지상의 생물체 뿐만 아니라 지은 집에 균열을 만들고, 잔디의 성장조차 방해할 정도로 파괴적이다.

수맥에 대한 관련서적

• 현대의학은 배내기형아의 체원안을 부인들의 질병이나 약물복용, 생병이라 진단하는 경우가 있으나 수맥과 관계가 더 많다.
• 서울시내 모 신체부자유자 육아원에서 전철한 한아 90%가 수맥을 타는 체질이다. — 〈수맥과 풍수〉에서
• 예부터 신소의 명당조건으로서 수맥을 피했다.
• 장수촌으로 소문난 지역은 대부분 수맥이 없다.

——— 〈수맥을 알면 건강이 보인다〉에서
• 집을 옮기면 건강이 회복되는 경우 대부분 수맥을 피했기 때문이다.
• 중풍, 고혈압환자는 침실의 수맥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 우환이 많은 집안, 도깨비집터라 불리는 흉가는 수맥 때문인 경우가 많다. ——— 〈수맥은 과학이다〉에서
' SBS-TV 94년 4월 17일 "그것이 알고 싶다 " 에서 수맥의 심각성이 방영된 바 있습니다.

합명회사 자성기업
서울시 강서구 등촌2동 513-21
소비자 보오실 : T(02) 649-1781, F(02) 645-8180

이런 후 건강칼럼 <5>

마 음 건강의 소중함

사람들은 많은 착각을 하고 살아간다. 어느 것 하나 바로 보는 습관이 없으니 착각이 많을 수 밖에 없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착각을 하는 것일까.

이런 우둔한 의문에 대해서 아주 우둔한 대답을 하나 하자면 제 목숨 살려고 그런 착각을 한다는 말을 할 수가 있다. 살려고 해서 그렇다? 또 다른 의문이 생길 것이다.



그러나 그런 우둔한 대답은 어떤 의미에서는 옳은 의미를 지닌다. 근기가 약한 사람들은 사물이나 상황을 올바르게 보는 힘도 없으려니와 본다해도 그 괴로움 때문에 자신의 유기체나 마음을 지탱해 내지 못하는 속성이 있다. 때문에 착각을 통하여 짐짓 근기가 있는 것처럼 위장을 하게 되는 것을 착각이라고도 볼 수 있다.

'나만은 예외' 착각 … 병이 나야 알게돼

의사는 남의 병을 고치는 사람이니까 항상 건강하고 죽지도 않을 것 같은 착각을 지닌다. 누가 병이 났다고 하면 그런 병은 남들에게나 일어나는 것이지 자신과는 무관한 것이라고들 생각한다. 이런 우스운 이야기도 따지고 보면 그런 병이 자신에게 일어난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싫고 또 직면하기 조차도 두렵기 때문일 것이다.

"그 친구 많이 달라졌는데 좋으랴 싶다.

잡아함경에 네가지 법을 필요와 분별에 따라 행하면 그것이 굉장한 건강이라고 말했는데, 그 네가지가 바로 이렇다. "첫째 병을 잘 아는 것이며, 둘째 병의 근원을 잘 아는 것이며, 셋째 병을 잘 다스리는 것이며, 넷째 다시 발병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적고 있다.

현대의학에서도 이보다 더 적절하게 건강유지의 지표를 적은 것이 없다. 병을 한번 앓고 나면 깨달아지는 일을 왜 우리는 병을 앓지 않고는 착각 속에서만 살까. 그래서 자기자신이 건강하다고만 착각하고 있는 환자는 고칠 길이 없다.

않고 나더니 사람되었어 …."

그런 말을 들을 때가 더러 있는데 사람은 위기에 처해본 연후라야 소중함을 깨닫는 경우를 이르는 말이다. 위기를 넘기면서도 깨닫지 못한다면 그보다 더 어리석음이 어디 있겠는가.

사람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작든 크든 병치레를 하게 된다. "질병은 인생을 깨닫게 만드는 훌륭한 교사다"라고 말한 철학자도 있다. 병을 앓지 않고도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잘 관리할 수가 있다면 오죽

매일 죽는 여자 ④

주부신행담

만약 정상적인 몸이 된다면 천사처럼 살리라. 그러나 몸이 회복되어 가면서 다시 옛날의 내 모습이 되어 욕망이란 이름의 전차를 타고 종점없이 달리기 시작했다.



남편은 난폭해졌고 심한 염세증은 죽음을 …

6.25때 타버린 집과 잿더미가 된 살림살이의 복구 때문에 난 중학교에 갈 수가 없게 되고 어린 나이에 삶이 시들해져서 식구들과 말을 끊고 살았다. 그것을 안 큰 형부가 언니한테 결혼 반지를 팔아 내 중학교 입학금을 대라니 놀라신 아버지가 2차 시험이라도 보라고 하셔서 중학교에 갔다. 고등학교는 엄두도 낼 수 없게 되자 인천의 친척집으로 도망을 가서 사범학교 시험을 쳤다. 동네 사람들은 흉을 보았다. 딸 많은 집에서 그까짓 딸년 공부를 시켜 무엇을 하느냐고.

햇병아리 교사시절 봉급보다 집에서 더 많은 곗돈을 부어 학부형에게 고스란히 떼었다. 돈, 돈이 없어서 대학을 못간거야. 봉급을 타서 혼자 다쓰고 하고 싶은 일을 다해보아도 신명이 나질 않았다. 유능하고 재주있고 착하다고 상사나 선배 동료들에게 무척 사랑을 받았으나 그것도 즐겁지 않았다.

8년여 재직한 학교를 그만두고 깨끗하고 돈도 잘 벌릴 것 같은 양품점을 시작했다. 어릴때부터 객지로 돌며 혼자 살아온 나는 내 속을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고 고집으로 밀고 나가면 안되는 일이 없었다. 섬세하고 예민한 내 감성의 밑바닥에서 나를 지켜주는 그 고집을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여겼다. 그러나 결혼을 하고 장사를 시작한 뒤는 사정이 달라졌다. 열심히 착하게 돈만 벌자고 뛰어든 시장이란 곳, 그 바닥는 시기, 질투, 피나는 경쟁, 모함, 사기 …. 그래도 야무진 점원이 장사를 잘해주어 돈이 좀 모이자 남편의 반대를 무릅쓰고 확장한 또 하나의 가게가 사기에 걸려 일년만에 패소하고 고스란히 날리게 되었다.

남편도 마찬가지여서 손대는 일마다 되지 않고 드디어는 오토바이 사고를 냈다.

인사사고까지 겹쳐 참으로 처참한 상황이었다. 일정한 직업도 없고 사고까지 당한 남편은 시장 상인들과 때없이 어울려 술을 마시곤 했다. 오랜 연애 시절엔 한번도 본 적이 없는 모습으로 변해갔다. 양전하시고 악주는 한 모금도 못하시는 친정아버지와 언니들 틈에서 조용히 자란 나는 이해도, 적응도 할 수가 없었다.

더욱이 아내, 며느리, 장사군 노릇, 그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고 갈일먹는 송충이가 되어가는 나에게 그는 심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다. 당연한 요구였으나 원망과 짜증으로 그에게 대들기 시작했다. 내 인생을 망쳐놓은 악마, 도깨비, 사기꾼 …. 그 나이 되도록 싫은 사람이 있으면 피해 다녔지 정면으로 누구와 싸우거나 큰 소리를 쳐본 일이 없었는 데, 어떻게 어디에 그렇게 거칠고 추하고 뚝함이 숨어 있었을까? 그럴 때마다 남편은 이성을 잃을 정도로 난폭해졌고 우린 지척을 분간할 수 없는 어둠 속에서 찢고 깨지고 있었다. 더 이상 살아갈 필요도 꿈도 용기도 없었다. 심한 염세증은 삶의 방향마저 지워버렸다. 결국 남편은 서울 자기집으로 떠나버리고 어려서부터 동경해오던 죽음을 실행에 옮기게 되었다. 봉급이 있던 시절, 자정이 넘어 이상한 예감으로 다시 내려온 남편은 다 죽은 나를 병원으로 옮겨 며칠만에 살려 놓았으나 나는 다시 그에게 원망을 퍼부었다.

그때 하혈하는 시누이를 고쳐 주겠다면, 도봉산의 작은 암자에서 수도하는 도사라는 분을 알게 되었고 처음으로 듣는 부처님 법에 빠져들게 되었다. 산에 가기 3일 전부터 육식은 일체 안먹고 목욕하고, 산에 가면 또 골짜기의 냉수로 머리 감고 목욕하고 그냥 빌었다. 영하 10도가 넘는 겨울엔 물이 몸에 닿는 즉시 짝짝 소리를 내며 얼어붙기도 했다. 그러기를 10여년, 내 운명은 바뀌지 않았다. 죽음에 대한 집착만 늘어가 몇 차례 시도했으나 여전히 실패였다.

1979년 3월. 39세로 학교에 복직했다. 그러나 이듬해 5월 급성 자궁근종이 찾아왔다. 그때는 자궁병이 흔치 않을 때라 내가 꿈꾸는 죽음을 실행에 옮길 수도 있는 좋은 기회였는 데, 왜 방문을 걸어 잠그고 그토록 울었었는지? 딸아이 생일날 대수술을 받고 그 후유증으로 오른쪽 다리를 못쓰게 됐다. 또 수술을 받게 된다면 정말 죽어버리자. 이렇게도 질긴 모습을 가지고 괴롭게 살지 말고. 그러나 만약 정상적인 몸이 된다면 천사처럼 살리라. 그러나 몸이 회복되어 가면서 다시 옛날의 내 모습이 되어 욕망이란 이름의 전차를 타고 종점없이 달리기 시작했다.

이 연 옥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영어로 배우는 경전 옥야경 ④

Whoever and with loving sympathy,
Just as a mother for her only son,
For husband cares, and o'er his stored up wealth
Keeps watch and ward-
Let her be called: a mother and a wife!

어머니가 외아들 돌보듯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남편을 돌보고, 그가 모은 재산을 지키는 자,
그를 일러 어머니같은 아내라 한다.

Who holds her husband in the same regard
As younger sister holds the elder born,
The meek in heart, who in his every wish
Her husband serves-
Let her be called: a sister and a wife!

여동생이 형을 생각하듯
남편을 존중하고
심성이 유순하여 소망하는 것마다
남편에게 도움 되려는 이,
그를 일러 누이같은 아내라 한다.

And she who is as glad her lord to see
As boon companions long apart to meet,
A gracious character of gentle birth,
A fond helpmate-
Let her be called: companion and a wife!

유쾌한 친구가 오래 헤어졌다 만난 듯
가장을 보고 기뻐하고
좋은 가문 출신다운 고상한 기품으로
다정한 반려가 되는 이,
그를 일러 친구같은 아내라 한다.

"편안함이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그랜드 환타지아로 오십시오.
아름다운 사랑으로 피어나는
환타지아의 꿈이 있습니다.
감미로운 음악이 흐르듯 설레임으로 다가와
포근하게 스며드는
그랜드 환타지아의 꿈.
행복한 내일을 여는 침대
그랜드 침대——





그랜드 침대, 왜 좋은가?

■ 침대 전문 회사 20여년간의 전통과 기술을 바탕으로좋은 침대를 위한 한길만을 고집해 온 전문 업체입니다.

■ 좋은 품질, 편안한 가격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제품에 25mm 강선을 사용한 하트 스프링 공법으로 제작되어 가장 좋은 품질의 침대를 생산하고 있으며, 또한 합리적인 가격대로서 큰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 투 매트리스 사용 각기 다른 2개의 매트리스 사용으로 압력을 배로 견딜 수 있으며, 수명이 2.5배 연장되기 때문에 경제적입니다.

■ 다양한 모델 전문 회사만이 가능한 다양한 모델을 갖추고 있으며 한 모델마다 선택의 폭이 넓어 더욱 자유롭게 개성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대리점

서울지역
홍제동 735-5572
모래내 373-2088
봉천동 889-8647
봉천동 888-5945
능 동 468-0246
도곡동 567-4331
신목동 691-2195
등촌동 644-2127
화곡동 692-7038
화곡동 690-8571
독산동 855-4148
구로구 862-6066
시흥동 803-0027
답십리 244-0937
신림동 862-0542
신림동 873-2180
북가좌동 604-9989
망원동 334-0752
청량리 966-5608
미아리 984-2341
미아리 927-0072
창 동 995-5671
삼양동 986-4369
수유리 989-1761
신길동 849-3495
대림동 849-9399
면목동 432-4004
신당동 234-5755
촌 334-8515
신공항 662-1991
포이동 3461-5606
명일동 474-2745

경기지역
광 명 688-8806
송우리 541-1452
마 석 593-3223
수 원 33-8021
남양 734-2820
양포 52-9520
부제 49-8979
탄 56-6582
산 971-5252
정 43-5109
송 62-9922
오 63-6516
풍덕천 73-6689
인 35-7545
천 502-5764
산 63-5981
산 975-2630
납 793-3467
인천지역
석남동 573-7472
석남동 578-8338
계산 541-8833
평 503-9803
동 764-2030
안 420-0281
안 862-8080
안 873-1049
안 865-1818
압 424-4883
동 427-8914
동 427-9857
동 425-7633
연수동 814-4164
전남지역
광 366-3066
주 369-2491
천 755-0156
포 74-5671
남 536-3313
수 63-5904
전북지역
리 858-1231
주 83-3223
산 42-5555
주 535-2803
안 81-1234
원 55-2555
강원영업소
속 초 635-5246
충청영업소
대 전 631-7287
대구경북영업소
철 곡 312-3904
부산영남영업소
김 해 34-9281

꿈의 나래를 편다
그랜드침대
• 본사 : 경기도 고양시 행동동 267-18
• TEL: (02) 308-1818/9, 303-7376, 372-7941
품질보증